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朝鮮館譯語』音韻研究

- 南京方言과의 비교를 통하여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田 輝

2017年 2月



『朝鮮館譯語』音韻 研究

- 南京方言과의 비교를 통하여 -

指導教授 安 在 哲

田 輝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2月

田輝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委 員

金 思 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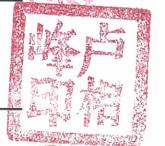
委 員

金 恩 松



委 員

卢 相 峰



委 員

安 在 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7年 2 月

Study of The Rhyme of “Chao Xian Guan Yi
Yu”

-By Comparision with Nan Jing Dialect -

HUI TIAN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6.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Yeong-Ho lee

Eun-Ju Kim

Eun-Hee Kim

Xiang-Feng Lu

Thesis director, Jae-Cheol Ahn, Prof. of Literature

2016. 12. 14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次

I. 緒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와 방법	4
3. 『朝鮮館譯語』 概觀	6
II. 『朝鮮館譯語』의 音韻 분석	10
1. 『朝鮮館譯語』의 聲母 분석	14
1) 有氣音과 無氣音의 양상	14
2) 脣音의 양상	30
3) 齒音의 양상	35
4) 喉·牙音의 양상	49
5) 鼻音 /n-/과 邊音 /l-/의 양상	54
6) 零聲母의 양상	59
2. 『朝鮮館譯語』의 韻母 분석	66
1) 『朝鮮館譯語』 중의 入聲字	66
2) 陰聲韻	69
3) 陽聲韻	91
III. 『朝鮮館譯語』와 普通話·南京方言의 음운체계 비교	116
1. 현대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음운체계 비교	116
1)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聲母체계 비교	117
2)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韻母체계 비교	125
2. 『朝鮮館譯語』와 南경방언의 음운체계 비교	133
1) 聲母체계 비교	133
2) 韻母체계 비교	149
3) 『朝鮮館譯語』에 반영된 南京方言의 音韻特徵	155
IV. 『朝鮮館譯語』의 어휘 분석	156
1. 『朝鮮館譯語』의 어휘 구성	156
1) 詞의 分合	157

2) 『朝鮮館譯語』중의 誤字	158
2. 『朝鮮館譯語』중에 語源 변화	160
1) ‘天’의 語源과 變遷 推定	160
2) ‘二’와 관한 考證	161
3. 중세 한국어 方言 중에 남아 있는 어휘	168
V. 結論	173

範例

『朝鮮館譯語』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주로 한자 어휘, 漢字로 표시한 韓國語 語音과 當時의 漢字音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天 哈嫩二 忝
日 害 忍
月 得二 臥
星 別二 省
風 把論 捧

첫 번째 漢字어휘는 본문 중에서 1段字라고稱하며 그 당시의 표준어이다. 두 번째 漢字어휘는 漢字로 표시한 韓國語 語音이며 본문 중에서 2段字라고稱한다. 마지막 셋 번째 漢字어휘는 3段字로稱하며, 그 당시의 時音이다. 즉 그 시대 ‘天’의 실제 발음이다.

한자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臥：果 去 過 疑 合 一 次濁
月：山 入 月 疑 合 三 次濁

‘臥’는 果攝의 過韻에 속하는 去聲字로, 疑母 合口一等인 次濁字인 것을 나타낸다.

迫：白, 百, 伯, 北
迫：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白：梗 入 陌 並 開 二 全濁
百：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伯：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北：曾 入 德 幫 開 一 全清

‘迫’은 3段字를 나타내며, ‘白, 百, 伯, 北’은 모두 1段字이다. 『朝鮮館譯語』는 聲調와 상관없이 발음이 비슷한 글자들은 같은 譯語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3段字는 1段字보다 적다.

I. 緒論

1. 研究目的

한자는 주변국가 언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한국어는 중국어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은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갖추기 전에 중국의 한자를 차용했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그 의미나 語音에 있어 고대 한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現代 中國語는 북방 외래 민족의 영향을 받아 語音에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明·淸 시대에 그 변화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어음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지만 고대 한자의 어음은 중국 주변국가의 언어와 중국 경내의 몇몇 지역의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한자 對譯자료는 주변국가 언어를 고찰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중국 고대 한자의 語音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언어계통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언어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中·韓 對譯자료에 현존하는 『鷄林類事』, 『朝鮮館譯語』, 『老乞大』, 『朴通事』 등이 있지만 한국의 문자가 創製되기 전에는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 뿐이었다. 이들 자료는 中世 한국어의 중요한 자료로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朝鮮館譯語』가 편찬된 시기는 명나라 시기로, 당시의 수도는 南京이었기 때문에, 『朝鮮館譯語』는 남경 어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朝鮮館譯語』 어음과 중국 南京지역 方言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南京方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吳나라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본토 語音은 이미 漢化가 시작된 초기 단계의 中古 吳語이다.

晉나라 시기 이전에는 순수 吳語區였다. 吳語¹⁾는 周나라 吳王인 泰伯이 吳나라로 옮겨갈 시기 吳나라의 귀족이 사용하던 언어와 그 지역에서 漢族에 속하지 않는

1) 吳語를 또 江東話, 江南話, 吳越語라고도 칭한다. 吳語는 上海語를 共通語로 여기며, 蘇州音을 標準音으로 삼고, 또 吳語區 江南群城 方言을 基礎方言으로 삼는 언어이다.

越族 居民의 언어를 점차적으로 융합하여 형성한 것이다.

南京話는 泰伯이 吳나라로 간 후의 1,000년 동안, 아주 적은 변화만 있었지만 晉나라 시기에 5개의 소수민족이 中원을 혼란시킨 이후에는, 晉나라의 수도가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때 中원지역의 사대부 관원 귀족들은 남방 지역으로 옮기면서 洛陽雅言을 가지고 왔다. 본지 吳語는 신속하게 기울기 시작하였지만, 吳지역 要素와 융합한 新雅言인 金陵雅音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南京은 中華文化의 중심이 되었고, 南京話는 역대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²⁾.

明나라가 南京을 首都로 정하면서 대량의 江淮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朱元璋은 20만 淮人을 南京에 정착시켰다. 明나라 永樂시대에 南京에 거주하는 40여만 明주민 절반에 가까운 인구는 외지에서 징용되거나 강제적으로 옮겨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말미암아 南京 方言에 확실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六朝시기의 金陵雅音에서 변화해 온 南京話는 부분적으로 江淮話를 융합하였으며 나아가 國家 官話 標準語의 기초 음계로 확립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 근대까지 通行된 南京官話이다.

明·清 시대에는 漢語의 正音이었으므로, 南京話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南京話는 중국 역사상 오랫동안 사용된 공식적인 언어였고, 金陵雅言은 고대 중세 元 표준음을 정통으로 이어받아 漢語의 표준음으로 확립되어, 오늘날의 중국어 형태에 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六朝시기 이전의 漢族 문화에 있어서 우월한 의식과 淸나라 中葉 이전의 王朝들의 공식표준어는 모두 南京官話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南京通史口明代卷』³⁾과 『南京方言志』⁴⁾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 서양 선교사들은 마카오를 경유해 南京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하였고, 남경에는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런 연유로 그 당시 중국문화와 서양문화 간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바로 남경이었다. 후에 선교사인 金尼閣⁵⁾은 그의 저서 『西儒耳目資』를 당시의 南京方言으

2) 張衛東, 「試論近代南方官話的形成及其地位」, 『深圳大學人文社會科學版』, 1998年, 第3期, p. 76.

3) 範金民等, 『南京通史·明代卷』, 南京出版社, 2012年.

4) 南京市地方誌編纂委員會、方言誌編纂委員會, 『南京方言志』, 南京出版社, 1993年.

5) 金尼閣(1577-1629), 프랑스 사람, 언어학자, 한학자, 선교사. 중국에서 선교활동 기간 『西儒耳目資』를 著書했다.

로 기록하여 다른 나라로 전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西儒耳目資』는 중국에 通行하는 官話의 실제 모습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西儒耳目資』에는 5가지 聲調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의 南京音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南京音’이란 狹義로 말하여 南方官話(江淮官話)의 標準音이자 동시에 온 中國에서 사용하는 官話의 標準音이기도 하다.⁶⁾

현재까지 『朝鮮館譯語』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현존하는 『朝鮮館譯語』에 관한 자료들도 많지만, 『朝鮮館譯語』가 완성된 시대와 당시 언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朝鮮館譯語』에 관하여 연구한 기존 연구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연구문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철현의 「『朝鮮館譯語』研究」⁷⁾는 “本譯語 解讀에 있어서는 『鷄林類事』와 는 달리 中國쪽이나 우리 쪽이 다 文獻이 꽤 많이 있어 研究에 훨씬 수월하다. 굳이 알타이語를 엿보려고 하지 않아도 中國의 韻書關係文獻으로 『韻會』, 『中原音韻』, 『切韻指掌圖』, 『切韻指南』, 『洪武正韻』 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쪽으로서는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初刊朴通事諺解』 『初刊本外』에 國語古文獻들이 많아 過히 힘들일 것 없이 얼마간의 音韻知識과 中國韻學의 素養, 그리고 方言知識을 가지고 細密히 分析 綜合한다면 그 解讀은 可能하다고 본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廣韻』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金泰慶은 「『朝鮮館譯語』로 본 15세기 중국어 음운 특징」⁸⁾ 중에 “14~15세기 중국어를 반영하는 자료로는 1324년에 간행된 『中原音韻』과 1442년에 雲南 사람인 蘭茂가 펴낸 『韻略易通』이 있다. 『朝鮮館譯語』의 간행 시기는 『韻略易通』의 간행 시기와 비슷하다. 『中原音韻』과 『韻略易通』 모두 근대 중국어의 실제 음을 반영한 운서들로 평가 받고 있다. 두 운서 모두 이전의 중고음 자료인 운서나 운도에 비해 단 순해진 음운체계를 상당히 진실하게 반영했다고 평가 받아 왔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中原音韻』은 북방 음계를 반영한 책이고 『韻略易通』은 『朝鮮館譯語』보다 늦게 나온 책이다.

이윤동은 「『조선관역어』 국어 모음 사음에 대하여」⁹⁾라는 논문에서 “『朝鮮館譯語

6) 張衛東, 「論『西儒耳目資』의 記音性質」, 『紀念王力先生九十誕辰文集』, 山東教育出版社1991年版, pp. 224~242.

7) 김철현,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26기, p. 151.

8) 金泰慶, 「『朝鮮館譯語』로 본 15세기 중국어 음운 특징」, 중국어문학논집(46), 2007년, p. 133.

9) 이윤동, 「『조선관역어』 국어 모음 사음에 대하여」, 어문학(10), 2000년, p. 108.

』는 明代에 북경에서 편찬된 것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5세기 초엽의 중국 북방음일 것이다. 따라서 『中原音韻』(1324), 『韻略易通』(1442), 『韻略匯通』(1642)과 『四聲通解』 등을 참고하고 그 중에도 특히 『韻略易通』의 음계를 중심으로 중국 字音を 구명하겠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朝鮮館譯語』는 북경에서 편찬한 책이지만 北方音은 아니다.

『朝鮮館譯語』의 /-l/은 當時 中國의 北方 字音を 나타내고 있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朝鮮館譯語』에서 北方音대로 例文을 살펴보면, /-l/部分이 強하게 소리 나는 境遇는 ‘二’字를 쓰고, 比較的 輕하게 소리 날 때는 /-l/音を 수반해야 本字音이 /-l/을 兼하도록 借用한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몇몇 연구는 『朝鮮館譯語』가 편찬된 시대 배경과 당시 중국의 金陵(南京)方言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 착오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朝鮮館譯語』의 어음을 고찰하기 위해서 중국 남경방언의 어음과 유사성을 비교하여 『朝鮮館譯語』의 어음에 관하여 다시 고찰함으로써 정확한 음가를 밝히고자 한다.

2. 研究範圍와 방법

『朝鮮館譯語』시기, 中世 韓國語의 音系와 당시 漢字의 時代音 계통을 분석하고 대조해 보면, 같은 시대인 중국의 ‘金陵雅音’과 『朝鮮館譯語』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현재 南京方言과의 비교를 통해, 『朝鮮館譯語』의 어음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전, 한국과 중국의 語音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는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 등이 있는데, 『鷄林類事』는 단어를 기록한 반면 『朝鮮館譯語』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문까지도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다.

당시 한국어의 어음 및 한자의 어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段	2段	3段
天	哈嫩二	忝
日	害	忍
月	得二	臥
星	別二	省

『朝鮮館譯語』의 어음표기는 유사하거나 같은 한자로 당시의 中世 韓國語音を 표기하였으므로, 후대의 한국어와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당시 사용된 한자의 참조 기준에 대한 각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필자는 『朝鮮館譯語』중의 漢字音은 당시 江淮官話 중 南京方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朝鮮館譯語』는 訓民正音 이전 즉 1408년부터 1424년 사이에 편찬되고 완성되었다. 따라서 한자로 韓國語 發音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점은 『鷄林類事』 어음표기방식이 유사하지만, 『朝鮮館譯語』에는 더 많은 漢字音이 나타났다.

시대가 다르고 首都 또한 다르므로 官方 言語의 차이 또한 비교적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元나라 시기의 수도는 大都(오늘날의 北京)인데, 당시의 音이 반영된 韻書인 『中原音韻』에는 입성이 다른 3개의 성조에 들어감으로써 北方音系를 반영하고 있으며, 明나라 시대의 韻書인 『洪武正韻』에는 또 다시 입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는 南方音系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현재의 일부 남방지역의 方言 중에는 여전히 入聲이 남아있기도 하다.

會同館은 명나라 초기 南京에 설치된 관원 접대 겸 驛站의 장소로 출발하여 성조 영락제 때에는 북경에도 설치되었다.

당시 朝鮮은 아직 訓民正音을 창제하기 前인지라 여전히 한자를 가지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명나라 당시의 音인 오른쪽(3段)의 時音을 사용함으로 중국인과 교류할 수 있었고, 반면 중국인들도 중간(2段)의 한자를 통하여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 『朝鮮館譯語』의 편찬 목적이기도 하였다. 중국 남북 언어는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동일한 한자의 읽는 법 또한 크게 달랐다. 따라서 본인은 3段에 배열된 時音은 그 당시의 관화 중의 실제 발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자어와 時音이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南京方言詞典』¹⁰⁾에 의하면, ‘鞋子’는 南京 板橋方言으로는 ‘孩子’와 그 발음이 같다. 당시의 時音으로 표기하면 ‘孩子’라고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며, 時音을 고찰할 때에는 시대

10) 李榮 主編, 『南京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8.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本稿는 江淮官話 중 南京方言과 대조하고 분석하여 기술하되 아래의 순서로 할 것이다.

제2장의 ‘『朝鮮館譯語』의 音韻 분석’에서는 『朝鮮館譯語』 중의 모두 글자들의 聲母와 韻母의 양상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현대 南京方言과 金陵雅音의 차이를 비교하여 『朝鮮館譯語』 시기의 金陵雅音을 추정하며, 또 普通話와 비교를 통해 南京方言의 양상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南京方言과 『朝鮮館譯語』의 聲母와 韻母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朝鮮館譯語』 중에 나타난 어휘 문제와 어음 현상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本稿는 현대 江淮官話와 현대 南京方言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朝鮮館譯語』 시기의 어음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江淮官話와 南京方言 중에는 古代音이 아직 보존되어 있어서 『朝鮮館譯語』 語音 연구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 『朝鮮館譯語』 概觀

明나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국가 사이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하여지자, 漢族과 海外 諸國과의 通交가 頻繁하여, 華夷譯語를 專擔하는 四夷館을 設置하였다. 洪武(1308-1398)·永樂(太宗年號, 1403-1424) 間에는 會通(同)館이 設置되었고 各國의 通事도 생겨났다. 『朝鮮館譯語』가 原來 어느 때에 지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不明確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李朝 初보다는 前 時期의 말 곧 高麗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유추한다.

“譯語가 『訓民正音』에 앞서 출간되었으며 明 英祖 重祚 時期인 天順年間(1437-1464, 李朝 世祖2~9) 前에 이루어진 것이라 譯語에 나타나는 音韻이 『中原音韻』이 나타난 때 보다는 後요”¹¹⁾,

11)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景仁文化社, 1972年9月, pp. 17-26.

“『朝鮮館譯語』는 明朝 초기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의 어휘들을 중국어로 번역 편찬한 『華夷譯語』에 수록된 朝鮮語 어휘집이다. 하지만 정확한 편찬 시기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다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주변국가에서 오는 사신들의 언어통역 및 영접을 위해 永樂 6년(1408년) 北京에 설치된 會同館에서 편찬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편찬 시기는 永樂年間(1403년-14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위의 견해를 종합하여 文璇奎는 『朝鮮館譯語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現存의 譯語가 高麗에 해당되는 때에 編纂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아무래도 洪武 30年에서 李朝 世宗 末인 明 景泰元年까지의 사이에서라고 말함이 通常的인데, 이 두 年代의 中間으로 잡는다면, 그건 明 太宗의 永樂 末年(李朝 世宗6年)이 되거니와, 多少 幅을 넓히어서 永樂(1403~1424. 李朝 太宗 3-世宗6年)으로 보아 別 無理가 아니라고 여겨진다.¹³⁾

위에서 보면 『朝鮮館譯語』는 1324년의 『中原音韻』 후에 나타난 책이며 1408년에 설치된 會同館에서 편찬되었으며, 1443년의 『訓民正音』이 발간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판정하기도 하였다.

‘朝鮮’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점도 그 당시에 朝鮮 時代가 合理的임을 보여준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朝鮮館譯語』는 1403년에서 1424년 사이에 발간된 책으로 판정해 본다. 그 당시 중국의 韻書는 『洪武正韻』이다.

위의 자료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朝鮮館譯語』는 1324년에 출판된 『中原音韻』보다 늦게 출판된 것으로, 四夷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408년 설립된 會同館에서, 永樂(1403~1424. 李朝 太宗3-世宗 6年) 시기에 편성이 되었다. 즉 『朝鮮館譯語』는 1408년 이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1443년에 편찬된 訓民正音이 나타나기 전, 서명에서도 朝鮮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였다. 朝鮮 時代 더 나아가 시간의 범위를 좀 더 좁혀 1408년부터 1424년도 사이에 편찬되어 완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한국의 문자의 발명되기 이전이어서, 한자로 한국어 발음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점에서는 『

12) 朱星一,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近代漢語 韻尾 변화 -天文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4집, p. 359.

13)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景仁文化社, 1972年9月, p. 27.

『鷄林類事』와 유사하지만 『朝鮮館譯語』 중에는 漢字 時音이 더 많다.

당시의 時音, 즉 『朝鮮館譯語』 시기의 漢字의 실제 발음은, 文璇奎의 『朝鮮館譯語 研究』에서 時音과 한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필자도 또한 時音을 고찰할 때에는 그 시대의 音을 근본으로 추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洪武正韻』에 속하는 시기 이외에도 또 다른 영향 요소가 있지 않을까?

公元 1368년에 明太祖 朱元璋은 應天府에서 皇帝가 되었다. 그 당시의 應天府는 현재의 南京이다. 그 후에 永樂 초기 약 1400년 초 國都를 順天府로 옮겼는데 順天府는 현재의 北京이다.

『朝鮮館譯語』는 北京으로 옮긴 후에 나타난 책이라고 판단된다. 明나라 초기에도 南京에 있었기 때문에 官話는 江淮官話가 주도하였으며, 北京으로 옮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江淮官話¹⁴⁾는 北京 지역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북경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江淮官話는 실제로 明나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東晉 南北朝 시대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北方은 洛陽音을 기준으로 삼는 中原官話가 대표관화였고, 南方은 南京音을 기준으로 삼는 江淮官話가 대표적인 관화였다.

“明清兩代，漢語的通行語稱之爲‘官話’。這一通行語就是以江淮方言爲基礎方音，以南京語言爲標準音，以白話小說爲其語法楷模的市民社會語言。朱棣率領淮軍掃北又永樂北遷，致使京津語言成爲江淮官話在北方的一个方言島。現代北京話其實是以宋元北遷中原正音爲基層，以明代北遷江淮官話爲表層，又受到北方阿爾泰語影響的一種方言。在近代漢語發展史上，地接南北，時貫古今的江淮官話占有十分關鍵的地位。¹⁵⁾”

“明 清 두 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通用語는 官話로 불려졌다. 이 통행된 언어는 江淮方言을 기초로 삼는 方言과 동시에 南京 언어를 표준음으로 삼기도 한다. 白話의 소설을 그 어법의 시민사회 언어로 삼았으며, 朱棣는 淮軍을 이끌고 북방을 휩쓸고 永樂년에 북으로 수도를 옮겼다. 北京과 天津의 언어는 江淮官話로 북방에 있는 方言島로 전락되어버렸다. 현대 北京語는 사실상 宋 元 시대 북쪽으로 수도를 옮겨가던 도중의 中原正音을 기층으로 삼았으며, 明나라 시대 북쪽으로 옮겨가는 江淮官話를 표층으로 삼는다. 또한 북방 알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방언이다. 근대 중국어 발전 역사상, 지리가 남북에 접해 있고, 시기가 고대와 현대를 잇고 있는 江淮官話는

14) 옛날에는 南京方言은 江淮官話의 대표음으로 여기고 현대에는 揚州方言은 江淮官話의 대표음으로 여긴다.

15) 李葆嘉, 『中國語言文化史』, 江蘇教育出版社, 2003年, p. 492.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朝鮮館譯語』는 江淮官話 특히 江淮官話 중의 南京方言과 같은 시기였다.

아래에서는 『朝鮮館譯語』가 江淮官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여 기술할 것이다.

II. 『朝鮮館譯語』의 音韻 분석

한국어의 역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국어, 전기·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의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중세국어 이후의 상황은 『訓民正音』으로 된 문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언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의 언어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중국인이 발견한 구결 자료가 있는 정도이고 더 거슬러 가면 신라 향가가 겨우 14수,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志)에 실린 삼국의 땅 이름 자료 정도이고 그 외 단어의 편린이 역사 기록에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¹⁷⁾

오늘날의 韓國語는 中世 韓國語가 줄곧 이어져 왔으며, 中世 韓國語는 高麗시대의 성립과 동시에 형성되었다. 그 시기에 중부지역에서는 중앙언어, 즉 共用언어, 文學언어 등이 확립되었다.

中世 韓國語는 아직 문자로 형성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口頭文學이라고 할 것이다.

早期 中世 韓國語는 자잘한 자료들을 남겼다. 12세기 초, 宋나라 孫穆이 저술한 『鷄林類事』는 中世 韓國語 형성기의 유일한 자료이며, 13세기 중기에 완성된 『鄉藥救急方』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에 明나라 永樂시기에 편찬된 『華夷譯語』 중의 『朝鮮館譯語』는 韓國語學史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으며, 訓民正音 창조 이후에는 한국 고유의 문자가 널리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어의 原型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초, 後期 中世 韓國語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각종 문헌의 자료가 점차적으로 풍부해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1443년에는, 朝鮮 王朝 世宗大王과 集賢殿의 학자들이 한국의 固有言語인 『訓民正音』을 창제하기에 이르렀다.

訓民正音은 다른 언어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문자이다. 이전에는 한국인들은 한자를 차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었는데 문자

16) 정운자, 「한국어 체언 어간말자음의 역사적 변화 양상과 전망」, 東洋古典研究 第29輯, 2007年, p. 179 참조.

17) 김주원, 「한국어사와 삼국의 언어」 『공학교육연구』, 2004年, pp. 1-2 참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訓民正音』의 서언에서 世宗大王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¹⁸⁾라고 하였다.

이 새로운 文字系統이 만들어 짐에 따라서 한국어로 모든 기록이 가능해졌다. 학자들은 『訓民正音』으로 수많은 중국 書籍들과 佛經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訓民正音으로 中世 韓國語의 근본을 연구하고 古代 韓國語의 면모까지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本 研究는 『朝鮮館譯語』의 音韻體系를 살펴 그것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그것의 음운체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譯音의 대상이 되는 中國의 漢字音과 譯音한 당시의 時音을 비교함으로써, 그것들의 分음을 정리하면, 그 대략적인 양상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中國語의 音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기로 한다.

이 때 本考에서는 中國中古音이 現代中國語로 변화된 양상을 연구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 ‘고대 국어 자음체계’, ‘東國正韻의 23자모표와 한글’ 등을 제시하여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의 中古音과 『朝鮮館譯語』를 비교하기로 한다.

표1: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¹⁹⁾

18) 나랏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 홀싸 이런 전 촌로 어린 百姓이 니르 고저 훈배 이셔도 믹춤내 제 뜻을 시러 퍼디 못 훈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 軒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를 밍근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빔 니겨 날로 便安의 軒고저 훈싸 르미니라”

19) 董同龢, 『中國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2005年, pp. 211~212.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唇		幫 p	滂 p'	並 p'	p	明 m							
輕唇		非 f	敷 f	奉 f		微∅(u)							
舌頭 (娘併入,來附)		端 t	透 t'	定 t'	t	泥(娘)n 來l							
舌上	梗入二等讀音	ts	ts'	澄 ts'	ts								
	其他	ts̺	ts̺'		ts̺								
齒頭	洪音	ts	ts'	ts'	ts	s	ts',s	s					
	細音	ts̺	ts̺'	ts̺'	ts̺	心 ɛ	邪 ɛ',ɛ	ɛ					
正齒 附半齒	莊系	深及梗曾通入	ts	ts'	ts	s	俟	s					
		其他	ts̺	ts̺'	ts̺, s̺								
	章系	止開	章 ts̺	昌 ts̺'	船 ts̺', s̺				日 ɹ	書 s̺	禪 ts̺', s̺	s̺	
		其他											
牙曉 匣移此	開口	洪音	見 te	k	k'	羣 k'	疑 ∅(i)	匣	x				
		三等		te	te'					te	n, ∅(i)	ɛ	x
		其他		te	te'					k	∅(i)	曉 ɛ	ɛ
	合口	洪音	te	k'	te'	k	∅(u)	x	x				
細音		te	te'	te'	te	∅(y)	ɛ	ɛ					
喉	開口	洪音	影 ∅(u)	∅		云, 以 ∅(u)							
		細音								∅(i)	∅(y)		
	合口	洪音								∅(u)	∅(y)		
		細音											

고대 국어²⁰⁾ 자음체계

표2: 박병채(1971), 장세경(1990): 11자음²¹⁾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p	t	k	ʔ
파찰음		c		
마찰음		s		h
비음	m	n	ŋ	
유음		r		

표3: 조규태(1986), 김동소(1995): 8자음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p	t	k	
파찰음				
마찰음		s		
비음	m	n	ŋ	
유음		r		

(3) 박동규(1995): 8자음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p	t	k	
파찰음				
마찰음		s	x	
비음	m	n		
유음		r		

東國正韻의 23자모표와 한글²²⁾

20) 고대 국어는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국어를 가리킨다.

21) 양정호, 「鄉歌 解讀과 子音體系」, 國語學 第51輯, 2008年, p. 342.

22)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年, p. 537.

	牙音	舌音	唇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清	君ㄱ	斗ㄷ	驚ㄴ	卽ㄷ	挹ㅇ		
次清	快ㅋ	吞ㅌ	漂ㅍ	侵ㅌ	虛ㅎ		
全濁	蚪ㄱ	覃ㄷ	步ㅍ	慈ㅌ	洪ㅎ		
不清 不濁	業ㅇ	那ㄴ	彌ㅍ		欲ㅇ	閭ㄴ	穰△
全清				戍ㅌ			
全濁				邪ㅌ			

1. 『朝鮮館譯語』의 聲母 분석

아래에서는 ‘有·無氣音’, 唇音, 齒音, 喉·牙音, 鼻·邊音, 零聲母 등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1) 有氣音과 無氣音의 양상

(1) 唇音(幫系)

① 拜 : 擺²³⁾

拜 : 蟹 去 怪 幫 開 二 全清

擺 : 蟹 上 蟹 幫 開 二 全清

② 擺 : 拜, 陪

擺 : 蟹 上 蟹 幫 開 二 全清

拜 : 蟹 去 怪 幫 開 二 全清

陪 : 蟹 平 灰 並 合 一 全濁

23) 앞에 ‘拜’은 『朝鮮館譯語』중에 3段字이며 ‘擺’은 1段字다.

③ 陪：轡

陪：蟹平灰並合一全濁

轡：止去至幫開三全清

④ 播：報，布，袍，珀

播：果去過幫合一全清

報：效去號幫開一全清

布：遇去暮幫合一全清

袍：效平豪並開一全濁

珀：梗入陌滂開二次清

⑤ 稟：冰，兵

稟：深上寢幫開三全清

冰：曾平蒸幫開三全清

兵：梗平庚幫開三全清

⑥ 標：表

標：效平宵幫開三全清

表：效上小幫開三全清

⑦ 扁：邊

扁：山上銑幫開四全清

邊：山平先幫開四全清

⑧ 并：餅

并：梗 去 勁 幫 開 三 全清
餅：梗 上 靜 幫 開 三 全清

⑨ 迫：白，百，伯，北

迫：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白：梗 入 陌 並 開 二 全濁
百：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伯：梗 入 陌 幫 開 二 全清
北：曾 入 德 幫 開 一 全清

⑩ 怕：八

怕：假 去 禡 滂 開 二 次清
八：山 入 黠 幫 合 二 全清

⑪ 派：碑

派：蟹 去 卦 滂 合 二 次清
碑：止 平 支 幫 開 三 全清

⑫ 平：貧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貧：臻 平 眞 並 開 三 全濁

⑬ 品：平，瓶

品：深 上 寢 滂 開 三 次清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瓶：梗 平 青 並 開 四 全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3段字인 時音은 대부분 全淸聲母인 幫母字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③의 ‘陪(蟹, 平, 灰, 並, 合, 一, 全濁)’와 ⑫의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등은 오히려 全濁聲母인 並母字이다.

특히 ③은 全淸聲母인 1段字 ‘嚮(止, 去, 至, 幫, 開, 三, 全淸)’에 대한 譯音인 3段字 時音인 ‘陪’는 오히려 並母字이다. 이것은 『朝鮮館譯語』에서는 全淸聲母인 ‘幫’과 全濁聲母인 ‘並’이 혼용된 것을 말하며, 그것으로 미루어 두 聲母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⑫의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과 ‘貧(臻, 平, 眞, 並, 開, 三, 全濁)’은 모두 並母字이다. 그러나 ⑬은 全濁字 ‘平’과 ‘瓶’을 次淸인 ‘品’으로 對音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並母와 滂母字도 互譯된 것으로 보인다.

또 ④, ⑨, ⑬를 보면 並母字는 聲調와 상관없이 일부는 幫母로 변했고 일부는 滂母로 변했고, ⑩의 ‘怕(假, 去, 禡, 滂, 開, 二, 次淸)’과 ⑪의 ‘派(蟹, 去, 卦, 滂, 合, 二, 次淸), ⑬의 ‘品(深, 上, 寢, 滂, 開, 三, 次淸)’는 모두 滂母字이다.

또한 滂母字와 幫母字도 혼용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朝鮮館譯語』 시기에 자음 ‘ㅍ’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ㅍ’은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발전해 오면서 생긴 음이기 때문에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2) 舌頭音(端系)

① 忝 : 天

忝 : 威上 忝透 開四 次淸

天 : 山平 先透 開四 次淸

② 點 : 田

點 : 威上 忝端 開四 全淸

田 : 山平 先定 開四 全濁

③ 党 : 湯

覺：宕上蕩端開一全清
湯：宕去宕透開一次清

④ 膽：短，旦，嘆，段，單

膽：咸上敢端開一全清
短：山上緩端合一全清
旦：山去翰端開一全清
嘆：山去翰透開一次清
段：山去換定合一全濁
單：山平寒端開一全清

⑤ 歹：太

歹：蟹上海端開一全清
太：蟹去泰透開一次清

⑥ 董：凍，洞，中，種，冬，東，同

董：通上董端合一全清
凍：通去送端合一全清
洞：通去送定合一全濁
中：通平東知合三全清
種：通去用章合三全清
冬：通平冬端合一全清
東：通平東端合一全清
同：通平東定合一全濁

⑦ 頂：亭，廷，程

頂：梗上迥端開四全清
亭：梗平青定開四全濁

廷：梗 平 青 定 開 四 全濁

程：梗 平 清 澄 開 三 全濁

⑧ 朶：朝，桃，豆，稻，駝，刀，頭，到，度，道，條，讀

朶：果 上 果 端 合 一 全清

朝：效 平 宵 知 開 三 全清

桃：效 平 豪 定 開 一 全濁

豆：流 去 候 定 開 一 全濁

稻：效 上 皓 定 開 一 全濁

駝：果 平 歌 定 開 一 全濁

刀：效 平 豪 端 開 一 全清

頭：流 平 侯 定 開 一 全濁

到：效 去 號 端 開 一 全清

度：遇 去 暮 定 合 一 全濁

道：效 上 皓 定 開 一 全濁

條：效 平 蕭 定 開 四 全濁

讀：通 入 屋 定 合 一 全濁

⑨ 迭：磔，弟，鐵

迭：山 入 屑 定 開 四 全濁

磔：咸 入 帖 定 開 四 全濁

弟：蟹 上 齊 定 開 四 全濁

鐵：山 入 屑 透 開 四 次清

⑩ 堆：腿，兌

堆：蟹 平 灰 端 合 一 全清

腿：蟹 上 賄 透 合 一 次清

兌：蟹 去 泰 定 合 一 全濁

⑪ 大：帶，歹，答，玳

大：蟹 去 泰 定 開 一 全濁
帶：蟹 去 泰 端 開 一 全清
歹：蟹 上 海 端 開 一 全清
答：咸 入 合 端 開 一 全清
玳：蟹 去 代 定 開 一 全濁

⑫ 打：多，大，朶

打：假 上 馬 端 開 二 全清
多：果 平 歌 端 開 一 全清
大：蟹 去 泰 定 開 一 全濁
朶：果 上 果 端 合 一 全清

⑬ 兔：土，肚，退

兔：遇 去 暮 透 合 一 次清
土：遇 上 姥 透 合 一 次清
肚：遇 上 姥 端 合 一 全清
退：蟹 去 隊 透 合 一 次清

⑭ 吐：兔

吐：遇 去 暮 透 合 一 次清
兔：遇 去 暮 透 合 一 次清

⑮ 底：地，低，豬，啼，知，第，遲

底：蟹 上 齊 端 開 四 全清
地：止 去 至 定 開 三 全濁
低：蟹 平 齊 端 開 四 全清
豬：遇 平 魚 知 開 三 全清

啼：蟹 平 齊 定 開 四 全濁
知：止 平 支 知 開 三 全清
第：蟹 去 霽 定 開 四 全濁
遲：止 平 脂 澄 開 三 全濁

⑩ 丁：頂，丁

丁：梗 平 青 端 開 四 全清
頂：梗 上 迥 端 開 四 全清

⑪ 顛：殿，典

顛：山 去 霰 透 開 四 次清
殿：山 去 霰 端 開 四 全清
典：山 上 銑 端 開 四 全清

⑫ 桶：銅，通

桶：通 上 董 透 合 一 次清
銅：通 平 東 定 合 一 全濁
通：通 平 東 透 合 一 次清

⑬ 替：勅

替：蟹 去 霽 透 開 四 次清
勅：曾 入 職 徹 開 三 次清

⑭ 著：種

董：通 上 董 端 合 一 全清
種：通 去 用 章 合 三 全清

위의 글자들을 보면, 3段字인 時音은 대부분 全淸聲母인 端母字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⑨의 ‘迭(山, 入, 屑, 定, 開, 四, 全濁)’과 ⑩의 ‘大(蟹, 去, 泰, 定, 開, 一, 全濁)’ 등은 오히려 全濁聲母인 定母字이다.

특히 ⑨는 次淸聲母인 1段字 ‘鐵(山, 入, 屑, 透, 開, 四, 次淸)’에 대한 譯音인 3段字 時音인 ‘迭’는 오히려 定母字이다. ⑩은 1段字인 ‘帶’, ‘歹’, ‘咎’은 모두 端母字로 全淸聲母字인데 이것을 3段字 時音으로 全濁聲母인 ‘大’도 譯音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館譯語』에서는 次淸聲母인 透母字와 全淸聲母인 端母字가 모두 全濁聲母인 定母字와 혼용된 것을 말하며, 그것으로 미루어 두 聲母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⑭의 ‘吐(遇, 去, 暮, 透, 合, 一, 次淸)’와 ‘冤(遇, 去, 暮, 透, 合, 一, 次淸)’는 모두 透母字이다. 그러나 ⑬에서는 3段字로 次淸聲母字인 ‘冤’로, 1段字로 全淸聲母字인 ‘肚(遇上 姥 端 合 一 全淸)’를 對音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端母와 透母字도 互譯된 것으로 보인다.

② ④ ⑥ ⑦ ⑧ ⑩ ⑫ ⑮ ⑱를 보면 定母字는 聲調와 상관없이 일부는 端母字로 변했고 일부는 透母字로 변했다.

① ⑬ ⑭ ⑰ ⑱의 3段字는 모두 透母字이며, 특히 ⑰번의 顛(山, 去, 霰, 透, 開, 四, 次淸)字는 현재 普通話중에도 /t-/로 발음하므로 예외로 볼 수 있다.

透母字와 端母字도 혼용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朝鮮館譯語』시기에 자음 ‘ㄷ’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ㄷ’은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발전해 오면서 생긴 음이기 때문에 『朝鮮館譯語』시기에는 아직 많지 않았을 것이다.

上古音 중의 일부분 端母字가 中古音에서는 이미 舌面音으로 변했다. 아래 글자들은 中古音에서 모두 舌面音으로 읽힌다.

中：通 平 東 知 合 三 全淸
種：通 去 用 章 合 三 全淸
程：梗 平 淸 澄 開 三 全濁
朝：效 平 宵 知 開 三 全淸
豬：遇 平 魚 知 開 三 全淸
知：止 平 支 知 開 三 全淸
遲：止 平 脂 澄 開 三 全濁
勅：曾 入 職 徹 開 三 次淸

種：通去用章合三全清

그러나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여전히 舌頭音으로 읽히는데, 先秦시기 上古音 중에도 ‘中’, ‘遲’, ‘程’, ‘朝’ 등과 같은 글자들은 모두 /t-/ 혹은 /t’-/ 등의 舌頭音으로 읽힌다.

端母字와 透母字도 혼용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朝鮮館譯語』 시기에 자음 ‘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舌根音(見系)

① 果：高，騾，庫，鍋，叩，骨，誥

果：果上果見合一全清

高：效平豪見開一全清

騾：果去過溪合一次清

庫：遇去暮溪合一次清

鍋：果平戈見合一全清

叩：流上厚溪開一次清

骨：臻入沒見合一全清

誥：效去號見開一全清

② 憂：閣，甲，夾

憂：山入黠見開二全清

閣：宕入鐸見開一全清

甲：咸入狎見開二全清

夾：咸入洽見開二全清

③ 耿：更

耿：咸入洽見開二全清

更：梗平庚見開二全清

④ 剛：江

剛：宕 平 唐 見 開 一 全清

江：江 平 江 見 開 二 全清

⑤ 谷：溝，國，舊，古，九，鞠，口

谷：通 入 屋 見 合 一 全清

溝：流 平 侯 見 開 一 全清

國：曾 入 德 見 合 一 全清

舊：流 去 宥 羣 開 三 全濁

古：遇 上 姥 見 合 一 全清

九：流 上 有 見 開 三 全清

鞠：通 入 屋 見 合 三 全清

口：流 上 厚 溪 開 一 次清

⑥ 角：郊，橋，蕎，交

角：江 入 覺 見 開 二 全清

郊：效 平 肴 見 開 二 全清

橋：效 平 宵 羣 開 三 全濁

蕎：效 平 宵 羣 開 三 全濁

交：效 平 肴 見 開 二 全清

⑦ 解：結，鷄，街，血

解：蟹 上 蟹 見 開 二 全清

結：山 入 屑 見 開 四 全清

鷄：蟹 平 齊 見 開 四 全清

街：蟹 平 佳 見 開 二 全清

血：山 入 屑 曉 合 四 次清

⑧ 結：界

結：山入屑見開四全清
界：蟹去怪見開二全清

⑨ 計：吉

計：蟹去霽見開四全清
吉：臻入質見開三全清

⑩ 吉：急，起，氣

吉：臻入質見開三全清
急：深入緝見開三全清
起：止上止溪開三次清
氣：止去未溪開三次清

⑪ 改：開

改：蟹上海見開一全清
開：蟹平哈溪開一次清

⑫ 盖：改

盖：蟹去泰見開一全清
改：蟹上海見開一全清

⑬ 刮：果，瓜，鼓，科

刮：山入鏞見合二全清
果：果上果見合一全清
瓜：假平麻見合二全清
鼓：遇上姥見合一全清
科：果平戈溪合一次清

⑭ 根：近，今，筋，錦，金，艮，緊

根：臻 平 痕 見 開 一 全清
近：臻 上 隱 羣 開 三 全濁
今：深 平 侵 見 開 三 全清
筋：臻 平 欣 見 開 三 全清
錦：深 上 寢 見 開 三 全清
金：深 平 侵 見 開 三 全清
艮：臻 去 恨 見 開 一 全清
緊：臻 上 軫 見 開 三 全清

⑮ 間：見

間：山 平 山 見 開 二 全清
見：山 去 霰 見 開 四 全清

⑯ 敢：乾，勘

敢：咸 上 敢 見 開 一 全清
乾：山 平 仙 羣 開 三 全濁
勘：咸 去 勘 溪 開 一 次清

⑰ 堪：坎

堪：咸 平 覃 溪 開 一 次清
坎：咸 上 感 溪 開 一 次清

⑱ 格：去，茄，脚

格：宕 入 鐸 見 開 一 全清
去：遇 去 御 溪 開 三 次清

茄：果 平 戈 羣 開 三 全濁

脚：宕 入 藥 見 開 三 全清

①⑨ 景：梗，京，經

景：梗 上 梗 見 開 三 全清

梗：梗 平 庚 見 開 二 全清

京：梗 平 庚 見 開 三 全清

經：梗 平 青 見 開 四 全清

②⑩ 拱：宮，公，貢，躬，孔

拱：通 上 腫 見 合 三 全清

宮：通 平 東 見 合 三 全清

公：通 平 東 見 合 一 全清

貢：通 去 送 見 合 一 全清

躬：通 平 東 見 合 三 全清

孔：通 上 董 溪 合 一 次清

②⑪ 栱：弓

栱：通 上 腫 見 合 三 全清

弓：通 平 東 見 合 三 全清

②⑫ 卷：絹

卷：山 上 彌 見 合 三 全清

絹：山 去 線 見 合 三 全清

②⑬ 管：犬，寬，鸛，官

管：山 上 緩 見 合 一 全清

犬：山 上 銑 溪 合 四 次 清
寬：山 平 桓 溪 合 一 次 清
鸛：山 去 換 見 合 一 全 清
官：山 平 桓 見 合 一 全 清

㉔ 官：館

官：山 平 桓 見 合 一 全 清
館：山 去 換 見 合 一 全 清

㉕ 舉：駒

舉：遇 上 語 見 開 三 全 清
駒：遇 平 虞 見 合 三 全 清

㉖ 貴：盔

貴：止 去 未 見 合 三 全 清
盔：蟹 平 灰 溪 合 一 次 清

㉗ 歸：貴

歸：止 平 微 見 合 三 全 清
貴：止 去 未 見 合 三 全 清

㉘ 袞：君，軍，裙，坤

袞：臻 上 混 見 合 一 全 清
君：臻 平 文 見 合 三 全 清
軍：臻 平 文 見 合 三 全 清
裙：臻 平 文 羣 合 三 全 濁
坤：臻 平 魂 溪 合 一 次 清

위의 글자들을 보면, 3段字인 時音은, ㉗을 제외하고 모두 見母字를 사용했다. 즉 3段字의 聲母는 모두 見母字이다.

1段字 중의 全濁聲母인 羣母字는 聲調와 상관없이 모두 見母字와 섞였으며, 溪母字까지도 섞여있다.

韓國語 子音 ‘ㄱ’은 고대국어에 없었는데, 중세 국어에 이르러 비로소 생겼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㉗의 ‘堪(咸, 平, 覃, 溪, 開, 一, 次清)’만 溪母字이다.

위의 有氣音과 無氣音의 기술을 보면, 고대한국어에는 無氣音만 존재하고 有氣音은 없었다. 즉 全清音만 있고 次清과 全濁音은 없었다. 그러나 중세국어²⁴⁾로 변화되어 오면서 有氣音이 생겼지만 여전히 無氣音이 훨씬 많았었다.

예를 들면 ‘탄(呑)’은 鄉歌에서는 ‘열든(今呑, 遇賊歌)’²⁵⁾이었고, 李朝 初期 文獻에서는 有氣音(aspirate)化 되지 않아 ‘녃(頃), 꽃(花)’과 같이 읽히던 말이, 現在에 이르러서는 有氣音化하여 ‘녃, 꽃’으로 변했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녃’, ‘꽃’²⁶⁾ 과 같은 말은, 아래와 같이 본시 激音이 아닌 ‘ㄱ·ㅈ’ 末音을 終聲으로 가졌던 것이 現在 와서는 ‘ㄱ·ㅈ’으로 되었다고 한다.

녃(頃, 月釋·一〇·44), 녃글(釋譜·六·25, 楞嚴·五·24), 녃귀(杜詩·九·7), 녃그로(月釋·九·36)

꽃(花, 龍歌·二), 고지라(月釋·一·23), 고지(月釋·二·31), 붉고지(金山·二·6)

그러나 이것은 ㅎ末音 體言의 ㅎ音 脫落과는 문제가 다르다고도 한다.

이들은 한낱 ㄱ·ㅈ音을 激音化한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筆者는 國語에는 強音化·激音化하는 傾向이 있다고 본다. 갈>칼(刀), 고>코(鼻), 다시>타시(因) 같은 語彙의 變化도 그러하고, 또 여기서 문제되는 이들 말도 그러하다. 卽 ㄱ·ㅈ音을 ㄱ·ㅈ音으로 激音化한 것에 지나지 않다.²⁷⁾

24)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 국어라고 부른다.

25) 양정호, 「鄉歌 解讀과 子音體系」, 國語學 第51輯, 2008, p. 345.

26) ‘꽃’(花)의 原語는 ㅎ末音을 가진 訛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獻花歌에 나오는 “花拏折叱 可獻 乎理音如”와 같은 記錄을 통해 볼 때 짐작이 간다.

27) 金亨奎, 「ㅎ말음 체언고」, 아시아연구, 1963, p. 187.

즉 『朝鮮館譯語』 중에서 有氣音과 无氣音이 혼동되는 것은 激音化 때문일 수도 있다.

2) 脣音의 양상

(1) 重脣鼻音 /m-/과 輕脣鼻音 /m̥-/

① 米：密

米：蟹 上 齊 明 開 四 次濁

密：臻 入 質 明 開 三 次濁

② 迷：眉，瑁，未

迷：蟹 平 齊 明 開 四 次濁

眉：止 平 脂 明 開 三 次濁

瑁：蟹 去 隊 明 合 一 次濁

未：止 去 未 微 合 三 次濁

③ 莫：無，木，母，目，毛，帽

莫：宕 入 鐸 明 開 一 次濁

無：遇 平 虞 微 合 三 次濁

木：通 入 屋 明 合 一 次濁

母：流 上 厚 明 開 一 次濁

目：通 入 屋 明 合 三 次濁

毛：效 平 豪 明 開 一 次濁

帽：效 去 號 明 開 一 次濁

④ 免：面

免：山 上 獮 明 開 三 次濁

面：山 去 線 明 開 三 次濁

⑤ 蠻：萬

蠻：山 平 刪 明 合 二 次濁

萬：山 去 願 微 合 三 次濁

⑥ 墨：麥

墨：曾 入 德 明 開 一 次濁

麥：梗 入 麥 明 開 二 次濁

⑦ 罵：馬，瑪

罵：假 去 禡 明 開 二 次濁

馬：假 上 馬 明 開 二 次濁

瑪：假 上 馬 明 開 二 次濁

⑧ 悶：門，問，物，文

悶：臻 去 恩 明 合 一 次濁

門：臻 平 魂 明 合 一 次濁

問：臻 去 問 微 合 三 次濁

物：臻 入 物 微 合 三 次濁

文：臻 平 文 微 合 三 次濁

⑨ 苗：廟，卯

苗：效 平 宵 明 開 三 次濁

廟：效 去 笑 明 開 三 次濁

卯：效 上 巧 明 開 二 次濁

⑩ 埋：妹，買，賣

埋：蟹 平 皆 明 開 二 次濁

妹：蟹 去 隊 明 合 一 次濁

買：蟹 上 蟹 明 開 二 次濁

賣：蟹 去 卦 明 合 二 次濁

⑪ 閔：明，鳴，民，名

閔：臻 上 軫 明 開 三 次濁

明：梗 平 庚 明 開 三 次濁

民：臻 平 眞 明 開 三 次濁

名：梗 平 清 明 開 三 次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微母字들의 譯語로 모두 明母字를 쓰는 것으로 보아, 微母字가 아직 明母字에서 分離되지 않아 혼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2) 重脣塞音 /p-/과 輕脣擦音/f-/

① 捧：風

捧：通 上 腫 敷 合 三 次清

風：通 平 東 非 合 三 全清

② 本：盆，分

本：臻 上 混 幫 合 一 全清

盆：臻 平 魂 並 合 一 全濁

分：臻 平 文 非 合 三 全清

③ 噴：分

噴：臻 平 魂 滂 合 一 次清

分：臻 平 文 非 合 三 全清

④ 半：飯

半：山 去 換 幫 合 一 全清

飯：山 去 願 奉 合 三 全濁

⑤ 必：飛，筆，皮，妃，鼻，肥，被

必：臻 入 質 幫 開 三 全清

飛：止 平 微 非 合 三 全清

筆：臻 入 質 幫 開 三 全清

皮：止 平 支 並 開 三 全濁

妃：止 平 微 敷 合 三 次清

鼻：止 去 至 並 開 三 全濁

肥：止 平 微 奉 合 三 全濁

被：止 上 紙 並 開 三 全濁

⑥ 把：法，髮

把：假 上 馬 幫 開 二 全清

法：咸 入 乏 非 合 三 全清

髮：山 入 月 非 合 三 全清

⑦ 榜：房，方

榜：宕 上 蕩 幫 開 一 全清

房：宕 平 陽 奉 開 三 全濁

方：宕 平 陽 非 開 三 全 清

⑧ 補：府

補：遇 上 姥 幫 合 一 全 清

府：遇 上 夔 非 合 三 全 清

⑨ 卜：部，叭，父，婆，富，婦，腹，服

卜：通 入 屋 幫 合 一 全 清

部：遇 上 姥 並 合 一 全 濁

叭：山 入 黠 幫 合 二 全 清

父：遇 上 夔 奉 合 三 全 濁

婆：果 平 戈 並 合 一 全 濁

富：流 去 有 非 開 三 全 清

婦：流 上 有 奉 開 三 全 濁

腹：通 入 屋 非 合 三 全 清

服：通 入 屋 奉 合 三 全 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②부터 ⑨까지 輕唇音인 非·敷·奉母字들은 모두 幫母字의 譯語를 사용하였고, 단지 ③만 滂母字를 사용하였다.

②와 ③ 중에는 모두 ‘分’字가 있는데, ②는 ‘本’을 譯語로 사용하고 ③은 ‘噴’을 譯語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p’-/로 읽히는 일부분의 滂母字와 並母字가 幫母字와 혼동되거나, 그 시기에는 有氣音이 많지 않아 幫母字를 대신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①은 敷母字이지만 ‘捧’은 現在普通話가 /p-/이므로 예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어 중에는 /f-/가 없기 때문에, 같은 唇音인 幫母字를 譯語로 사용했으며, 한국어로는 唇音 ‘ㅂ’이나 ‘ㅍ’ 등으로 對譯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현대 한국어로 ‘바람’에 해당하는 한자는 ‘風’인데, 이와 같이 한국어의 訓 역시 중국어의 발음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3) 齒音의 양상

(1) 擦音

① 賞：上，象，廂，商

賞：宕 上 養 書 開 三 全清
上：宕 去 漾 禪 開 三 全濁
象：宕 上 養 邪 開 三 全濁
廂：宕 平 陽 心 開 三 全清
商：宕 平 陽 書 開 三 全清

② 捨：雪，斜，石，舍，說，書，謝，舌，洗，錫，寫，西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雪：山 入 薛 心 合 三 全清
斜：假 平 麻 邪 開 三 全濁
石：梗 入 昔 禪 開 三 全濁
舍：假 去 禡 書 開 三 全清
說：山 入 薛 書 合 三 全清
書：遇 平 魚 書 開 三 全清
謝：假 去 禡 邪 開 三 全濁
舌：山 入 薛 船 開 三 全濁
洗：蟹 上 齊 心 開 四 全清
錫：梗 入 錫 心 開 四 全清
寫：假 上 馬 心 開 三 全清
西：蟹 平 齊 心 開 四 全清

③ 捨：石

拾：深 入 緝 禪 開 三 全濁

石：梗 入 昔 禪 開 三 全濁

④ 杓：少，小，嘯，燒

杓：宕 入 藥 禪 開 三 全濁

少：效 上 小 書 開 三 全清

小：效 上 小 心 開 三 全清

嘯：效 去 嘯 心 開 四 全清

燒：效 平 宵 書 開 三 全清

⑤ 暑：水，修，熟，獸，須，手，袖

暑：遇 上 語 書 開 三 全清

水：止 上 旨 書 合 三 全清

修：流 平 尤 心 開 三 全清

熟：通 入 屋 禪 合 三 全濁

獸：流 去 宥 書 開 三 全清

須：遇 平 虞 心 合 三 全清

手：流 上 有 書 開 三 全清

袖：流 去 宥 邪 開 三 全濁

⑥ 署：樹

署：遇 去 御 禪 開 三 全濁

樹：遇 去 遇 禪 合 三 全濁

⑦ 升：城，聖

升：曾 平 蒸 書 開 三 全清

城：梗 平 清 禪 開 三 全濁

聖：梗 去 勁 書 開 三 全清

⑧ 沈：心，深，新，臣，身，信，辰，申

沈：深 上 沁 書 開 三 全清
心：深 平 侵 心 開 三 全清
深：深 平 侵 書 開 三 全清
新：臻 平 眞 心 開 三 全清
臣：臻 平 眞 禪 開 三 全濁
身：臻 平 眞 書 開 三 全清
信：臻 去 震 心 開 三 全清
辰：臻 平 眞 禪 開 三 全濁
申：臻 平 眞 書 開 三 全清

⑨ 純：巽

純：臻 平 諄 禪 合 三 全濁
巽：臻 去 慁 心 合 一 全清

⑩ 世：十，獅，寺，市，士

世：蟹 去 祭 書 開 三 全清
十：深 入 緝 禪 開 三 全濁
獅：止 平 脂 生 開 三 全清
寺：止 去 志 邪 開 三 全濁
市：止 上 止 禪 開 三 全濁
士：止 上 止 崇 開 三 全濁

⑪ 閃：仙，扇，線

閃：咸 上 琰 書 開 三 全清
仙：山 平 仙 心 開 三 全清
扇：山 去 線 書 開 三 全清

線：山 去 線 心 開 三 全清

⑫ 述：粟，豎，戌

述：臻 入 術 船 合 三 全濁

粟：通 入 燭 心 合 三 全清

豎：遇 上 麌 禪 合 三 全濁

戌：遇 去 遇 書 合 三 全清

⑬ 省：星，爭，笙，生

省：梗 上 梗 生 開 二 全清

星：梗 平 青 心 開 四 全清

爭：梗 平 耕 莊 開 二 全清

笙：梗 平 庚 生 開 二 全清

生：梗 平 庚 生 開 二 全清

⑭ 爽：霜，雙

爽：宕 上 養 生 開 三 全清

霜：宕 平 陽 生 開 三 全清

雙：江 平 江 生 開 二 全清

⑮ 數：漱

數：遇 去 遇 生 合 三 全清

漱：流 去 有 生 開 三 全清

⑯ 洒：紗

洒：蟹 去 卦 生 開 二 全清

紗：假 平 麻 生 開 二 全清

⑰ 傘：山，三，衫，珊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

山：山 平 山 生 開 二 全清

三：咸 平 談 心 開 一 全清

衫：咸 平 銜 生 開 二 全清

珊：山 平 寒 心 開 一 全清

⑱ 散：傘

散：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

⑲ 送：松

送：通 去 送 心 合 一 全清

松：通 平 鍾 邪 合 三 全濁

⑳ 色：四，事，習，賜，巳

色：曾 入 職 生 開 三 全清

四：止 去 至 心 開 三 全清

事：止 去 志 崇 開 三 全濁

習：深 入 緝 邪 開 三 全濁

賜：止 去 寘 心 開 三 全清

巳：止 上 止 邪 開 三 全濁

㉑ 思：匙，辭，賜，齒，詩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

匙：止 平 支 禪 開 三 全濁

辭：止 平 之 邪 開 三 全濁
 賜：止 去 寘 心 開 三 全清
 齒：止 上 止 昌 開 三 次清
 詩：止 平 之 書 開 三 全清

② 所：唸，瘦，梳，嗽

所：遇 上 語 生 開 三 全清
 唸：果 上 果 心 合 一 全清
 瘦：流 去 宥 生 開 三 全清
 梳：遇 平 魚 生 開 三 全清
 嗽：流 去 候 心 開 一 全清

위의 글자들을 보면, ① ② ⑤ ⑦ ⑧ ⑩ ⑪의 3段字는 모두 書母字이고, ③ ④ ⑥의 3段字는 모두 禪母 仄聲字이다.

②와 ③ 중의 1段字 중에는, 모두 ‘石(梗, 入, 昔, 禪, 開, 三, 全濁)’가 있는데, 3段字인 譯語는 書母字와 禪母字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中古 이후에 禪母의 仄聲字는 書母字와 併合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⑨의 ‘純(臻, 平, 諄, 禪, 合, 三, 全濁)’은 예외적으로 禪母의 平聲字이다.

⑬ ⑭ ⑮ ⑯ ⑳ ㉑의 3段字는 모두 生母字인데,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를 보면, 深攝과 梗·曾·通攝의 入聲字 중 生母字는 現代普通話에서는 /s-/로 변하고, 其他는 /ʃ-/로 변한다지만, 『朝鮮館譯語』에서는 그런 樣相이 보이지 않는다. ⑬ ⑭ ⑮ ⑯ ⑳ ㉑의 1段字는 거의 生母字이거나 心母字이므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齒頭 洪音인 /s-/로 併合되어 읽힐 가능성이 많다.

⑰ ⑱의 3段字인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과 ‘散(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은 모두 心母의 開口洪音字이고, ⑲의 ‘送(通, 去, 送, 心, 合, 一, 全清)’은 心母의 合口洪音字이다.

㉑의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는 心母의 細音字이다. 여기에서 心母의 一等字는 生母字와 互譯했지만, 三等字는 書·昌母字 등과 互譯했기 때문에,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心母의 洪音字는 /s-/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細音字는 擦音인 /ʃ-/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㉑에서 1段字에 나열된 ‘齒(止 上 止 昌 開 三 次清)’는 昌母字로 現代普通話에서는 塞擦音으로 읽히는데, 現代普通話에서 擦音으로 읽히는 ‘辭(止 平 之 邪 開 三 全濁)’, ‘賜(止 去 寘 心 開 三 全清)’ 등과 섞이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朝鮮館譯語』에서는 塞擦音과 擦音이 혼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⑩과 ㉑에는 1段字에 ‘士(止, 上, 止, 崇, 開, 三, 全濁)’와 ‘事(止, 去, 志, 崇, 開, 三, 全濁)’가 있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崇母의 仄聲字로, 深攝과 梗·曾·通攝의 入聲字는 現代普通話에서는 /s-/로 변하고, 其他는 /ʃ-/로 변한다지만, 여기서는 모두 /ʃ-/로 읽힌다.

㉒에서는 ‘述(臻, 入, 術, 船, 合, 三, 全濁)’만 船母의 仄聲字이기 때문에 /ʃ-/음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塞擦音

가. 不送氣音

① 主：書，州，柱，筋，酒，珠，煮

主：遇 上 麌 章 合 三 全清
 書：遇 平 魚 書 開 三 全清
 州：流 平 尤 章 開 三 全清
 柱：遇 上 麌 澄 合 三 全濁
 筋：遇 去 御 澄 開 三 全濁
 酒：流 上 有 精 開 三 全清
 珠：遇 平 虞 章 合 三 全清
 煮：遇 上 語 章 開 三 全清

② 掌：長，墻，獐，匠，醬，丈

掌：宕 上 養 章 開 三 全清
 長：宕 平 陽 澄 開 三 全濁

墻：宕平陽從開三全濁
獐：宕平陽章開三全清
匠：宕去漾從開三全濁
醬：宕去漾精開三全清
丈：宕上養澄開三全濁

③ 整：井，晶，蒸

整：梗上靜章開三全清
井：梗上靜精開三全清
晶：梗平清精開三全清
蒸：曾平蒸章開三全清

④ 振：進

振：臻去震章開三全清
進：臻去震精開三全清

⑤ 着：從

着：宕入藥知開三全清
從：通平鍾從合三全濁

⑥ 哲：姐，節，者

哲：山入薛知開三全清
姐：假上馬精開三全清
節：山入屑精開四全清
者：假上馬章開三全清

⑦ 祖：走

祖：遇上姥精合一全清

走：流上厚精開一全清

⑧ 自：子，紫，字

自：止去至從開三全濁

子：止上止精開三全清

紫：止上紙精開三全清

字：止去志從開三全濁

⑨ 左：早，棗，草，卓，坐

左：果上哿精開一全清

早：效上皓精開一全清

棗：效上皓精開一全清

草：效上皓清開一次清

卓：江入覺知開二全清

坐：果上果從合一全濁

⑩ 雜：左

雜：咸入合從開一全濁

左：果上哿精開一全清

⑪ 爵：椒

爵：宕入藥精開三全清

椒：效平宵精開三全清

⑫ 種：鍾

種：通去用章合三全清

鍾：通 平 鍾 章 合 三 全清

⑬ 知：之

知：止 平 支 知 開 三 全清

之：止 平 之 章 開 三 全清

⑭ 纘：珍

纘：臻 上 軫 章 開 三 全清

珍：臻 平 眞 知 開 三 全清

⑮ 眞：震

眞：臻 平 眞 章 開 三 全清

震：臻 去 震 章 開 三 全清

⑯ 直：至，榛，紙，質

直：曾 入 職 澄 開 三 全濁

至：止 去 至 章 開 三 全清

榛：臻 平 臻 莊 開 二 全清

紙：止 上 紙 章 開 三 全清

質：臻 入 質 章 開 三 全清

⑰ 莊：狀

莊：宕 平 陽 莊 開 三 全清

狀：宕 去 漾 崇 開 三 全濁

⑱ 展：前，淺，泉，千，箭，賤，氈，錢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前：山 平 先 從 開 四 全 濁
 淺：山 上 獮 清 開 三 次 清
 泉：山 平 仙 從 合 三 全 濁
 千：山 平 先 清 開 四 次 清
 箭：山 去 線 精 開 三 全 清
 賤：山 去 線 從 開 三 全 濁
 氈：山 平 仙 章 開 三 全 清
 錢：山 平 仙 從 開 三 全 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3段字인 時音은 대부분 章母字를 사용했다.

⑤ ⑥ ⑬ ⑱의 ‘着(宕, 入, 藥, 知, 開, 三, 全清)’, ‘哲(山, 入, 薛, 知, 開, 三, 全清)’, ‘知(止, 平, 支, 知, 開, 三, 全清)’와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清)’ 등은 모두 知母字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知母字는 中古 이후에 章母字와 섞였다.

⑯의 ‘直(曾, 入, 職, 澄, 開, 三, 全濁)’는 澄母의 仄聲字이기 때문에,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또는 章母字와 섞였다.

⑰의 ‘莊(宕, 平, 陽, 莊, 開, 三, 全清)’은 莊母字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역시 章母字와 섞였다고 볼 수 있다.

⑦의 ‘祖(遇, 上, 姥, 精, 合, 一, 全清)’, ⑨의 ‘左(果, 上, 哿, 精, 開, 一, 全清)’ 등은 모두 精母의 洪音字이므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ts-/로 변환 가능성이 크다.

⑪의 ‘爵(宕, 入, 藥, 精, 開, 三, 全清)’은 精母의 細音字이므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tɕ-/로 변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⑪은 『朝鮮館譯語』 중에서 발견되는 단 한글자의 例字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tɕ-/음이 생겼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⑧의 ‘自(止, 去, 至, 從, 開, 三, 全濁)’는 從母의 仄聲 細音字이므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tɕ-/로 변환 가능성이 크지만, ‘自’의 聲母는 /ts-/이다.

⑩의 ‘雜(咸, 入, 合, 從, 開, 一, 全濁)’는 從母의 仄聲 洪音字이기 때문에 /ts-/로 읽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두 從母의 仄聲字이며, 1段字는 모두 精母字이기 때문에, 精母字와 從母字가 섞인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洪音字와 細音字가 구분 없

이 모두 塞擦音으로 변했으면, ⑪의 精母字도 舌面音이 아니기 때문에 /tɕ-/로 읽히지는 않는다.

나. 送氣音

① 逞：晴，青，清，精

逞：梗上靜徹開三次清
晴：梗平清從開三全濁
青：梗平青清開四次清
清：梗平清清開三次清
精：梗平清精開三全清

② 處：出，照，秋，丑

處：遇去御昌開三次清
出：臻入術昌合三次清
照：效去笑章開三全清
秋：流平尤清開三次清
丑：流上有徹開三次清

③ 蠢：春

蠢：臻上準昌合三次清
春：臻平諄昌合三次清

④ 諂：千

諂：咸上琰徹開三次清
千：山平先清開四次清

⑤ 尺：七，赤，齊

尺：梗入昔昌開三次清
七：臻入質清開三次清
赤：梗入昔昌開三次清
齊：蟹平齊從開四全濁

⑥ 斥：尺

斥：梗入昔昌開三次清
尺：梗入昔昌開三次清

⑦ 冲：銃，總，葱

冲：通平鍾昌合三次清
銃：通去送昌合三次清
總：通上董精合一全清
葱：通平東清合一一次清

⑧ 扯：妻

扯：假上馬昌開三次清
妻：蟹平齊清開四次清

⑨ 存：村，寸

存：臻平魂從合一全濁
村：臻平魂清合一一次清
寸：臻去恩清合一一次清

⑩ 叉：茶

叉：假平麻初開二次清

茶：假 平 麻 澄 開 二 全濁

⑪ 槍：倉，鎗

槍：宕 平 陽 清 開 三 次清

倉：宕 平 唐 清 開 一 次清

鎗：梗 平 庚 初 開 二 次清

⑫ 楚：醋

楚：遇 上 語 初 開 三 次清

醋：遇 去 暮 清 合 一 次清

⑬ 次：策

次：止 去 至 清 開 三 次清

策：梗 入 麥 初 開 二 次清

⑭ 采：菜

采：蟹 上 海 清 開 一 次清

菜：蟹 去 代 清 開 一 次清

⑮ 菜：綵

菜：蟹 去 代 清 開 一 次清

綵：蟹 上 海 清 開 一 次清

위의 글자들을 보면, ② ③ ⑤ ⑥ ⑦ ⑧의 3段字는 모두 昌母字이고, ① ④의 3段字인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과 ‘諂(咸, 上, 琰, 徹, 開, 三, 次清)’는 徹母字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中古이후에 徹母의 三等字는 昌母字와 섞였다.

⑨의 ‘存(臻, 平, 魂, 從, 合, 一, 全濁)’는 從母의 洪音 平聲字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ts’-/로 변환 가능성이 크다.

⑩의 ‘又(假, 平, 麻, 初, 開, 二, 次清)’와 ⑫의 ‘楚(遇, 上, 語, 初, 開, 三, 次清)’는 모두 初母字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tɕ’-/로 변환 가능성이 크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淸母字는 洪音과 細音에 따라서 /ts’-/와 /tɕ’-/로 나뉘었지만, ⑪의 ‘槍(宕, 平, 陽, 淸, 開, 三, 次清)’, ⑬의 ‘次(止, 去, 至, 淸, 開, 三, 次清)’, ⑭의 ‘采(蟹, 上, 海, 淸, 開, 一, 次清)’, ⑮의 ‘菜(蟹, 去, 代, 淸, 開, 一, 次清)’ 등은 모두 淸母의 一·三等字이지만, 洪細에 따라 나뉘지 않은 것 같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細音은 /tɕ’-/로 변해야 하는데, ① ② ④ ⑤ ⑧ ⑫ 중에 나열된 1段字 淸母字들에 대한, 3段字 譯語는 昌·撤母字 혹은 初母字이므로 모두 /ts’-/로 추정된다.

또 ⑨ ⑬ ⑭ ⑮ 중에 나열된 1段字 淸母字들에 대한 3段字 譯語는 從母字 혹은 淸母字이기 때문에 모두 /ts’-/로 추정된다.

즉 淸母字는 洪·細와 상관없이 /tɕ’-/와 /ts’-/로 분류했다. ⑪번의 ‘槍(宕, 平, 陽, 淸, 開, 三, 次清)’은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tɕ’-/여야 하는데, ‘倉(宕, 平, 唐, 淸, 開, 一, 次清)’(/ts’-/의 譯語이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tɕ’-/음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략 現代中國語에서는 舌面音(/tɕ-/ , /tɕ’-/ , /ɕ-/), 舌尖音(/ts-/ , /ts’-/ , /s-/), 卷舌音(/tɕ’-/ , /tɕ’-/ , /ɕ’-/)으로 구분되는 반면, 韓國語에서는 모두 ‘ㄷ’, ‘ㄷ’와 ‘ㄷ’ 등의 齒音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韓國語에서는 혼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규칙 없는 것은 아니다.

4) 喉·牙音의 양상

① 哈：下, 河, 夏, 黑, 鶴, 蝦, 合, 何

哈：咸 入 合 疑 開 一 次濁

下：假 去 禡 匣 開 二 全濁

河：果 平 歌 匣 開 一 全濁

夏：假 去 禡 匣 開 二 全濁
黑：曾 入 德 曉 開 一 次清
鶴：宕 入 鐸 匣 開 一 全濁
蝦：假 平 麻 匣 開 二 全濁
合：咸 入 合 匣 開 一 全濁
何：果 平 歌 匣 開 一 全濁

② 驍：曉

驍：效 平 蕭 見 開 四 全清
曉：效 上 篠 曉 開 四 次清

③ 喜：稀

喜：止 上 止 曉 開 三 次清
稀：止 平 微 曉 開 三 次清

④ 香：響

香：宕 平 陽 曉 開 三 次清
響：宕 上 養 曉 開 三 次清

⑤ 罕：旱

罕：山 上 旱 曉 開 一 次清
旱：山 上 旱 匣 開 一 全濁

⑥ 悔：回

悔：蟹 上 賄 曉 合 一 次清
回：蟹 平 灰 匣 合 一 全濁

⑦ 謊：黃

謊：宕上唐曉合一全濁

黃：宕平唐匣合一全濁

⑧ 華：化，花，靴

華：假平麻匣合二次全濁

化：假去禡曉合二次清

花：假平麻曉合二次清

靴：果平戈曉合三次清

⑨ 害：海，蟹，咳

害：蟹去泰匣開一全濁

海：蟹上海曉開一次清

蟹：蟹上蟹匣開二全濁

咳：蟹平哈匣開一全濁

⑩ 活：好，毫

活：山入末匣合一全濁

好：效上皓曉開一次清

毫：效平豪匣開一全濁

⑪ 興：兄

興：曾平蒸曉開三次清

兄：梗平庚曉合三次清

⑫ 閑：限

閑：山 平 山 匣 開 二 全濁

限：山 上 產 匣 開 二 全濁

⑬ 學：爻

學：江 入 覺 匣 開 二 全濁

爻：效 平 肴 匣 開 二 全濁

⑭ 胡：後

胡：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後：流 上 厚 匣 開 一 全濁

⑮ 昏：混

昏：臻 平 魂 曉 合 一 次清

混：臻 上 混 匣 合 一 全濁

⑯ 恨：欽

恨：臻 去 恨 匣 開 一 全濁

欽：深 平 侵 溪 開 三 次清

⑰ 虎：糊

虎：遇 上 姥 曉 合 一 次清

糊：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⑱ 火：虎，壺，后，侯，琥，瑚，糊，乎

火：果 上 果 曉 合 一 次清

虎：遇 上 姥 曉 合 一 次清

壺：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后：流 去 候 匣 開 一 全濁
侯：流 平 候 匣 開 一 全濁
琥：遇 上 姥 曉 合 一 次清
瑚：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糊：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乎：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①⑨ 亨：杏，香，興

亨：梗 平 庚 曉 開 二 次清
杏：梗 上 梗 匣 開 二 全濁
香：宕 平 陽 曉 開 三 次清
興：曾 平 蒸 曉 開 三 次清

②⑩ 哄：紅

哄：通 去 送 匣 合 一 全濁
紅：通 平 東 匣 合 一 全濁

③⑪ 洪：鴻

洪：通 平 東 匣 合 一 全濁
鴻：通 平 東 匣 合 一 全濁

④⑫ 孩：亥

孩：蟹 平 哈 匣 開 一 全濁
亥：蟹 上 海 匣 開 一 全濁

⑤⑬ 賢：縣

賢：山 平 先 匣 開 四 全濁

縣：山 去 霰 匣 合 四 全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① ②를 제외하고, 나머지 3段字의 時音은 모두 曉母字나 匣母字를 사용하였다.

匣母字는 대부분 合口一·二等字이므로 洪音이며,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x-/이고, 曉母字는 開口一·二·三等字와 合口一等字인데, 그 중에서 三等字를 제외하고 모두 洪音이다. 따라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三等字는 /ɣ-/로 변하고, 나머지는 /x-/로 변한다.

曉母字와 匣母字가 互譯하는 例 중에는 曉母三等字가 없다. 따라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匣母字와 曉母一·二等字는 中古이후에 섞였다고 할 수 있다. ③ ④ ⑪은 모두 三等 曉母字이므로 現代普通話 중에서는 /ɣ-/로 발음하고, 한국어에서는 /ㅎ/이다. 또는 위의 추정에 따라 그 시기에 /tɕ-/와 /tɕʰ-/음이 없는데 /ɣ-/음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①의 ‘哈(咸, 入, 合, 疑, 開, 一, 次濁)’은 疑母字, ②의 ‘驍(效, 平, 蕭, 見, 開, 四, 全清)’는 見母字이다. 疑母字는 中古이후에 零聲母 혹은 /n-/으로 분류되었는데, 이곳의 ‘哈’은 한국어와 普通話 중에서 모두 /x-/이다. 見母字는 中古이후에 /k-/ 혹은 /t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곳의 ‘驍’는 한국어에서 /x-/이고, 普通話 중에서는 /ɣ-/이다. 따라서 두 글자는 예외로 볼 수밖에 없다.

5) 鼻音 /n-/과 邊音 /l-/의 양상

① 赧：暖, 男, 藍, 南

赧：山 上 澇 娘 開 二 次濁

暖：山 上 緩 泥 合 一 次濁

男：咸 平 覃 泥 開 一 次濁

藍：咸 平 談 來 開 一 次濁

南：咸 平 覃 泥 開 一 次濁

② 柰：瑙, 內

柰：蟹去泰泥開一次濁
瑙：效上皓泥開一次濁
內：蟹去隊泥合一次濁

③ 那：糯，呐

那：果去箇泥開一次濁
糯：果去過泥合一次濁
呐：山入薛娘合三次濁

④ 輦：年

輦：山上獮來開三次濁
年：山平先泥開四次濁

⑤ 你：米

你：止上止娘開三次濁
米：蟹上齊明開四次濁

⑥ 屢：雷

屢：遇去遇來合三次濁
雷：蟹平灰來合一次濁

⑦ 律：六

律：臻入術來合三次濁
六：通入屋來合三次濁

⑧ 落：露，路，鹿，老，樓，臚，綠

落：宕 入 鐸 來 開 一 次濁
露：遇 去 暮 來 合 一 次濁
路：遇 去 暮 來 合 一 次濁
鹿：通 入 屋 來 合 一 次濁
老：效 上 皓 來 開 一 次濁
樓：流 平 侯 來 開 一 次濁
臚：遇 平 魚 來 開 三 次濁
綠：通 入 燭 來 合 三 次濁

⑨ 倫：論

倫：臻 平 諄 來 合 三 次濁
論：臻 平 魂 來 合 一 次濁

⑩ 刺：落，鑼，喇，羅

刺：山 入 曷 來 開 一 次濁
落：宕 入 鐸 來 開 一 次濁
鑼：果 平 歌 來 開 一 次濁
喇：山 入 曷 來 開 一 次濁
羅：果 平 歌 來 開 一 次濁

⑪ 林：鄰

林：深 平 侵 來 開 三 次濁
鄰：臻 平 眞 來 開 三 次濁

⑫ 兩：涼，梁

兩：宕 上 養 來 開 三 次濁
涼：宕 平 陽 來 開 三 次濁

梁：宕平陽來開三次濁

⑬ 良：兩

良：宕平陽來開三次濁

兩：宕上養來開三次濁

⑭ 零：領

零：梗平青來開四次濁

領：梗上靜來開三次濁

⑮ 賴：來

賴：蟹去泰來開一次濁

來：蟹平哈來開一次濁

⑯ 立：里，李，鯉，吏，禮，利

立：深入緝來開三次濁

里：止上止來開三次濁

李：止上止來開三次濁

鯉：止上止來開三次濁

吏：止去志來開三次濁

禮：蟹上齊來開四次濁

利：止去至來開三次濁

⑰ 吏：离

吏：止去志來開三次濁

离：止平支來開三次濁

⑱ 藍：濫

藍：咸 平 談 來 開 一 次濁

濫：咸 去 闕 來 開 一 次濁

⑲ 稜：冷，熊，綾

稜：曾 平 登 來 開 一 次濁

冷：梗 上 梗 來 開 二 次濁

熊：通 平 東 云 合 三 次濁

綾：曾 平 蒸 來 開 三 次濁

⑳ 龔：龍

龔：通 上 腫 來 合 三 次濁

龍：通 平 鍾 來 合 三 次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3段字 時音은 대부분 來母字를 사용했다.

①과 ③에서는 泥母字와 娘母字를 互譯하였으므로 모두 /n-/로 추정한다. 단지 ⑤만 娘母字가 明母字의 譯語로 사용된 것은 어음적인 혼동이 아니라 그 시대에 ‘米’의 방언이나 正音이 아닌 것 같다.

⑱에서 ‘熊(通, 平, 東, 云, 合, 三, 次濁)’의 譯語는 ‘稜(曾, 平, 登, 來, 開, 一, 次濁)’인 것도 같은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①에서 ‘藍(남)(咸, 平, 談, 來, 開, 一, 次濁)’의 한국어 자음은 /n-/이지만 중국어에서는 /l-/이다. 譯語는 ‘赧(山, 上, 澆, 娘, 開, 二, 次濁)’이므로 來母와 娘母가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

④에서 ‘輦(런)(山, 上, 獮, 來, 開, 三, 次濁)’의 한국어 자음은 /l-/인데, 중국어에서는 /n-/이고, 譯語는 ‘年(山, 平, 先, 泥, 開, 四, 次濁)’인 것으로 보아 來母와 泥母字가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零聲母의 양상

(1) 中古의 日母字에서 온 것

① 忍：日，人

忍：臻上軫日開三次濁

日：臻入質日開三次濁

人：臻平眞日開三次濁

② 弱：褥

弱：宕入藥日開三次濁

褥：通入燭日合三次濁

③ 入：肉

入：深入緝日開三次濁

肉：通入屋日合三次濁

④ 熱：如

熱：山入薛日開三次濁

如：遇平魚日開三次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모두 日母자들인데, 現代普通話에서는 모두 零聲母이다. 그러나 『訓民正音』과 『東國正韻』 시기에 日母字는 ‘ㄷ’로 표기했기 때문에 /ʌ-/라고 할 수 있다.

(2) 中古의 疑·影·喻(云·以)母字에서 온 것

① 臥：月，五，我，午，玉

臥：果 去 過 疑 合 一 次濁
月：山 入 月 疑 合 三 次濁
五：遇 上 姥 疑 合 一 次濁
我：果 上 哥 疑 開 一 次濁
午：遇 上 姥 疑 合 一 次濁
玉：通 入 燭 疑 合 三 次濁

② 我：烏，鵝，魚，襖

我：果 上 哥 疑 開 一 次濁
烏：遇 平 模 影 合 一 全清
鵝：果 平 歌 疑 開 一 次濁
魚：遇 平 魚 疑 開 三 次濁
襖：效 上 皓 影 開 一 全清

③ 穩：雲

穩：臻 上 混 影 合 一 全清
雲：臻 平 文 云 合 三 次濁

④ 引：陰，鷹，吟，銀，印，寅

引：臻 上 軫 以 開 三 次濁
陰：深 平 侵 影 開 三 全清
鷹：曾 平 蒸 影 開 三 全清
吟：深 平 侵 疑 開 三 次濁
銀：臻 平 眞 疑 開 三 次濁

印：臻 去 震 影 開 三 全 清
寅：止 平 脂 以 開 三 次 濁

⑤ 隱：恩

隱：臻 上 隱 影 開 三 全 清
恩：臻 平 痕 影 開 一 全 清

⑥ 完：晚，圓，園，遠，碗

完：山 平 桓 匣 合 一 全 濁
晚：山 上 阮 微 合 三 次 濁
圓：山 平 仙 云 合 三 次 濁
園：山 平 桓 疑 合 一 次 濁
遠：山 上 阮 云 合 三 次 濁
碗：山 上 緩 影 合 一 全 清

⑦ 輿：有，入，油，酉

輿：遇 平 魚 以 開 三 次 濁
有：流 上 有 云 開 三 次 濁
入：深 入 緝 日 開 三 次 濁
油：流 平 尤 以 開 三 次 濁
酉：流 上 有 以 開 三 次 濁

⑧ 歪：外

歪：蟹 平 佳 曉 合 二 次 清
外：蟹 去 泰 疑 合 一 次 濁

⑨ 按：岩，押，宴，眼，鞍

按：山 去 翰 影 開 一 全清
巖：咸 平 銜 疑 開 二 次濁
押：咸 入 狎 影 開 二 全清
宴：山 上 銑 影 開 四 全清
眼：山 上 產 疑 開 二 次濁
鞍：山 平 寒 影 開 一 全清

⑩ 義：一

義：止 去 寘 疑 開 三 次濁
一：臻 入 質 影 開 三 全清

⑪ 移：一，二

移：止 平 支 以 開 三 次濁
一：臻 入 質 影 開 三 全清
二：止 去 至 日 開 三 次濁

⑫ 以：兒，椅，夷，耳，衣

以：止 上 止 以 開 三 次濁
兒：止 平 支 日 開 三 次濁
椅：止 上 紙 影 開 三 全清
夷：止 平 脂 以 開 三 次濁

⑬ 額：医，語，御

額：梗 入 陌 疑 開 二 次濁
医：蟹 去 霽 影 開 四 全清
語：遇 上 語 疑 開 三 次濁
御：遇 去 御 疑 開 三 次濁

⑭ 仰：陽，羊

仰：宕上 養 疑 開 三 次濁
陽：宕平 陽 以 開 三 次濁
羊：宕平 陽 以 開 三 次濁

⑮ 耶：熱，夜，譚，也

耶：假平 麻 以 開 三 次濁
熱：山入 薛 日 開 三 次濁
夜：假去 禡 以 開 三 次濁
譚：梗入 昔 以 開 三 次濁
也：假上 馬 以 開 三 次濁

⑯ 約：腰

約：宕入 藥 影 開 三 全清
腰：效平 宵 影 開 三 全清

⑰ 亞：鴨，鴉，衙

亞：假去 禡 影 開 二 全清
鴨：咸入 狎 影 開 二 全清
鴉：假平 麻 影 開 二 全清
衙：假平 麻 疑 開 二 次濁

⑱ 揜：硯，筵，鹽

揜：咸上 琰 影 開 三 全清
硯：山去 霰 疑 開 四 次濁
筵：山平 仙 以 開 三 次濁
鹽：咸平 鹽 以 開 三 次濁

⑬ 雄：凶

雄：通平東云合三次濁

凶：通平鍾曉合三次清

위의 글자들을 보면, 疑·影·云·以母字들이다. 그중에 云母字와 以母字 들은 中古 이후에 모두 零聲母로 변화하였다.

① ③ ⑥에서 1段에 배열된 ‘月(山入月疑合三次濁)’, ‘雲(臻平文云合三次濁)’, ‘圓(山平仙云合三次濁)’, ‘遠(山上阮云合三次濁)’ 등의 글자들은 모두 合口三等字이므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Ø(y)-/로 변해울 것이다. 그러나 3段字는 ‘臥(果去過疑合一次濁)’, ‘穩(臻上混影合一全清)’, ‘完(山平桓匣合一全濁)’ 등은 모두 /Ø(u)-/이므로, 아마 그 시대에는 /Ø(y)-/가 없었을 것이다.

疑母는 細音 開口 三等은 /n-/ 혹은 /Ø(i)-/로 나뉘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零聲母로 변했다, 예들 중에 ⑩, ⑭번은 開口 三等인데 한국어와 普通話중에 모두 零聲母이다.

影母字들은 모두 仄聲이며, 合口一等과 開口一·三等字들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를 보면 影母字 또한 中古이후 모두 零聲母로 변했다.

⑥의 ‘完(山, 平, 桓, 匣, 合, 一, 全濁)’은 앞에서 이미 서술했지만 /x-/와 /ç-/로 나뉘었는데 零聲母로 변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밖에 없다.

⑬의 ‘凶(通, 平, 鍾, 曉, 合, 三, 次清)’도 또한 零聲母字와 혼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3) 中古의 微母字에서 온 것

① 五：雨，霧，牛

五：遇上姥疑合一一次濁

雨：遇上麌云合三次濁

霧：遇去遇微合三次濁

牛：流 平 尤 疑 開 三 次濁

② 無：右

無：遇 平 虞 微 合 三 次濁

右：流 去 有 云 開 三 次濁

③ 蛙：瓦，鞮

蛙：蟹 平 佳 影 合 二 全清

瓦：假 上 馬 疑 合 二 次濁

鞮：山 入 月 微 合 三 次濁

위의 글자들을 보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疑母字와 影母字는 물론이고, 微母(合口, 三等, 次濁)字도 中古이후에 零聲母로 변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聲母의 양상을 정리하여 표를 제시한다.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全濁	
			平	仄			平	仄
重脣	幫「p」	滂「p'」	並「p', 「p」		明「m」			
輕脣					微「m」			
舌頭	端「t」	透「t'」	定「t', 「t」		泥(娘)「n」			
舌上	知「tʃ」	徹「tʃ'」	澄	「tʃ」	來「l」			
齒頭	洪 音 細 音	精「ts」	清「ts'」	從「ts'」	「ts」	心「s」	邪「s」	
正齒	莊 系 章 系	莊 「tʃ」	初 「tʃ'」	崇	「tʃ」	生 「ʃ」	禪「ʃ」	
				船	「ʃ」			
牙	見「k」	溪「k'」	羣「k」		疑「ø」	曉「x」	匣「x」	
喉	影「ø」				云,以「ø」			

注: ① 塞擦音과 擦音은 /tʃ-/ , /tʃ'-/ , /ʃ-/를 대신 近代音인 /tʃ-/ , /tʃ'-/ , /ʃ-/로 표기했다.

② 例字의 한계가 있다. 澄, 崇, 船母字는 平聲이 없기 때문에 표기 못 했다.

③ 溪母字와 羣母字도 例字가 많지 않기 때문에 羣母字 /k'-/로 변환 음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④ 精, 淸, 從母에서 분리된 舌面音 /tɕ-/ , /tɕ'-/ , /ɕ-/가 없다.

2. 『朝鮮館譯語』의 韻母 분석

1) 『朝鮮館譯語』 중의 入聲字

入聲字는 음운학에서는 운모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한다.

入聲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지만, 언어의 끊임없는 변화로 말미암아, 元代 이후에는 이미 入聲이 사라져 다른 3개의 聲調로 나누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入聲의 소실은 결코 元代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전부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代’라는 글자는 高本漢이 再構한 上古擬音은 /*dʰag/으로 濁韻尾를 가진 入聲字이었지만, 『廣韻』에서는 오히려 徒耐切로 去聲이다.

또한 淸韻尾의 入聲字는 『中原音韻』에서는 入聲이 다른 3개의 聲調에 나누어 들어갔지만, 『洪武正韻』에서는 오히려 다시 入聲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洪武正韻』이 南方 지역의 음운체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南京話의 入聲不再保持一个穩定的喉塞音韻尾, 但穩定地保持着一个人聲調類. 如果細究, 我們可以看到, 在“韻”這一方面, 南京話入聲字的韻具有其他聲調的字所沒有的特色: 在“調”這一方面, 南京話的入聲穩中有變. 入聲字的喉塞韻尾, 在以前的老南京話中, 這個喉塞音韻尾地位就已經不穩了: “(喉部關閉作用)在入聲字單念或在短句尾入聲字重念時有之, 平常入聲字不過短就是了, 並沒有喉部關閉作用.” 發展到今天, 這個喉塞韻尾趨无的傾向更加明顯. ‘短’和‘緊’可以看作喉塞音韻尾的伴隨特征.²⁸⁾

南京方言 중에는 入聲이 존재하지만, 入聲韻尾인 /-p/, /-t/, /-k/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喉塞音(성문폐쇄음) /-ʔ/으로 합쳐졌다. 喉塞音은 入聲이 약화된 것이고 불안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南京方言의 입성은 더 이상 안정된 喉塞音 韻尾를 유지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入聲의 聲調를 유지하였다. 만약 더더욱 깊게 파고들면 ‘韻’의 방면에서 南京方言 入聲字의 韻에서 다른 聲調의 글자가 가지는 특색을 볼 수 있다. ‘調’의 방면에서는 南京方言의 入聲은 안정된 상태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입성자의 喉塞音 韻尾는 이전의 南京方言에서, 喉塞音 韻尾의 위치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다. 喉塞音字가 단독으로 읽을 때나 혹은 짧은 문장의 끝의 세게 읽을 때나 喉塞音은 있지만 평소에 入聲字가 단지 짧은 음뿐이다 또한 喉部의 폐쇄작용 또한 없었다. 또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고 喉塞 韻尾는 갈수록 없어지는 경향은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短’과 ‘緊’은 喉塞音 韻尾의 수반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朝鮮館譯語』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책은 『洪武正韻』이다. 『洪武正韻』은 明太祖가 唐·宋시기의 正音이 長江이북 지역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여, 洪武 八年 (西元1375年)에 樂韶鳳, 宋濂 등 11명이 편찬한 운서이다.

『洪武正韻』은 入聲 韻尾 /-p/, /-t/, /-k/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唐·宋 시대의 音韻體系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實際音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물론 당시의 한국어 중에서도 여전히 입성이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洪武正韻』이 엄격히 구분된 것과는 달리, 『朝鮮館譯語』에서는 入聲과 非入聲의 매우 混同스럽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朝鮮館譯語』는, 그것이 편찬된 시기의 南京方言의 일종인 金陵雅音을 기준 삼았다고 보이는데, 그 金陵雅音에서 이미 입성이 많이 탈락되었거나 혼동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洪武正韻』을 참고자료에서 배제하였다.

『朝鮮館譯語』에서는 入聲과 非入聲을 混同하는 현상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도 南京方言의 入聲인 喉塞音이 짧고 긴박하게 때문에 불안정한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入聲과 非入聲의 混同 現象에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入聲 이외의 韻母부분은 상통하거나 비슷하고, 오직 入聲과 非入聲으로만 나

28) 孫華先, 「南京方言의輕聲和入聲」, 『江蘇教育學院學報』, 2001, p. 68.

누어질 뿐이다. 즉 漢字와 譯語의 韻頭와 韻腹은 기본적으로 상통하거나 비슷하며, 入聲부분의 韻尾만 다른 뿐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好人	活人
② 古	谷
③ 果	刮
④ 改旧	改谷
⑤ 何遲	哈底
⑥ 登科	歸刮
⑦ 老鸛	落管
⑧ 雪飛	捨必
⑨ 星密	省米
⑩ 日缺	忍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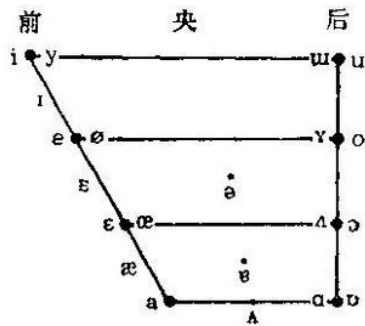
①-⑩의 예를 보면, 모두가 한 쪽의 한자는 非入聲인데, 다른 한쪽의 한자는 入聲이지만, 모두 韻頭와 韻腹이 상통하거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朝鮮館譯語』에서는 入聲의 개념이 비교적 애매하고, 심지어는 입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 중에는 확실히 /-p/, /-t/, /-k/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南京方言 중의 入聲인 喉塞音은 음이 짧고 긴박하기 때문에 譯語의 入聲 번역도 비교적 애매모호하고 헛갈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入聲과 非入聲이 혼동된다고 할 수 있지만, 譯語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韻腹 부분이 같거나 비슷하다. 예를 들면 위의 ⑧에서 ‘雪’은 ‘止, 平, 微, 非, 合, 三, 全清, 相絶切’이고, ‘捨’는 ‘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書治切’인데, 南京方言 중에서 ‘雪’은 /seʔ/이고, ‘捨’는 /ʃe/로 발음이 비슷하다. 또 ②의 ‘古’와 ‘谷’도 비록 入聲과 非入聲의 차이가 있지만, 韻腹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南京方言에서는 入聲韻尾인 /-p/, /-t/, /-k/가 이미 사라져 불안정한 ‘喉

29) 물론 『朝鮮館譯語』의 음운체계를 연구해 본 결과, 그 음운체계가 金陵雅音과 유사하므로, 『朝鮮館譯語』가 金陵雅音의 영향을 받았고, 金陵雅音의 入聲이 喉塞音으로 섞이는 것을 따라 『朝鮮館譯語』도 혼동된다고 기술되어야 하지만, 미리 『朝鮮館譯語』가 金陵雅音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기술하였다.



塞音/-ʔ/으로 轉換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朝鮮館譯語』를 번역했을 때도 入聲의 존재를 무시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陰聲韻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入聲字와 非入聲字는 혼동되었기 때문에 入聲韻을 하나의 항목으로 삼아 陰聲韻이나 陽聲韻과 분리하여 기술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그것을 참고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陰聲韻과 陽聲韻만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韻母를 기술하기 위해 먼저 元音圖를 같이 참조하겠다.

元音은 혀를 사용할 때 앞뒤의 위치에 따라 또 전·중·후의 세 가지 위치로 나누어지고, 각 위치의 전후는 非圓脣母音(展脣母音)과 圓脣母音으로 나누어진다. 즉 아래의 元音圖에서 왼쪽은 모두 前元音이고 오른쪽은 모두 后元音이며, 왼쪽 /-i/부터 /-a/까지는 모두 非圓脣母音이고, 오른쪽 /-u/부터 /-ɑ/까지는 모두 圓脣母音이다.

또 아래에서는 攝에 따라 기술하기 위하여, 먼저 中國 中古시기 16攝의 音價를 제시하며, 아울러 『朝鮮館譯語』의 韻母를 再構하기 위하여, 기준에 연구된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對照表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술하겠다.

* 中國 中古시기 16攝의 音價³⁰⁾

通攝(/-uŋ/·/-uoŋ/, *, /-juŋ/·/-juoŋ/, *)³¹⁾,

江攝(*, /-ɔŋ/, *, *),

止攝(*, *, /-je/·/-jue/·/-jě/·/-juě/·/-jei/·/-juei/·/-i/·/-jəi/·/-juəi/, *),

遇攝(/-uo/, ø, /-jo/·/-juo/, *),

30)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pp. 165-179

31) 순서대로 一·二·三·四等으로 나누었다. *는 대응한 等韻이 없는 표시이다.

蟹攝(/-ai/·/-uai/·/-Ai/·/-uAi/, /-æi/·/-uæi/·/-ei/·/-uei/·/-ai/·/-uai/, /-jæi/·/-juæi/·/-jæi/·/-juæi/·/-jei/·/-jujei/, /-iei/·/-iuei/),
 臻攝(/-ən/·/-uən/, /-(j)en/·/-en/, /-jĕn/·/-juen/·/-juĕn/·/-jən/·/-juən/, *),
 山攝(/-an/·/-uan/, /-an/·/-uan/·/-æn/·/-uæn/, /-jæn/·/-juæn/·/-jæn/·/-juæn/·/-jen/·/-juen/, /-ien/·/-iuen/),
 效攝(/-au/, /-au/, /-jæu/·/-jæu/, /-ieu/),
 果攝(/-a/·/-ua/, *, /-ja/·/-jua/, *),
 假攝(*, /-a/·/-ua/, /-ja/, *),
 宕攝(/-aŋ/·/-uaŋ/, *, /-jaŋ/·/-juaŋ/, *),
 梗攝(*, /-eŋ/·/-ueŋ/·/-æŋ/·/-uæŋ/, /-jeŋ/·/-juen/·/-jeŋ/·/-juen/, /-ien/·/-iuen/),
 曾攝(/-əŋ/·/-uəŋ/, *, /-jəŋ/, *),
 流攝(/-u/, *, /-ju/·/-jəu/, *),
 咸攝(/-Am/·/-am/, /-em/·/-am/·/-jæm(-jəm)/, /-jəm/·/-juem/, /-iem/),
 深攝(*, *, /-jem(-jĕm)/, *)

(1) 果攝字

① 果：高，駮，庫，鍋，叩，骨，誥

果：果上果見合一全清
 高：效平豪見開一全清
 駮：果去過溪合一次清
 庫：遇去暮溪合一次清
 鍋：果平戈見合一全清
 叩：流上厚溪開一次清
 骨：臻入沒見合一全清
 誥：效去號見開一全清

② 臥：月，五，我，午，玉

臥：果去過疑合一次濁

月：山入月疑合三次濁
五：遇上姥疑合一次濁
我：果上哥疑開一次濁
午：遇上姥疑合一次濁
玉：通入燭疑合三次濁

③ 我：烏，鵝，魚，襖

我：果上哥疑開一次濁
烏：遇平模影合一全清
鵝：果平歌疑開一次濁
魚：遇平魚疑開三次濁
襖：效上皓影開一全清

④ 那：糯，訥

那：果去箇泥開一次濁
糯：果去過泥合一次濁
訥：山入薛娘合三次濁

⑤ 播：報，布，袍，珀

播：果去過幫合一全清
報：效去號幫開一全清
布：遇去暮幫合一全清
袍：效平豪並開一全濁
珀：梗入陌滂開二次清

⑥ 朶：朝，桃，豆，稻，駝，刀，頭，到，度，道，條，讀

朶：果上果端合一全清
朝：效平宵知開三全清

桃：效 平 豪 定 開 一 全濁
 豆：流 去 候 定 開 一 全濁
 稻：效 上 皓 定 開 一 全濁
 駝：果 平 歌 定 開 一 全濁
 刀：效 平 豪 端 開 一 全清
 頭：流 平 侯 定 開 一 全濁
 到：效 去 號 端 開 一 全清
 度：遇 去 暮 定 合 一 全濁
 道：效 上 皓 定 開 一 全濁
 條：效 平 蕭 定 開 四 全濁
 讀：通 入 屋 定 合 一 全濁

⑦ 左：早，棗，草，卓，坐

左：果 上 哿 精 開 一 全清
 早：效 上 皓 精 開 一 全清
 棗：效 上 皓 精 開 一 全清
 草：效 上 皓 清 開 一 次清
 卓：江 入 覺 知 開 二 全清
 坐：果 上 果 從 合 一 全濁

⑧ 火：虎，壺，后，侯，琥，瑚，糊，乎

火：果 上 果 曉 合 一 次清
 虎：遇 上 姥 曉 合 一 次清
 壺：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后：流 去 候 匣 開 一 全濁
 侯：流 平 侯 匣 開 一 全濁
 琥：遇 上 姥 曉 合 一 次清
 瑚：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糊：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乎：遇 平 模 匣 合 一 全濁

3段的 果攝字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果, 臥, 火(合, 一, 見系)
我(開, 一, 見系)
那(開, 一, 端系)
朶(合, 一, 端系)
左(開, 一, 精系)
播(合, 一, 幫系)

위의 例字들을 보면, 3段的 果攝字들로, 1段的 效·流·遇攝字들을 譯音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朝鮮館譯語』에서는 중고의 果攝字들이 效·流·遇攝字 들과 섞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16攝에 따르면 3段字인 果(/-a·/-ua/, *, /-ja·/-jua/, *)攝과 1段字인 效(/-au/, /-au/, /-jæu·/-jæu/, /-iɛu/)·流(/-u/, *, /-ju·/-jəu/, *)·遇(/-uo/, *, /-jo·/-juo/, *)攝字들은 ⑥의 效攝字 ‘朝’와 ‘條³²⁾’를 제외하고 모두 一等字들이다. 따라서 果攝은 /-a·/-ua/일 것이고, 效攝은 /-au/일 것이며, 流攝은 /-u/일 것이고, 遇攝은 /-uo/일 것이다. 이 韻들의 공통점은 모두 韻腹이 後元音인 /-a/, /-u-, /-o-/ 등이므로 함께 섞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u-/와 /-o-/의 混同現象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中原音韻』의 ‘東鐘’韻 중에서 ‘東·冬’ 등의 음은 흔히 /tuŋ/으로 再構하지만, 현재는 /toŋ/으로 읽힌다.

이것은 아마도 『朝鮮館譯語』 당시 朝鮮에서는 中國中古의 /-a/는 좀 더 위에서 발음되고, /-u-/는 좀 더 아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o-/와 섞이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段字의 音價는 /-o/로 추정된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① ② ⑤ ⑥ ⑧번의 3段字는 모두 果攝 合口一等字이며, 1段字에 效·流·遇攝字들이 있기 때문에 ‘火’와 ‘朶’는 /-o/로 추정된다.

③ ⑦의 3段字는 果攝 開口一等字이며, ③과 ⑦도 1段字에 遇攝과 效攝字가 있으

32) ‘朝(開, 三, 知系)’는 知系字이지만 上古에서는 端系字와 섞인다. 이런 현상은 『朝鮮館譯語』 중에서도 ‘朝’의 譯語로 端系字인 ‘朶’를 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條’가 端系의 定母字임에도 韓國한자음의 자음은 ‘ㄷ’이다.

므로, ③ ⑦의 3段字인 ‘我’와 ‘左’도 /-o/로 추정된다.

④의 3段字인 ‘那’은 開口一等 端系字(泥母)이지만, 위의 설명에 따라 역시 /-o/로 추정된다.

(2) 假攝字

① 扯：妻

扯：假 上 馬 昌 開 三 次清

妻：蟹 平 齊 清 開 四 次清

② 怕：八

怕：假 去 禡 滂 開 二 次清

八：山 入 黠 幫 合 二 全清

③ 打：多，大，朶

打：假 上 馬 端 開 二 全清

多：果 平 歌 端 開 一 全清

大：蟹 去 泰 定 開 一 全濁

朶：果 上 果 端 合 一 全清

④ 捨：雪，斜，石，舍，說，書，謝，舌，洗，錫，寫，西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雪：山 入 薛 心 合 三 全清

斜：假 平 麻 邪 開 三 全濁

石：梗 入 昔 禪 開 三 全濁

舍：假 去 禡 書 開 三 全清

說：山 入 薛 書 合 三 全清

書：遇 平 魚 書 開 三 全清

謝：假 去 禡 邪 開 三 全濁
舌：山 入 薛 船 開 三 全濁
洗：蟹 上 齊 心 開 四 全清
錫：梗 入 錫 心 開 四 全清
寫：假 上 馬 心 開 三 全清
西：蟹 平 齊 心 開 四 全清

⑤ 叉：茶

叉：假 平 麻 初 開 二 次清
茶：假 平 麻 澄 開 二 全濁

⑥ 罵：馬，瑪

罵：假 去 禡 明 開 二 次濁
馬：假 上 馬 明 開 二 次濁
瑪：假 上 馬 明 開 二 次濁

⑦ 把：法，髮

把：假 上 馬 幫 開 二 全清
法：咸 入 乏 非 合 三 全清
髮：山 入 月 非 合 三 全清

⑧ 華：化，花，靴

華：假 平 麻 匣 合 二 全濁
化：假 去 禡 曉 合 二 次清
花：假 平 麻 曉 合 二 次清
靴：果 平 戈 曉 合 三 次清

⑨ 耶：熱，夜，譚，也

耶：假平麻以開三次濁
 熱：山入薛日開三次濁
 夜：假去禡以開三次濁
 譯：梗入昔以開三次濁
 也：假上馬以開三次濁

⑩ 亞：鴨，鴉，衙

亞：假去禡影開二全清
 鴨：咸入狎影開二全清
 鴉：假平麻影開二全清
 衙：假平麻疑開二次濁

3段의 假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怕, 罵, 把(開, 二, 幫系)
 打(開, 二, 端系)
 扯, 捨(開, 三, 章系)
 叉(開, 二, 莊系)
 華(合, 二, 見系)
 耶(開, 三, 影系)
 亞(開, 二, 影系)

3段 假攝字로 1段의 蟹(/-ai/·/-uai/·/-Ai/·/-uAi/, /-æi/·/-uæi/·/-ei/·/-uei/·/-ai/·/-uai/, /-jæi/·/-juæi/·/-jæi/·/-juæi/·/-jei/·/-juei/, /-iei/·/-iuei/)·果(/-a/·/-ua/, *, /-ja/·/-jua/, *)·遇(/-uo/, *, /-jo/·/-juo/, *)攝字들을 譯音하였다.

① ④ ⑨의 3段字인 ‘扯, 捨, 耶’는 三等字이며, 對音한 1段의 遇攝字는 三等이고, 蟹攝字는 四等이다. 위에서 제시한 16攝의 音價에 따르면 假攝字는 /-ja/이고, 遇攝字는 /-jo/·/-juo/이며, 蟹攝字는 /-iei/·/-iuei/이다. /-a/, /-ε/는 모두 前元音이며, /-o/와 /-e/의 음높이는 같다. ‘扯, 捨, 耶’의 音價는 /-je/로 추정되며, 介音 /-j-/는 /-i/와 유사하여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로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假攝字는 모두 二等字들이다. ③은 1段에 果攝과 蟹攝 一等字가 있다. 즉 假攝은 /-a/·/-ua/이고, 果攝은 /-a/·/-ua/이며, 蟹攝은 /-ai/·/-uai/·/-Ai/·/-uA i/이다.

비록 果攝과 蟹攝의 韻腹은 後元音이고 假攝은 前元音이지만, 이들은 音높이가 같다. 따라서 ⑧의 ‘華’는 /-ua/로 추정할 수 있고, ② ③ ⑤ ⑥ ⑦ ⑩의 ‘怕, 打, 罵, 把, 叉, 亞’는 /-a/로 추정할 수 있다.

(3) 遇攝字

① 主：書，州，柱，筋，酒，珠，煮

主：遇上 麌 章 合 三 全清
 書：遇平 魚 書 開 三 全清
 州：流平 尤 章 開 三 全清
 柱：遇上 麌 澄 合 三 全濁
 筋：遇去 御 澄 開 三 全濁
 酒：流上 有精 開 三 全清
 珠：遇平 虞 章 合 三 全清
 煮：遇上 語 章 開 三 全清

② 處：出，照，秋，丑

處：遇去 御 昌 開 三 次清
 出：臻入 術 昌 合 三 次清
 照：效去 笑 章 開 三 全清
 秋：流平 尤 清 開 三 次清
 丑：流上 有徹 開 三 次清

③ 屢：雷

屢：遇去 遇來 合 三 次濁
 雷：蟹平 灰來 合 一 次濁

④ 胡：後

胡：遇平模匣合一全濁

後：流上厚匣開一全濁

⑤ 暑：水，修，熟，獸，須，手，袖

暑：遇上語書開三全清

水：止上旨書合三全清

修：流平尤心開三全清

熟：通入屋禪合三全濁

獸：流去宥書開三全清

須：遇平虞心合三全清

手：流上有書開三全清

袖：流去有邪開三全濁

⑥ 署：樹

署：遇去御禪開三全濁

樹：遇去遇禪合三全濁

⑦ 祖：走

祖：遇上姥精合一全清

走：流上厚精開一全清

⑧ 補：府

補：遇上姥幫合一全清

府：遇上麌非合三全清

⑨ 虎：糊

虎：遇 上 姥 曉 合 一 次 清

糊：遇 平 模 匣 合 一 全 濁

⑩ 輿：有，入，油，酉

輿：遇 平 魚 以 開 三 次 濁

有：流 上 有 云 開 三 次 濁

入：深 入 緝 日 開 三 次 濁

油：流 平 尤 以 開 三 次 濁

酉：流 上 有 以 開 三 次 濁

⑪ 五：雨，霧，牛

五：遇 上 姥 疑 合 一 次 濁

雨：遇 上 慶 云 合 三 次 濁

霧：遇 去 遇 微 合 三 次 濁

牛：流 平 尤 疑 開 三 次 濁

⑫ 楚：醋

楚：遇 上 語 初 開 三 次 清

醋：遇 去 暮 清 合 一 次 清

⑬ 冤：土，肚，退

冤：遇 去 暮 透 合 一 次 清

土：遇 上 姥 透 合 一 次 清

肚：遇 上 姥 端 合 一 全 清

退：蟹 去 隊 透 合 一 次 清

⑭ 吐：兔

吐：遇 去 暮 透 合 一 次清

兔：遇 去 暮 透 合 一 次清

⑮ 數：漱

數：遇 去 遇 生 合 三 全清

漱：流 去 宥 生 開 三 全清

⑯ 無：右

無：遇 平 虞 微 合 三 次濁

右：流 去 宥 云 開 三 次濁

⑰ 所：噴，瘦，梳，嗽

所：遇 上 語 生 開 三 全清

噴：果 上 果 心 合 一 全清

瘦：流 去 宥 生 開 三 全清

梳：遇 平 魚 生 開 三 全清

嗽：流 去 候 心 開 一 全清

⑱ 舉：駒

舉：遇 上 語 見 開 三 全清

駒：遇 平 虞 見 合 三 全清

3段의 遇攝字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兔, 吐(合, 一, 端系)

舉(開, 三, 見系)

主(合, 三, 章系)
 祖(合, 一, 精系)
 處, 暑, 署(開, 三, 章系)
 楚, 所(開, 三, 莊系)
 數(合, 三, 莊系)
 屢(合, 三, 端系)
 補(合, 一, 幫母)
 胡, 虎, 五(合, 一, 見系)
 輿(開, 三, 影系)
 無(合, 三, 幫系)

① ② ⑤ ⑥ ⑩ ⑫ ⑮ ⑯ ⑰ ⑱ 중의 3段字 ‘主, 處, 暑, 署, 楚, 所, 輿, 數, 無, 屢’는 모두 遇(/-uo/, *, /-jo/·/-juo/, *)攝 三等字이기 때문에 /-jo/일 수도 있고 /-juo/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1段字인 流(/-u/, *, /-ju/·/-jəu/, *)攝의 글자들을 對譯하였고, 모두 三等字이기 때문에, 音價는 /-ju/·/-jəu/이다.

韻腹은 모두 後元音이며 介音까지 포함하면 /-ju/인데, 介音 /-j-/는 /-i/와 유사하므로 /-iu/로 추정할 수 있다.

④ ⑦ ⑧ ⑨ ⑪ ⑬ ⑭ 중의 ‘冤, 吐, 祖, 胡, 虎, 五, 補’는 모두 一等字이므로 /-uo/일 것이고, 1段 譯語 중에 一等 流攝字는 /-u/이다. 따라서 『朝鮮館譯語』에서는 /-u/일 가능성이 크다.

(4) 蟹攝字

① 拜 : 擺

拜 : 蟹 去 怪 幫 開 二 全 清
 擺 : 蟹 上 蟹 幫 開 二 全 清

② 擺 : 拜, 陪

擺 : 蟹 上 蟹 幫 開 二 全 清

拜：蟹 去 怪 幫 開 二 全清

陪：蟹 平 灰 並 合 一 全濁

③ 陪：轡

陪：蟹 平 灰 並 合 一 全濁

轡：止 去 至 幫 開 三 全清

④ 派：碑

派：蟹 去 卦 滂 合 二 次清

碑：止 平 支 幫 開 三 全清

⑤ 歹：太

歹：蟹 上 海 端 開 一 全清

太：蟹 去 泰 透 開 一 次清

⑥ 堆：腿，兌

堆：蟹 平 灰 端 合 一 全清

腿：蟹 上 賄 透 合 一 次清

兌：蟹 去 泰 定 合 一 全濁

⑦ 大：帶，歹，答，玳

大：蟹 去 泰 定 開 一 全濁

帶：蟹 去 泰 端 開 一 全清

歹：蟹 上 海 端 開 一 全清

答：咸 入 合 端 開 一 全清

玳：蟹 去 代 定 開 一 全濁

⑧ 底：地，低，猪，啼，知，第，遲

底：蟹上齊端開四全清
地：止去至定開三全濁
低：蟹平齊端開四全清
猪：遇平魚知開三全清
啼：蟹平齊定開四全濁
知：止平支知開三全清
第：蟹去霽定開四全濁
遲：止平脂澄開三全濁

⑨ 替：勅

替：蟹去霽透開四次清
勅：曾入職徹開三次清

⑩ 解：結，鷄，街，血

解：蟹上蟹見開二全清
結：山入屑見開四全清
鷄：蟹平齊見開四全清
街：蟹平佳見開二全清
血：山入屑曉合四次清

⑪ 計：吉

計：蟹去霽見開四全清
吉：臻入質見開三全清

⑫ 盖：改

盖：蟹去泰見開一全清

改：蟹 上 海 見 開 一 全清

⑬ 改：開

改：蟹 上 海 見 開 一 全清

開：蟹 平 哈 溪 開 一 次清

⑭ 世：十，獅，寺，市，士

世：蟹 去 祭 書 開 三 全清

十：深 入 緝 禪 開 三 全濁

獅：止 平 脂 生 開 三 全清

寺：止 去 志 邪 開 三 全濁

市：止 上 止 禪 開 三 全濁

士：止 上 止 崇 開 三 全濁

⑮ 蛙：瓦，鞮

蛙：蟹 平 佳 影 合 二 全清

瓦：假 上 馬 疑 合 二 次濁

鞮：山 入 月 微 合 三 次濁

⑯ 洒：紗

洒：蟹 去 卦 生 開 二 全清

紗：假 平 麻 生 開 二 全清

⑰ 采：菜

采：蟹 上 海 清 開 一 次清

菜：蟹 去 代 清 開 一 次清

⑱ 菜：綵

菜：蟹去代清開一次濁

綵：蟹上海清開一次濁

⑲ 柰：瑙，內

柰：蟹去泰泥開一次濁

瑙：效上皓泥開一次濁

內：蟹去隊泥合一次濁

⑳ 賴：來

賴：蟹去泰來開一次濁

來：蟹平哈來開一次濁

㉑ 米：密

米：蟹上齊明開四次濁

密：臻入質明開三次濁

㉒ 迷：眉，瑁，未

迷：蟹平齊明開四次濁

眉：止平脂明開三次濁

瑁：蟹去隊明合一次濁

未：止去未微合三次濁

㉓ 埋：妹，買，賣

埋：蟹平皆明開二次濁

妹：蟹去隊明合一次濁

買：蟹 上 蟹 明 開 二 次濁

賣：蟹 去 卦 明 合 二 次濁

㉔ 悔：回

悔：蟹 上 賄 曉 合 一 次清

回：蟹 平 灰 匣 合 一 全濁

㉕ 害：海，蟹，咳

害：蟹 去 泰 匣 開 一 全濁

海：蟹 上 海 曉 開 一 次清

蟹：蟹 上 蟹 匣 開 二 全濁

咳：蟹 平 哈 匣 開 一 全濁

㉖ 孩：亥

孩：蟹 平 哈 匣 開 一 全濁

亥：蟹 上 海 匣 開 一 全濁

㉗ 歪：外

歪：蟹 平 佳 曉 合 二 次清

外：蟹 去 泰 疑 合 一 次濁

3段의 蟹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拜, 擺, 埋(開, 二, 幫系)

陪(合, 一, 幫系)

派(合, 二, 幫系)

米, 迷(開, 四, 幫系)

歹, 大(開, 一, 端系)

堆(合, 一, 端系)
 底, 替(開, 四, 端系)
 柰, 賴(開, 一, 端系)
 計(開, 四, 見系)
 菜, 采(開, 一, 精系);
 世(開, 三, 章系)
 洒(開, 二, 莊系)
 悔(合, 一, 見系)
 歪(合, 二, 見系)
 解(開, 二, 見系)
 改, 盖, 孩, 害(開, 一, 見系)
 蛙(合, 二, 影系)

위의 3段字는 모두 蟹(/-ai/·/-uai/·/-Ai/·/-uAi/, /-æi/·/-uæi/·/-ei/·/-uei/·/-ai/·/-uai/, /-jæi/·/-juæi/·/-jæi/·/-juæi/·/-jei/·/-juei/, /-iei/·/-iuei/)攝字이고, 1段字는 蟹攝字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止攝字들인데, 止(*, *, /-je/·/-jue/·/-jě/·/-juě/·/-jei/·/-juei/·/-i/·/-jæi/·/-juæi/, *)攝字는 모두가 三等字들이다.

⑧ ⑨ ⑪ ⑳ ㉑의 3段字 ‘底, 替, 計, 米, 迷’는 모두 四等字이며, 止攝 三等字의 譯語로 쓰였다. 즉 蟹攝이나 止攝은 모두 細音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것은 /-i/로 추정할 수 있다.

① ② ⑤ ⑦ ⑫ ⑬ ⑰ ⑱ ㉒ ㉓ ㉕ ㉖ 중의 ‘拜, 擺, 埋, 柰, 賴, 菜, 采, 改, 盖, 孩, 害, 歹, 大’는 모두 一·二等字이므로 /-ai/ 혹은 /-ai/이고, 止攝 三等字의 譯語이다. 그러므로 前元音 /-ai/와 가깝다. 元音圖를 따르면 /-a/와 /-e/의 中間音은 /-ɛ/이기 때문에, 이것은 /-ei/로 추정할 수 있다.

⑮와 ⑯의 ‘蛙’와 ‘洒’는 假攝 一等字의 譯語로, /-a/와 /-ua/로 읽히며, ‘蛙’는 /-ua/이고, ‘洒’는 /-a/로 추정된다.

⑥ ㉔의 ‘堆, 悔’는 /-uAi/로 추정된다.

㉗번 ‘歪’는 /-uai/로 추정된다.

⑩번 ‘解’는 /-æi/ 음으로 추정된다.

⑭번 ‘世’는 止攝 三等字의 譯語이기 때문에 /-i/ 음으로 추정된다.

(5) 止攝字

① 喜：稀

喜：止 上 止 曉 開 三 次清

稀：止 平 微 曉 開 三 次清

② 貴：盃

貴：止 去 未 見 合 三 全清

盃：蟹 平 灰 溪 合 一 次清

③ 歸：貴

歸：止 平 微 見 合 三 全清

貴：止 去 未 見 合 三 全清

④ 思：匙，辭，賜，齒，詩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

匙：止 平 支 禪 開 三 全濁

辭：止 平 之 邪 開 三 全濁

賜：止 去 寘 心 開 三 全清

齒：止 上 止 昌 開 三 次清

詩：止 平 之 書 開 三 全清

⑤ 自：子，紫，字

自：止 去 至 從 開 三 全濁

子：止 上 止 精 開 三 全清

紫：止 上 紙 精 開 三 全清

字：止 去 志 從 開 三 全濁

⑥ 知：之

知：止 平 支 知 開 三 全清

之：止 平 之 章 開 三 全清

⑦ 次：策

次：止 去 至 清 開 三 次清

策：梗 入 麥 初 開 二 次清

⑧ 你：米

你：止 上 止 娘 開 三 次濁

米：蟹 上 齊 明 開 四 次濁

⑨ 吏：离

吏：止 去 志 來 開 三 次濁

离：止 平 支 來 開 三 次濁

⑩ 義：一

義：止 去 寘 疑 開 三 次濁

一：臻 入 質 影 開 三 全清

⑪ 移：一，二

移：止 平 支 以 開 三 次濁

一：臻 入 質 影 開 三 全清

二：止 去 至 日 開 三 次濁

⑫ 以：兒，椅，夷，耳，衣

以：止 上 止 以 開 三 次濁

兒：止 平 支 日 開 三 次濁

椅：止 上 紙 影 開 三 全清

夷：止 平 脂 以 開 三 次濁

3段의 止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貴, 歸(合, 三, 陰聲, 見系), 盃(蟹, 合, 一)의 譯語이기도 하다.

自(開, 三, 陰聲, 精系); 知(開, 三, 陰聲, 知系)

你, 离(開, 三, 陰聲, 端系), 米(蟹, 開, 四, 幫系)의 譯語이기도 하다.

喜(開, 三, 陰聲, 見系)

以, 移(開, 三, 陰聲, 影系)

위의 止(*, *, /-je/·/-jue/·/-jě/·/-juě/·/-jei/·/-uei/·/-i/·/-jəi/·/-juəi/, *)攝字 모두 三等字이다.

② ③의 ‘貴, 歸’를 제외하고 모두 /-i/ 음이다. ‘貴, 歸’의 음은 /-iuei/로 추정된다.

(6) 效攝字

① 標：表

標：效 平 宵 幫 開 三 全清

表：效 上 小 幫 開 三 全清

② 苗：廟，卯

苗：效 平 宵 明 開 三 次濁

廟：效 去 笑 明 開 三 次濁

卯：效 上 巧 明 開 二 次濁

③ 曉：曉

曉：效 平 蕭 見 開 四 全清

曉：效 上 篠 曉 開 四 次清

3段의 效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標(開, 三, 陰聲, 幫系)

苗(開, 三, 陰聲, 幫系)

曉(開, 四, 陰聲, 見系)

이것들은 모두 效攝 開口三·四等字들이다.

앞의 果攝字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效攝 開口一等字는 모두 果攝과 合併되었는데, 果攝字 부분에는 效攝의 開口一等字 뿐만 아니라 效攝의 開口三·四等字도 있다. 또한 일부 效攝의 開口三等字는 遇攝字 부분에도 섞여있다. 이와 같이 『朝鮮館譯語』의 3段 時音 중에서, 中古의 效攝字는 모두 다른 攝의 글자들과 섞여 각 攝에 나뉘어 들어갔다.

3) 陽聲韻

(1) 咸攝字

① 忝：天

忝：咸 上 忝 透 開 四 次清

天：山 平 先 透 開 四 次清

② 點：田

點：咸 上 忝 端 開 四 全清

田：山 平 先 定 開 四 全濁

③ 藍：濫

藍：咸 平 談 來 開 一 次濁

濫：咸 去 闕 來 開 一 次濁

④ 膽：短, 旦, 嘆, 段, 單

膽：咸 上 敢 端 開 一 全清

短：山 上 緩 端 合 一 全清

旦：山 去 翰 端 開 一 全清

嘆：山 去 翰 透 開 一 次清

段：山 去 換 定 合 一 全濁

單：山 平 寒 端 開 一 全清

⑤ 諂：千

諂：咸 上 琰 徹 開 三 次清

千：山 平 先 清 開 四 次清

⑥ 閃：仙, 扇, 線

閃：咸 上 琰 書 開 三 全清

仙：山 平 仙 心 開 三 全清

扇：山 去 線 書 開 三 全清

線：山 去 線 心 開 三 全清

⑦ 揜：硯, 筵, 鹽

揜：咸 上 琰 影 開 三 全清
 硯：山 去 霰 疑 開 四 次濁
 筵：山 平 仙 以 開 三 次濁
 鹽：咸 平 鹽 以 開 三 次濁

⑧ 敢：乾, 勘

敢：咸 上 敢 見 開 一 全清
 乾：山 平 仙 羣 開 三 全濁
 勘：咸 去 勘 溪 開 一 次清

⑨ 堪：坎

堪：咸 平 覃 溪 開 一 次清
 坎：咸 上 感 溪 開 一 次清

3段의 咸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忝, 點(開, 四, 陽聲, 端系)는 天, 田(山, 開, 四)의 譯語이기도 하다.
 膽(開, 一, 陽聲, 端系)는 短, 旦(山, 開/合, 一)등의 譯語이기도 하다.
 敢, 堪(開, 一, 陽聲, 見系)
 諂(開, 三, 陽聲, 知系)
 閃(開, 三, 陽聲, 章系)
 揜(開, 三, 陽聲, 影系)

3段의 咸(/-Am/·/-am/, /-em/·/-am/·/-jæm(-jɛm)/, /-jɛm/·/-juɛm/, /-iɛm/)攝字로 1段의 山(/-an/·/-uan/, /-an/·/-uan/·/-æn/·/-uæn/, /-jæn/·/-juæn/·/-jæn/·/-juæn/·/-jɛn/·/-juɛn/, /-iɛn/·/-iuɛn/)攝字를 譯音하는 것으로 보아, 『朝鮮館譯語』중에서는 /-m/이 /-n/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중에서 尾音 /-m/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굳이 /-n/을 사용한 것은 그 시기의 漢字音에서는 尾音 /-m/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글자에서 一等字인 ‘膽, 敢, 堪’은 /-an/으로 추정되고, 四等字인 ‘忝, 點’은 /-ien/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ien/으로 추정된다.

(2) 山攝字

① 赧 : 暖, 男, 藍, 南

赧 : 山 上 漕 娘 開 二 次濁

暖 : 山 上 緩 泥 合 一 次濁

男 : 咸 平 覃 泥 開 一 次濁

藍 : 咸 平 談 來 開 一 次濁

南 : 咸 平 覃 泥 開 一 次濁

② 卷 : 絹

卷 : 山 上 獮 見 合 三 全清

絹 : 山 去 線 見 合 三 全清

③ 管 : 犬, 寬, 鸛, 官

管 : 山 上 緩 見 合 一 全清

犬 : 山 上 銑 溪 合 四 次清

寬 : 山 平 桓 溪 合 一 次清

鸛 : 山 去 換 見 合 一 全清

官 : 山 平 桓 見 合 一 全清

④ 輦 : 年

輦 : 山 上 獮 來 開 三 次濁

年 : 山 平 先 泥 開 四 次濁

⑤ 罕：旱

罕：山 上 旱 曉 開 一 次 清

旱：山 上 旱 匣 開 一 全 濁

⑥ 免：面

免：山 上 彌 明 開 三 次 濁

面：山 去 線 明 開 三 次 濁

⑦ 蠻：萬

蠻：山 平 刪 明 合 二 次 濁

萬：山 去 願 微 合 三 次 濁

⑧ 官：館

官：山 平 桓 見 合 一 全 清

館：山 去 換 見 合 一 全 清

⑨ 半：飯

半：山 去 換 幫 合 一 全 清

飯：山 去 願 奉 合 三 全 濁

⑩ 間：見

間：山 平 山 見 開 二 全 清

見：山 去 霰 見 開 四 全 清

⑪ 散：傘

散：山 上 旱 心 開 一 全 清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 清

⑫ 賢：縣

賢：山 平 先 匣 開 四 全 濁

縣：山 去 霰 匣 合 四 全 濁

⑬ 按：岩，押，宴，眼，鞍

按：山 去 翰 影 開 一 全 清

巖：咸 平 銜 疑 開 二 次 濁

押：咸 入 狎 影 開 二 全 清

宴：山 上 銑 影 開 四 全 清

眼：山 上 產 疑 開 二 次 濁

鞍：山 平 寒 影 開 一 全 清

⑭ 展：前，淺，泉，千，箭，賤，氈，錢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前：山 平 先 從 開 四 全 濁

淺：山 上 獮 清 開 三 次 清

泉：山 平 仙 從 合 三 全 濁

千：山 平 先 清 開 四 次 清

箭：山 去 線 精 開 三 全 清

賤：山 去 線 從 開 三 全 濁

氈：山 平 仙 章 開 三 全 清

錢：山 平 仙 從 開 三 全 濁

⑮ 傘：山，三，衫，珊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 清

山：山 平 山 生 開 二 全清
三：咸 平 談 心 開 一 全清
衫：咸 平 銜 生 開 二 全清
珊：山 平 寒 心 開 一 全清

⑩ 顛：殿, 典

顛：山 去 霰 透 開 四 次清
殿：山 去 霰 端 開 四 全清
典：山 上 銑 端 開 四 全清

⑪ 扁：邊

扁：山 上 銑 幫 開 四 全清
邊：山 平 先 幫 開 四 全清

⑫ 完：晚, 圓, 園, 遠, 碗

完：山 平 桓 匣 合 一 全濁
晚：山 上 阮 微 合 三 次濁
圓：山 平 仙 云 合 三 次濁
園：山 平 桓 疑 合 一 次濁
遠：山 上 阮 云 合 三 次濁
碗：山 上 緩 影 合 一 全清

3段의 山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扁(開, 四, 陽聲, 幫系)
顛(開, 四, 陽聲, 端系)
卷(合, 三, 陽聲, 見系)
官, 管(合, 一, 陽聲, 見系)
間(開, 二, 陽聲, 見系)

展(開, 三, 陽聲, 知系)
 傘, 散(開, 一, 陽聲, 精系)
 赧(開, 二, 陽聲, 端系)
 蠻(合, 二, 陽聲, 幫系)
 半(合, 一, 陽聲, 幫系)
 罕(開, 一, 陽聲, 見系)
 賢(開, 四, 陽聲, 見系)
 按(開, 一, 陽聲, 影系)

이곳에서는 咸(/-Am/·/-am/, /-em/·/-am/·/-jæm(-jəm)/, /-jəm/·/-juem/, /-iem/)攝字와 山(/-an/·/-uan/, /-an/·/-uan/·/-æn/·/-uæn/, /-jæn/·/-juæn/·/-jæn/·/-juæn/·/-jen/·/-juen/, /-ien/·/-iuen/)攝字가 섞이고 있다. 두攝의 글자들이混用하는 것으로 보아, 咸攝字의 /-m/이 /-n/化된 후에 음이 비슷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글자들은 一·二等字인 ‘半, 赧, 蠻, 罕, 按, 傘, 散’은 /-an/이고, 三·四等字인 ‘扁, 顛, 賢’은 /-ien/으로 추정된다.

③과 ⑧의 ‘官, 管’는 /-uan/로 추정하고, ②의 ‘卷’은 /-iuen/으로 추정한다.

⑩의 ‘間’은 ‘見’(四等字)의 譯語이므로 介音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ian/으로 추정한다.

⑭의 ‘展’는 三等字이지만 山攝의 四等字를 對音한 것은 前元音 /-ien/·/-iuen/와 가깝기 때문이며, /-iæn/으로 추정한다.

(3) 宕攝字

① 賞：上, 象, 廂, 商

賞：宕上養書開三全清
 上：宕去漾禪開三全濁
 象：宕上養邪開三全濁
 廂：宕平陽心開三全清
 商：宕平陽書開三全清

② 仰：陽，羊

仰：宕上養疑開三次濁

陽：宕平陽以開三次濁

羊：宕平陽以開三次濁

③ 党：湯

党：宕上蕩端開一次清

湯：宕去宕透開一次清

④ 剛：江

剛：宕平唐見開一次清

江：江平江見開二次清

⑤ 謊：黃

謊：宕上唐曉合一全濁

黃：宕平唐匣合一全濁

⑥ 莊：狀

莊：宕平陽莊開三次清

狀：宕去漾崇開三次濁

⑦ 榜：房，方

榜：宕上蕩幫開一次清

房：宕平陽奉開三次濁

方：宕平陽非開三次清

⑧ 香：響

香：宕平陽曉開三次清

響：宕上養曉開三次清

⑨ 掌：長，牆，獐，匠，醬，丈

掌：宕上養章開三全清

長：宕平陽澄開三全濁

牆：宕平陽從開三全濁

獐：宕平陽章開三全清

匠：宕去漾從開三全濁

醬：宕去漾精開三全清

丈：宕上養澄開三全濁

⑩ 爽：霜，雙

爽：宕上養生開三全清

霜：宕平陽生開三全清

雙：江平江生開二全清

⑪ 槍：倉，鎗

槍：宕平陽清開三次清

倉：宕平唐清開一次清

鎗：梗平庚初開二次清

⑫ 兩：涼，梁

兩：宕上養來開三次濁

涼：宕平陽來開三次濁

梁：宕 平 陽 來 開 三 次濁

⑬ 良：兩

良：宕 平 陽 來 開 三 次濁

兩：宕 上 養 來 開 三 次濁

3段의 宕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党(開, 一, 陽聲, 端系)

剛(開, 一, 陽聲, 見系)는 江(江, 開, 二)의 譯語이기도 하다.

掌(開, 三, 陽聲, 知系)

莊, 爽(開, 三, 陽聲, 莊系)중에 爽는 雙(江, 開, 二)의 譯語다

槍(開, 三, 陽聲, 精系)

賞(開, 三, 陽聲, 章系)

兩(開, 三, 陽聲, 端系)

榜(開, 一, 陽聲, 幫母)

謊(合, 一, 陽聲, 見系)

香(開, 三, 陽聲, 見系)

위의 宕(/-aŋ/·/-uaŋ/, *, /-jaŋ/·/-juɑŋ/, *)攝字들 중에서, 一等字 ‘党, 剛, 榜’은 /-aŋ/으로, 三等字 ‘兩, 香, 掌, 莊, 賞, 爽’은 /-iaŋ/으로, ‘謊’은 /-iuɑŋ/으로 추정한다.³³⁾ 또 ‘槍’은 /-jaŋ/으로 읽힐 듯하지만, ‘倉(開 一 精系)’과 ‘鎗(梗 開 二 莊系)’의 譯語이므로 /-aŋ/으로 추정한다.

(4) 深攝字

① 品：平, 瓶

品：深 上 寢 滂 開 三 次清

33)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年, p. 607 참조.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瓶：梗 平 青 並 開 四 全濁

② 沈：心, 深, 新, 臣, 身, 信, 辰, 申

沈：深 上 沁 書 開 三 全清

心：深 平 侵 心 開 三 全清

深：深 平 侵 書 開 三 全清

新：臻 平 眞 心 開 三 全清

臣：臻 平 眞 禪 開 三 全濁

身：臻 平 眞 書 開 三 全清

信：臻 去 震 心 開 三 全清

辰：臻 平 眞 禪 開 三 全濁

申：臻 平 眞 書 開 三 全清

③ 林：鄰

林：深 平 侵 來 開 三 次濁

鄰：臻 平 眞 來 開 三 次濁

④ 稟：冰, 兵

稟：深 上 寢 幫 開 三 全清

冰：曾 平 蒸 幫 開 三 全清

兵：梗 平 庚 幫 開 三 全清

3段의 深攝字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稟, 品(開, 三, 陽聲, 幫系)

沈(開, 三, 陽聲, 章系)

林(開, 三, 陽聲, 端系)

위의 深(*, *, /-jem(-jǣm)/, *)攝字들은 모두 三等字이다. 이것들은 梗(*, /-eŋ/· /-uæŋ/· /-æŋ/· /-uæŋ/, /-jæŋ/· /-juæŋ/· /-jæŋ/· /-juæŋ/, /-ieŋ/· /-iuæŋ/)攝 曾(/-əŋ/· /-uəŋ/, *, /-jəŋ/, *)攝 혹은 臻(/-ən/· /-uən/, /-(j)en/· /-en/, /-jǣn/· /-juen/· /-juǣn/· /-jən/· /-juən/, *)攝字들을 譯音인데, 深攝字의 韻尾 /-m/이 /-n/이 되거나 혹은 /-ŋ/으로 변화였다.

(5) 臻攝字

① 存：村，寸

存：臻 平 魂 從 合 一 全濁
 村：臻 平 魂 清 合 一 次清
 寸：臻 去 恩 清 合 一 次清

② 隱：恩

隱：臻 上 隱 影 開 三 全清
 恩：臻 平 痕 影 開 一 全清

③ 蠡：春

蠡：臻 上 準 昌 合 三 次清
 春：臻 平 諄 昌 合 三 次清

④ 振：進

振：臻 去 震 章 開 三 全清
 進：臻 去 震 精 開 三 全清

⑤ 倫：論

倫：臻 平 諄 來 合 三 次濁

論：臻 平 魂 來 合 一 次濁

⑥ 本：盆，分

本：臻 上 混 幫 合 一 全清

盆：臻 平 魂 並 合 一 全濁

分：臻 平 文 非 合 三 全清

⑦ 噴：分

噴：臻 平 魂 滂 合 一 次清

分：臻 平 文 非 合 三 全清

⑧ 悶：門，問，物，文

悶：臻 去 悤 明 合 一 次濁

門：臻 平 魂 明 合 一 次濁

問：臻 去 問 微 合 三 次濁

物：臻 入 物 微 合 三 次濁

文：臻 平 文 微 合 三 次濁

⑨ 純：巽

純：臻 平 諄 禪 合 三 全濁

巽：臻 去 悤 心 合 一 全清

⑩ 忍：日，人

忍：臻 上 軫 日 開 三 次濁

日：臻 入 質 日 開 三 次濁

人：臻 平 眞 日 開 三 次濁

⑪ 閔：明，鳴，民，名

閔：臻上軫明開三次濁
明：梗平庚明開三次濁
民：臻平眞明開三次濁
名：梗平清明開三次濁

⑫ 引：陰，鷹，吟，銀，印，寅

引：臻上軫以開三次濁
陰：深平侵影開三全清
鷹：曾平蒸影開三全清
吟：深平侵疑開三次濁
銀：臻平眞疑開三次濁
印：臻去震影開三全清
寅：止平脂以開三次濁

⑬ 穩：雲

穩：臻上混影合一全清
雲：臻平文云合三次濁

⑭ 纈：珍

纈：臻上軫章開三全清
珍：臻平眞知開三全清

⑮ 昏：混

昏：臻平魂曉合一清
混：臻上混匣合一全濁

⑩ 恨：欽

恨：臻 去 恨 匣 開 一 全濁
欽：深 平 侵 溪 開 三 次清

⑪ 眞：震

眞：臻 平 眞 章 開 三 全清
震：臻 去 震 章 開 三 全清

⑫ 根：近，今，筋，錦，金，良，緊

根：臻 平 痕 見 開 一 全清
近：臻 上 隱 羣 開 三 全濁
今：深 平 侵 見 開 三 全清
筋：臻 平 欣 見 開 三 全清
錦：深 上 寢 見 開 三 全清
金：深 平 侵 見 開 三 全清
良：臻 去 恨 見 開 一 全清
緊：臻 上 軫 見 開 三 全清

⑬ 袞：君，軍，裙，坤

袞：臻 上 混 見 合 一 全清
君：臻 平 文 見 合 三 全清
軍：臻 平 文 見 合 三 全清
裙：臻 平 文 羣 合 三 全濁
坤：臻 平 魂 溪 合 一 次清

3段 臻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根(開, 一, 陽聲, 見系)
 袞(合, 一, 陽聲, 見系)
 振, 纘, 眞(開, 三, 陽聲, 章系)
 蠡(合, 三, 陽聲, 章系)
 存(合, 一, 陽聲, 精系)
 倫(合, 三, 陽聲, 端系)
 悶(合, 一, 陽聲, 幫系)
 閔(開, 三, 陽聲, 幫系)
 本(合, 三, 陽聲, 幫母)
 穩(合, 一, 陽聲, 影系)
 引, 隱(開, 三, 陽聲, 影系)
 忍(開, 三, 陽聲, 章系)

위의 臻(/-ən/·/-uən/, /-(j)en/·/-en/, /-jǝn/·/-juen/·/-juǝn/·/-jən/·/-juən/, *)
 攝字들은 모두 一·三等字들이다. ‘隱’은 /-iən/이고, ‘袞, 蠡, 存, 倫’은 /-uən/이며,
 ‘根, 振, 纘, 眞, 悶, 本, 忍’은 /-ən/이고, ‘穩’은 /-uən/이다. 또한 ‘閔, 引’의 1段字 중
 에는 梗攝字와 曾攝字가 있는 것으로 보아, /-n/과 /-ŋ/이 혼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6) 曾攝字

① 升：城，聖

升：曾 平 蒸 書 開 三 全清
 城：梗 平 清 禪 開 三 全濁
 聖：梗 去 勁 書 開 三 全清

② 興：兄

興：曾 平 蒸 曉 開 三 次清
 兄：梗 平 庚 曉 合 三 次清

③ 稜：冷，熊，綾

稜：曾 平 登 來 開 一 次濁

冷：梗 上 梗 來 開 二 次濁

熊：通 平 東 云 合 三 次濁

綾：曾 平 蒸 來 開 三 次濁

3段의 曾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升(開, 三, 陽聲, 章系)

稜(開, 一, 陽聲, 端系)

興(開, 三, 陽聲, 見系)

曾(/-əŋ/·/-uəŋ/, *, /-jəŋ/, *)攝字는 三等字인 ‘升, 興’은 /-iəŋ/이고, 一等字인 ‘稜’은 /-əŋ/으로 추정된다.

(7) 梗攝字

① 逞：晴，青，清，精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晴：梗 平 清 從 開 三 全濁

青：梗 平 青 清 開 四 次清

清：梗 平 清 清 開 三 次清

精：梗 平 清 精 開 三 全清

② 零：領

零：梗 平 青 來 開 四 次濁

領：梗 上 靜 來 開 三 次濁

③ 整：井，晶，蒸

整：梗上靜章開三全清
井：梗上靜精開三全清
晶：梗平清精開三全清
蒸：曾平蒸章開三全清

④ 亨：杏，香，興

亨：梗平庚曉開二次清
杏：梗上梗匣開二全濁
香：宕平陽曉開三次清
興：曾平蒸曉開三次清

⑤ 景：梗，京，經

景：梗上梗見開三全清
梗：梗平庚見開二全清
京：梗平庚見開三全清
經：梗平青見開四全清

⑥ 丁：頂，丁

丁：梗平青端開四全清
頂：梗上迥端開四全清

⑦ 頂：亭，廷，程

頂：梗上迥端開四全清
亭：梗平青定開四全濁
廷：梗平青定開四全濁
程：梗平清澄開三全濁

⑧ 并：餅

并：梗 去 勁 幫 開 三 全清

餅：梗 上 靜 幫 開 三 全清

⑨ 平：貧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貧：臻 平 眞 並 開 三 全濁

3段의 梗攝字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并, 平(開, 三, 陽聲, 幫系)

頂, 丁(開, 四, 陽聲, 端系)

景(開, 三, 陽聲, 見系)

整(開, 三, 陽聲, 章系)

逞(開, 三, 陽聲, 知系)

省(開, 二, 陽聲, 莊系)

亨(開, 二, 陽聲, 見系)

梗(*, /-eŋ/·/ -uæŋ/·/ -æŋ/·/ -uæŋ/, /-jeŋ/·/ -juæŋ/·/ -jeŋ/·/ -juæŋ/, /-ieŋ/·/ -iuæŋ/)
攝字 중에서 二等字인 ‘省, 亨’은 /-æŋ/으로 추정되고, 三等字인 ‘并, 平, 整, 逞, 丁, 景’은 모두 /-ieŋ/이며, ‘頂’은 모두 /-jeŋ/으로 추정된다.

(8) 通攝字

① 捧：風

捧：通 上 腫 敷 合 三 次清

風：通 平 東 非 合 三 全清

② 著：種

董：通上董端合一全清

種：通去用章合三全清

③ 哄：紅

哄：通去送匣合一全濁

紅：通平東匣合一全濁

④ 洪：鴻

洪：通平東匣合一全濁

鴻：通平東匣合一全濁

⑤ 送：松

送：通去送心合一全清

松：通平鍾邪合三全濁

⑥ 董：凍, 洞, 中, 種, 冬, 東, 同

董：通上董端合一全清

凍：通去送端合一全清

洞：通去送定合一全濁

中：通平東知合三全清

種：通去用章合三全清

冬：通平冬端合一全清

東：通平東端合一全清

同：通平東定合一全濁

⑦ 冲：銃, 總, 葱

冲：通平鍾昌合三次清

銃：通去送昌合三次清

總：通上董精合一全清

葱：通平東清合一清

⑧ 龔：龍

龔：通上腫來合三次濁

龍：通平鍾來合三次濁

⑨ 種：鍾

種：通去用章合三全清

鍾：通平鍾章合三全清

⑩ 桶：銅, 通

桶：通上董透合一清

銅：通平東定合一全濁

通：通平東透合一清

⑪ 拱：宮, 公, 貢, 躬, 孔

拱：通上腫見合三全清

宮：通平東見合三全清

公：通平東見合一全清

貢：通去送見合一全清

躬：通平東見合三全清

孔：通上董溪合一清

⑫ 栢：弓

栢：通上腫見合三全清

弓：通平東見合三全清

3段의 通攝字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董, 桶(合, 一, 陽聲, 端系)

拱(合 三, 陽聲, 見系)

種(合 三, 陽聲, 章系)

送(合 一, 陽聲, 精系)

龍(合 三, 陽聲, 端系)

捧(合, 三, 陽聲, 幫系)

哄, 洪(合 一, 陽聲, 見系)

雄(合 三, 陽聲, 影系)

通(/-uŋ/-uoŋ/, *, /-juŋ/-juoŋ/, *)攝字들 중에서, 一等字인 ‘董, 桶, 送, 哄, 洪’은 /-uoŋ/으로 추정되고, 3等字인 ‘拱, 種, 龍, 雄, 捧’은 /-iuoŋ/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논의한 韻母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開																		
		一等					二等					三四等								
		幫系	端系	精系	見系	影系	幫系	端系	知系	莊系	見系	影系	幫系	端系	精系	莊系	知系	章系	見系	影系
陰聲	果		那	左	我															
	假					怕	打		叉		亞							扯	耶	
	遇														楚/所			處	舉	興
	蟹		大/歹	菜	改		拜			洒	解			底	槍			世	計	
	止											米	你	自		知		喜	以	
	效											標						驍		
	流																			
陽聲	咸		膽		敢								忝			諂	閃		揜	
	山			傘	罕	按		赧		問		扁	顛			展		賢		
	宕	榜	党		剛								兩	槍	莊	掌	賞	香		

江																		
深											品	林					沈	
臻				根							閔						振	引
曾		稜		興													升	
梗				亨					省		平	頂				逞	整	景
通			送															

		合																	
		一等					二等					三四等							
		幫	端	精	見	影	幫	知	莊	見	影	幫	端	精	莊	知	章	見	影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陰聲	果	播	朶		火														
	假				華														
	遇	補	吐	祖	虎						無	屢		數		主			
	蟹	陪	堆		悔		派		歪	蛙									
	止																	貴	
	效																		
陽聲	流																		
	咸																		
	山	半			官		蠻											卷	
	宕				謊														
	江																		
	深																		
	臻	悶		存	哀	穩						本	倫				蠢		
曾																			
梗																			
通		董		哄							捧	龍				種	拱	雄	

이것을 다시 국제음표의 音價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開																	
		一等					二等					三四等							
		幫	端	精	見	影	幫	端	知	莊	見	影	幫	端	精	莊	知	章	見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陰聲	果		o	o	o														
	假					a	a		a		a						iɛ		iɛ
	遇														iu		iu	iu	iu
	蟹		ɛi	ɛi	ɛi		ɛi		a	æi			i				i	i	
	止											i	i	i		i		i	i
	效																		
陽聲	流																		
	咸		an		an									ien		ien	ien		ien
	山			an	an	an				ian		ien	ien			iæn		ien	
宕	aŋ	aŋ		aŋ								iaŋ	iaŋ	iaŋ	iaŋ	iaŋ	iaŋ	iaŋ	

江																		
深										iŋ	in					in		
臻				ən						iŋ					ən		iŋ	
曾		əŋ		iəŋ											iəŋ			
梗				æŋ					æŋ		iəŋ	iəŋ			iəŋ	iəŋ	iəŋ	
通			uoŋ															

		合																	
		一等					二等					三四等							
		幫	端	精	見	影	幫	知	莊	見	影	幫	端	精	莊	知	章	見	影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系	
陰聲	果	o	o		o														
	假				ua														
	遇	u	u	u	u						iu	iu		iu		iu			
	蟹	ɛi	uAi		uAi		ɛi			uai	ua								
	止																	iuɛi	
	效																		
	流																		
陽聲	咸																		
	山	an			uan		an											iuən	
	宕				iuəŋ														
	江																		
	深																		
	臻	ən		uən	uən	uən					ən	uən				uən			
	曾																		
梗																			
通				uoŋ							iuoŋ	iuoŋ				iuoŋ	iuoŋ	iuoŋ	

注：① 效攝字는 두 개 밖에 없다. 1단자 중에 效攝字가 많은데 대부분 果攝, 遇攝字를 譯語로 삼았다. 流攝字도 있는데 그 것도 대부분 果攝, 遇攝字를 3段 譯語로 삼았다.

② 일부분 深攝字와 臻攝字가 尾音은 /-n/이 아니라 /-ŋ/일 것이다. 예를 들면 1段字 ‘明’의 3段 譯語는 ‘閔’이고 1段字 ‘貧’의 譯語는 ‘平’이고 1段字 ‘鷹’의 譯語는 ‘引’이다. 그래서 尾音을 모두 /-ŋ/을 추정한다. 또는 南方 지역에 /-n/과 /-ŋ/을 구분 잘 못한다.

③入聲 무시해도 된다.

III. 『朝鮮館譯語』와 普通話·南京方言의 음운체계 비교

1. 현대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음운체계 비교

중국은 영토가 넓고 민족도 다양하여 방언이 많다. 이들 方言은 흔히 官話方言, 吳語, 湘語, 贛語, 客家話, 粵語, 閩語, 晉語 등과 같이 八大方言으로 나눈다.

官話方言이라함은 현대 漢民族의 共同的인 基礎方言으로 內部的 一致性이 상당히 높고, 분포지역도 漢語의 여러 方言 중에서 가장 넓고 사용인구도 많다.

官話方言은 특징에 따라 다시 東北官話, 北京官話, 冀魯官話, 膠遼官話, 中原官話, 蘭銀官話, 江淮官話와 西南官話 등과 같이 8가지로 나눈다.

‘官話’가 중국 전 지역에 통용되는 표준어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오인되었다. 明·淸 시기를 통틀어 현재의 ‘普通話’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표준어를 국가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중 매체들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明代 당시에는 중국 전 지역을 통틀어 하나의 ‘官話’를 공통어로 정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³⁴⁾.

明代에는 수도가 南京이었기 때문에 官話方言 중에서도 江淮官話은 그 사용 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하였고, 北京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도 한동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각 官話 방언들은 또 그들 사이에도 비교적 차이가 컸는데, 그 중 江淮官話는 洪巢片, 通泰片, 黃孝片 등으로 나뉘었다.

明나라 시대의 首都는 應天府 즉 현재의 南京이다. 당시 南京方言은 ‘金陵雅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金陵이란 名稱은 南京 지역의 鐘山을 春秋시대에 金陵山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秦始皇 때부터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金陵이란 남경에 대한 옛 雅稱임에는 틀림없다.

아래에서 金陵雅音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4) 김은희, 「明代 官話 音韻體系 研究 -北京官話를 中心으로-」, 박사논문, 2007年, p. 1.

“在東晉時代，漢族正統朝廷及南遷漢民帶來中原洛陽雅言，又称‘士音’，金陵本地居民的語言称为“吳音”，又称“庶音”。此后中原雅言和吳音在金陵融合。南朝梁時學者顧野王著《玉篇》整理京師金陵雅音，即為中原洛陽雅音南下后与南京吳語的結合体。”³⁵⁾

東晉 시대에 漢族의 正統 조정과 남쪽으로 옮긴 漢민족은 洛陽雅言을 가져왔는데, 또 ‘士音’이라고 한다. [반면] 金陵 현지 거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吳音’이라고 하고, 또 ‘庶音’이라고도 한다. 그 후에 中原雅言과 吳音은 金陵에서 융합되었다. 南朝 梁代 학자 顧野王은 『玉篇』을 편찬하여 京師³⁶⁾의 金陵雅音을 정리하였다. 즉 中原의 洛陽雅音은 남방 지역으로 옮긴 후에, 南京 지역의 吳語와의 結合體이다.

상기 기술을 통하여 金陵雅音이란 中原雅言과 吳音이 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南京方言은 江淮官話의 洪巢片에 속하는데, 陳章太, 李行健 등은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語音卷』³⁷⁾(하)권에서, 현지 언어를 고찰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잘 선별하여 南京語音系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南京方言은 江淮官話에 속하는데, 南京은 오래 전부터 수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流動인구가 많았으며 언어의 변화 또한 빠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인하여 南京方言 안에서, 기존에 있던 언어와 새로 만들어진 언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老派와 新派 등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

현재 거주민이 사용하는 말은 대다수가 新派에 속하며, 아주 적은 수의 노인들의 말은 老派에 속한다.

老派들이 사용한 南京方言은 明나라 시대의 ‘金陵雅音’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京方言 안에는 여전히 ‘金陵雅音’의 語音現象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기술하는 南京方言은 老派들이 사용한 南京方言을 중심으로 한다.

1)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聲母체계 비교

아래에서는 먼저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聲母체계를 제시한다.

35) 閔金良, 「我所熟悉的漢語現代化工程」, 東北師範大學傳媒學院, 5頁.

36) 京師는 수도이다. 南朝 梁代의 수도는 建康 즉 현재 南京이다.

37) 陳章太, 李行健,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語音卷』, 語文出版社, 1996年, pp. 1951-1976

참조.

南京方言聲母表

p 敗背	p' 配平	m 門木	f 符方	
t 到電	t' 太同			l 拿呂
ts 最煎	ts' 慈族		s 四線	
tʂ 債趙	tʂ' 吹春		ʂ 睡順	ʐ 人熱
tɕ 叫家	tɕ' 橋搶		ɕ 笑下	
k 貴鋼	k' 開靠		x 灰胡	
∅ 安言午韻而				

(1) /n-/과 /l-/의 혼동

普通話 중에서는 /n-/과 /l-/이 잘 구분되지만 南京方言에서는 모두 /l-/로 읽힌다.

몇 글자를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字	攝	韻目	字部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泥	蟹	泥	齊	四	次濁	ni	li
尼	止	脂	娘	三	次濁	ni	li
驢	遇	魚	來	三	次濁	ly	li
你	止	止	娘	三	次濁	ni	li
女	遇	語	娘	三	次濁	ny	li
屢	遇	遇	來	三	次濁	ly	li
膩	止	至	娘	三	次濁	ni	li
慮	遇	御	來	三	次濁	ly	li

南京方言에서는 /n-/으로 읽히는 음은 없고 모두 /l-/로 읽히지만, 清代 胡垣이 저술한 『古今中外音韻通例』에 金陵雅音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기록 보면, 아직 섞이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倪字研奚切, 儼字魚檢切, 凝字魚陵切, 牛字語求切, 虐字魚約切, 逆字宜戟切, 而金陵讀爲‘尼, 輦, 林, 留, 略, 立’.³⁸⁾

倪은 研奚切, 儼은 魚檢切, 凝은 魚陵切, 牛는 語求切, 虐은 魚約切, 逆은 宜戟切인데, 金陵에서는 ‘尼, 輦, 林, 留, 略, 立’ 등으로 읽는다.

‘倪’, ‘儼’, ‘凝’, ‘牛’, ‘虐’, ‘逆’의 反切은 모두 疑母 三等字로, 普通話에서는 ‘儼’(零聲母)字를 제외하고 모두 /n-/로 변하였다. 그러나 金陵雅音에서는 ‘尼, 輦, 林, 留, 略, 立’ 등으로 읽힌다. 즉 일부 /n-/과 /l-/이 이미 혼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지 아직 완전하게 /l-/로 변하지는 않았다.

金陵雅音을 보면 그 시기에 일부분 疑母字가 이미 /n-/와 /l-/ 두 가지로 부류됐지만 /n-/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현대 南京方言으로 변화되면서 비로소 /n-/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2) 有氣音과 無氣音의 혼동

南京方言 중에는 /p-/·/p’-/와 /t-/·/t’-/ 등과 같이 有氣音과 無氣音 간의 혼동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字	攝	韻目	字部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痺	止	至	幫	三	全清	pi	p’i
庇	止	至	幫	三	全清	pi	p’i
簿	遇	姥	並	一	全濁	pu	p’u
遍	山	線	幫	三	全清	pian	p’ē
碟	咸	帖	定	四	全濁	tie	t’e?
諜	咸	帖	定	四	全濁	tie	t’e?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를 참조하면 바른 예이다. 그러나 南京方言 중에는 無氣音으로 읽히는 글자가 없고, 또 『朝鮮館譯語』중에도 有氣音과 無氣音의 혼동되고 있지만 대부분 無氣音이었다.

38)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0.

(3) 舌尖音과 舌面音의 樣相

舌尖音도 舌尖前音과 舌尖後音의 두 가지로 나눈다.

南京方言에서는 舌尖前音과 舌面音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最’과 ‘煎’의 聲母는 모두 /ts-/이고, ‘慈’와 ‘族’의 聲母는 모두 /ts’-/이며, ‘四’와 ‘線’의 성모는 모두 /s-/이다. 또 ‘將’과 ‘搶’의 聲母는 같고, ‘殲’과 ‘千’의 聲母도 같다.

南京方言에서는 舌尖音과 舌面音이 혼동된다. 南京方言에 따르면 ‘進修’는 /tsinsiəu/로 읽고, ‘新鮮’은 /sinsian/으로 읽으며, ‘秋千’은 /ts’iuts’ian/으로 읽는다.

또 南京方言 중에는 舌尖前音과 舌尖後音도 혼동된다. 예를 들면 ‘鼠, 暑, 處, 褚’ 등은 同音이고, ‘簑, 梳’도 同音이다.

종합하면 /ts-/ , /ts’-/ , /s-/ , /tʂ-/ , /tʂ’-/ , /ʃ-/ , /tɕ-/ , /tɕ’-/ , /ɕ-/ 등이 混同되는 것이다.³⁹⁾

또한 舌尖後音 사이에서도 혼동되는데, 이런 현상은 『朝鮮館譯語』중에도 일어났지만, 이런 혼동현상에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가. /tɕ-/와 /ts-/

字	攝	韻目	字部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擠	蟹	齊	精	四	全清	tei	tsi
祭	蟹	祭	精	三	全清	tei	tsi
際	蟹	祭	精	三	全清	tei	tsi
際	蟹	祭	精	三	全清	tei	tsi
濟	蟹	齊	精	四	全清	tei	tsi
劑	蟹	齊	從	四	全濁	tei	tsi
聚	遇	遇	從	三	全濁	tey	tsi

위의 글자들은 모두 從母와 精母 三·四等字들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精母 洪音은 /ts-/로 변했고, 細音은 /tɕ-/로 변했지만, 南京方言에서는 洪細와 상관없이 모두 /ts-/로 변하였다.

39) 陳章太, 李行健,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語音卷』, 語文出版社, 1996年, pp. 1951-1976 참조.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基	止	之	見	三	全清	tei	tei
机	止	脂	見	三	全清	tei	tei
居	遇	魚	見	三	全清	tey	tei
拘	遇	虞	見	三	全清	tey	tei
胸	遇	虞	羣	三	全濁	te'y	tei
舉	遇	語	見	三	全清	tey	tei
記	止	志	見	三	全清	tei	tei
据	遇	魚	見	三	全清	tey	tei
巨	遇	語	羣	三	全濁	tey	tei
季	止	至	見	三	全清	tei	tei
技	止	紙	羣	三	全濁	tei	tei

위의 글자들은 모두 見母와 群母 三等字들이다.

위의 두 표를 정리해 보면 普通話 중의 聲母 /tɕ-/는 일부분 精母와 從母 三·四等字에서 由來하였고 일부분은 見母와 群母 三等字에서 由來하였다. 그러나 南京方言에서는 精母와 從母 三四等字들은 모두 /ts-/로 변하였다.

나. /tɕ'-/와 /ts'-/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齊	蟹	齊	從	四	全濁	te'i	ts'i
妻	蟹	齊	清	四	次清	te'i	ts'i
趨	遇	虞	清	三	次清	te'y	ts'i
徐	遇	魚	邪	三	全濁	ɕy	ts'i
砌	蟹	齊	清	四	次清	te'i	ts'i
趣	遇	虞	清	三	次清	te'y	ts'i
取	遇	麌	清	三	次清	te'y	ts'i
娶	遇	遇	清	三	次清	te'y	ts'i

위의 글자들은 '徐'만 邪母字이고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清母와 從母의 三四等字들이다. 그러나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라 清母字 細音은 普通話 중에서 /tɕ-/로 변했는데, 南京方言에서는 洪細와 상관없이 모두 /ts-/로 변하였다.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期	止	之	羣	三	全濁	tɕ'i	tɕ'i
欺	止	之	溪	三	次清	tɕ'i	tɕ'i
區	遇	虞	溪	三	次清	tɕ'y	tɕ'i
祁	止	脂	羣	三	全濁	tɕ'i	tɕ'i
企	止	紙	溪	三	次清	tɕ'i	tɕ'i
起	止	止	溪	三	次清	tɕ'i	tɕ'i
契	蟹	齊	溪	四	次清	tɕ'i	tɕ'i
弃	止	至	溪	三	次清	tɕ'i	tɕ'i
歧	止	支	羣	三	全濁	tɕ'i	tɕ'i
渠	遇	魚	羣	三	全濁	tɕ'y	tɕ'i

위의 두 표 정리해 보면, 溪母와 群母의 三等字들은 普通話와 南京方言에서 모두 /tɕ-/로 변하였고, 清母와 從母 三·四等字들은 南京方言에서 모두 /ts-/로 변하였다.

다. /ɕ-/와 /s-/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西	蟹	霽	心	四	全清	ɕi	si
須	遇	虞	心	三	全清	ɕy	si
需	遇	虞	心	三	全清	ɕy	si
犀	蟹	霽	心	四	全清	ɕi	si
洗	蟹	霽	心	四	全清	ɕi	si
細	蟹	霽	心	四	全清	ɕi	si
敘	遇	語	邪	三	全濁	ɕy	si
序	遇	語	邪	三	全濁	ɕy	si

위의 글자들은 모두 心母와 邪母의 三·四等字들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心母와 邪母의 細音은 /ɕ-/로 변했지만, 南京方言에서는 洪音과 細音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s-/로 변하였다.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希	止	微	曉	三	次清	ɕi	ɕi
溪	蟹	齊	溪	四	次清	ɕi	ɕi
嬉	止	之	曉	三	次清	ɕi	ɕi
熙	止	之	曉	三	次清	ɕi	ɕi
虛	遇	魚	曉	三	次清	ɕy	ɕi
許	遇	語	曉	三	次清	ɕy	ɕi
系	蟹	霽	匣	四	全濁	ɕi	ɕi
戲	止	寘	曉	三	次清	ɕi	ɕi
喜	止	止	曉	三	次清	ɕi	ɕi
墟	遇	魚	溪	三	次清	ɕy	ɕi

위의 글자들은 系를 제외하고 모두 溪母와 曉母 三·四等字들이다. 普通話 中の /-ɕ/는 溪·曉母 三·四等字와 心·邪母 三四等字에서 변해 온 것이지만 南京方言 中에서는 溪·曉母 三·四等字만 /ɕ-/로 변했으며, 心·邪母 三·四等字들은 모두 /s-/로 변했다. 『西儒耳目資』의 기록에 따르면, ‘下’는 ‘hia’⁴⁰⁾이다. 국제 음표로는 /xia-/이다. 그러므로 明·清代에는 舌面音 /tɕ-/ , /tɕ’-/ , /ɕ-/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생긴 것이다.

상기를 총괄하면, 南京方言 中에서 /tɕ-/ , /tɕ’-/ , /ɕ-/와 /ts-/ , /ts’-/ , /s-/은 규칙 없이 혼동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40) ‘hia’는 국제음표가 아니라 『西儒耳目資』에 정하는 음표이다.

	南京方言	普通話
精(三四等)	ts	tc
從(三四等)		
見(三四等)	tc	
群(三四等)		
清(三四等)	ts'	tc'
從(三四等)		
溪(三四等)	tc'	
群(三四等)		
心(三四等)	s	c
邪(三四等)		
曉(三四等)	c	
匣(三四等)		

『古今中外音韻通例』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照母二等‘甾，鄒，阻，仄’，金陵讀與精母相近，穿母二等‘初，差，楚，測’，金陵讀與清母相近；審母二等‘師，所，色，率’，金陵讀與心母相近”⁴¹⁾

照母 二等인 ‘甾，鄒，阻，仄’ 등은 金陵에서는 精母와 비슷하게 읽고, 穿母 二等인 ‘初，差，楚，測’ 등은 金陵에서는 清母와 비슷하게 읽으며, 審母 二等인 ‘師，所，色，率’은 金陵에서는 心母와 비슷하게 읽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二等은 三等字이다. 아마도 胡垣이 혼동하였을 것이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에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照2母, 穿2母, 審2母(莊母, 初母, 生母)字이며 正齒音이다. 그 시기에 舌面音은 존재하지 않았고, 照2母, 穿2母, 審2母와 精母, 清母, 心母가 유사했으므로, 金陵雅音에서는 正齒音이 齒頭音과 섞인 것이다. 현재에도 南京方言 중에서 齒頭音이 많으며 正齒音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41) 陳貴麟, 『韻圖与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华民国八十五年, p. 120.

2)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韻母체계 비교

아래에서는 먼저 南京方言과 普通話의 韻母체계를 제시한다.

南京方言韻母表

ɿ 字事	i 衣魚	u 書豬	
ɿ 止時			
əɻ 儿而			
a 巴茶	ia 架牙	ua 抓瓦	
ɛ 灾賣		ue 外帥	
ɔ 桃刀	io 表要		
e 爹車	ie 街野		ye 靴茄
o 坡過			
əi 杯罪		uəi 桂水	
əui 偷走	iəui 流有		
ã 藍方	iã 涼象	uã 双團	
ẽ 鮮田	iẽ 牽現		yẽ 捐宣
əŋ 門風	iŋ 冰群	uəŋ 孫問	
oŋ 冬孔	ioŋ 窮用		
ɿʔ 直十	iʔ 筆力	uʔ 木禿	
aʔ 拔殺	iaʔ 甲恰	uaʔ 刷滑	
ɛʔ 白色		ueʔ 國擴	
eʔ 迭切	ieʔ 結怯		yeʔ 絕缺
oʔ 奪惡	ioʔ 脚學		

中古音과 標準語의 韻母表도 함께 제시한다.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 (開口音)

		開															
		一等				二等				三四等							
		幫系	端系	精系	見影系	幫系	知系	莊系	見影系	幫系	端系	精系	莊系	知系	章系	見影系	
陰聲	果		uo		ɤ											ia,ie	
	假					a	ia						ie			ɤ	ie
	(遇)									y	u				y		
	蟹	ai				ai	ie,ai,ia		i						i		
	止									i,ei	i	ĩ				i	
	效	au				au	iau,au		iau				au		iau		
	流									iau,iou				iou			
陽聲	咸	an				an	ian		ian				an		ian		
	山	an				an		ian		ian				an		ian	
	宕	aŋ								iaŋ		uaŋ	aŋ	iaŋ			
	江					aŋ	uaŋ	iaŋ									
	深									in		ən		in			
	臻	uən			ən					in		ən		in			
	曾	əŋ								iŋ		əŋ		iŋ			
	梗					əŋ		əŋ,iŋ	iŋ				əŋ		iŋ		
	(通)																
入聲	咸	a	ɤ		a	ia		ie				ɤ	ie				
	山	a	ɤ		a	ia		ie				ɤ	ie				
	宕	uo,au		ɤ					ye,iau		uo,au		ye,iau				
	江					uo,au	uo	ye,iau									
	深									i		ĩ,u		i			
	臻					ɤ					i		ĩ,ɤ	ĩ	i		
	曾	ei,u	ɤ,ei						i		ɤ,ai		ĩ	i			
	梗					ai,uo	ɤ,ai	ɤ	i				ĩ		i		
(通)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 (合口音)

		合																	
		一等				二等				三四等									
		幫系	端系	精系	見系	影系	幫系	莊系	見系	影系	非系	端系	精系	莊系	知系	章系	見系	影系	
陰聲	果	uo		uo,ɤ						ye									
	假					ua													
	(遇)	u								u	y		u		y				
	蟹	ei	uei,e i	ue i	uei,ua i	uai,ua				ei	uei		uei						
	止									ei,uei	ei	uei	uai	uei					
	(效)																		
	流	ou,u, au	ou								ou,u	iou		ou		iou			
陽聲	咸									an									
	山	an	uan				uan				an,uan		yan	uan		yan			
	宕					uaŋ				aŋ,uaŋ		uaŋ							
	(江)																		
	(深)																		
	臻	ən	uən								ən,uən	uə n	yn,uə n	uən		yn			
	曾					uŋ													
	梗					uŋ				yuŋ,iŋ									
通	əŋ	uŋ								əŋ	uŋ				uŋ,yu ŋ	yu ŋ			
入聲	咸									a									
	山	uo				ua				a,ua	ye		uo		ye				
	宕					uo				u		ye							
	(江)																		
	(深)																		
	臻	u,uo			u						u	y	uai	u		y			
	曾					uo													
	梗					uo				y,i									
通	u								u	u,y	u	uo	u,ou		y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南京方言의 韻母表와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 등을 대조하여 기술한다.

(1) /-y/가 /-i/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慮	遇	御	來	三	次濁	ly	li
驢	遇	魚	來	三	次濁	ly	li
聚	遇	遇	從	三	全濁	tey	tsi
居	遇	魚	見	三	全清	tey	tei
拘	遇	虞	見	三	全清	tey	tei
胸	遇	虞	羣	三	全濁	tc'y	tei
舉	遇	語	見	三	全清	tey	tei
据	遇	魚	見	三	全清	tey	tei
巨	遇	語	羣	三	全濁	tey	tei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에 따라 遇攝 三等字는 普通話에서 /-y/로 발음되지만 南京方言에서는 모두 /-i/로 발음된다.

『古今中外音韻通例』에는 이것에 관한 기술이 있다.

‘劇’爲‘居’入聲，金陵讀基韻⁴²⁾

‘劇’은 ‘居’의 入聲인데，金陵에서는 基韻으로 읽는다.

기술한 것에 따르면，金陵雅音 중에서 遇攝字는 대부분 基韻으로 발음되며，현재 南京方言 중에서도 /-y/라는 발음은 없다.

(2) /-ai/가 /-ε/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拜	蟹	怪	幫	二	全清	pai	pe

42)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6.

買	蟹	蟹	明	二	次濁	mai	mɛ
代	蟹	代	定	一	全濁	tai	tɛ
該	蟹	哈	見	一	全清	kai	kɛ
害	蟹	泰	匣	一	全濁	xai	xɛ
再	蟹	代	精	一	全清	tsai	tɕɛ
才	蟹	哈	從	一	全濁	ts'ai	ts'ɛ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에 따르면 蟹攝 一·二等字는 /-ai/로 읽히는데 南京方言에서는 모두 /-ɛ/로 읽힌다.

(3) /-au/가 /-ɔ/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包	效	肴	幫	二	全清	pau	pɔ
刀	效	豪	端	一	全清	tau	tɔ
桃	效	豪	定	一	全濁	t'au	t'ɔ
早	效	皓	精	一	全清	tsau	tsɔ
高	效	豪	見	一	全清	kau	kɔ
袍	效	豪	並	一	全濁	p'au	p'ɔ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에 따르면 效攝 一·二等字는 /-au/로 읽히는데, 南京方言에 모두 /-ɔ/로 읽힌다.

(4) 일부 /-ie/가 /-e/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爹	假	麻	知	三	全清	tie	te
姐	假	馬	精	三	全清	tcie	tse
寫	假	馬	心	三	全清	ɕie	se
遮	假	麻	章	三	全清	tɕɿ	tɕɛ
社	假	馬	禪	三	全濁	ɕɿ	ɕɛ
惹	假	馬	日	三	次濁	ʐɿ	ʐɛ

中古音과 普通話의 韻母 對照表에 따르면 일부분의 假攝三等字는 /-ie/로 읽히는

데, 南京方言에서는 /-e/韻로 읽힌다.

(5) 일부 /-u/, /-ou/, /-au/, /-uo/, /-ɤ/가 /-o/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播	果	過	幫	一	全清	po	po
母	流	厚	明	一	次濁	mu	mo
某	流	厚	明	一	次濁	mou	mo
貿	流	候	明	一	次濁	mau	mo
朶	果	果	端	一	全清	tuo	to
河	果	歌	匣	一	全濁	xɤ	xo
我	果	哿	疑	一	次濁	uo	∅o
臥	果	過	疑	一	次濁	uo	∅o

『古今中外音韻通例』에는 다음의 기술이 있다.

上聲‘母，婦’則金陵揚州皆讀如‘虞，歌’韻，直隸則讀‘芑，樂’爲‘磨，羅’去聲，皆如金陵之讀歌韻去聲矣⁴³⁾

上聲인 ‘母，婦’는 金陵과 揚州에서 모두 ‘虞，歌’韻으로 읽고, 直隸에서는 ‘芑，樂’은 ‘磨，羅’의 去聲으로 읽으니, 모두 金陵에서 歌韻의 去聲을 읽는 것과 같다.

즉 金陵지역에서 일부분 /-u/음은 ‘虞，歌’韻으로 발음한다. 현재 南京方言 중에서 ‘母，歌’는 모두 /-o/韻이다. 直隸지역의 ‘芑，樂’은 ‘磨，羅’韻인데, 현재 南京方言에서 ‘磨，羅’는 모두 歌韻의 /-o/이다. 즉 현재 南京方言은 金陵雅音의 音を 많이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an/과 /-aŋ/이 /-ã/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山	山	山	生	二	全清	ʃan	ʃã

43)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1.

賞	宕	養	書	三	全清	ʃaŋ	ʃã
甘	咸	談	見	一	全清	kan	kã
康	宕	唐	溪	一	次清	k'aŋ	k'ã
旱	山	旱	匣	一	全濁	xan	xã
杭	宕	唐	匣	一	全濁	xaŋ	xã

(7) /-ən/과 /-in/이 /-əŋ/과 /-iŋ/으로 발음되는 樣相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本	臻	混	幫	一	全清	pən	pəŋ
噴	臻	魂	滂	一	次清	p'ən	p'əŋ
門	臻	魂	明	一	次濁	mən	məŋ
民	臻	眞	明	三	次濁	min	miŋ
林	深	侵	來	三	次濁	lin	liŋ
君	臻	文	見	三	全清	tɛyn	tɛiŋ

『古今中外音韻通例』에 다음의 기술이 있다.

金陵讀甘如岡, 金陵讀彭如盆, 金陵讀‘覃, 刪’類‘陽’, 不類‘侵’. ‘風’字, 金陵讀爲‘分’.⁴⁴⁾

金陵에서 甘은 岡처럼 읽는다. 金陵에서 彭은 盆처럼 읽는다. 金陵에서 ‘覃, 刪’은 ‘侵’과 유사하고, ‘陽’와 같지 않다. ‘風’字는 金陵에서 ‘分’처럼 읽는다.

‘覃’은 원래 侵母字인데 明代에 江淮官話 지역에서 /-m/은 /-n/으로 변하였으므로 /tan/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金陵雅音에서 /-an/은 /-aŋ/으로 읽는다. 예를 들면 ‘彭’은 /-en/이 아니라 /-eŋ/으로 읽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金陵雅音에서 /-n/은 대체로 /-ŋ/으로 읽지만, ‘風’은 예외적으로 /feŋ/이 아니라 /-fen/으로 읽기도 한다.

44)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0.

(8) 入聲韻尾 /-p/, /-t/, /-k/ 의 /-ʔ/化 현상

字	攝	韻目	字母	等第	清濁	普通話	南京方言
法	咸	乏	非	三	全清	fa	faʔ
骨	臻	沒	見	一	全清	ku	kuʔ
白	梗	陌	並	二	全濁	pai	pɛʔ
黑	曾	德	曉	一	次清	xei	xɛʔ
色	曾	職	生	三	全清	sɿ	sɛʔ
雪	山	薛	心	三	全清	ɛye	seʔ

南京方言에서는 入聲韻尾 /-p/, /-t/, /-k/가 이미 사라져, 鼻音韻尾 /-m/, /-n/, /-ŋ/ 등과 섞여 鼻化元音が 되었다.

또 普通話 중의 일부분 /-uo/, /-u/, /-ao/는 /-o/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古今中外音韻通例』에 다음의 기술이 있다.

金陵‘溫文穩問’不能直到勿字，則‘勿’字必爲‘烏’入聲……，前人有謂‘溫文穩問’無入聲者，必類金陵方音者也，‘不，術’爲‘浮，州’入聲，金陵讀爲孤韻，‘肅，淑，沃，牯，轟，燠，瀑，勛’爲‘蕭，夭，告，翻，奧，暴，冒’入聲，金陵讀爲孤韻，‘朔，籥，柝，酪，博，涸，索，鬻，驀’皆孤韻入聲，金陵讀如歌韻⁴⁵⁾，

金陵에서 ‘溫·文·穩·問’은 [입성이 아니기 때문에] 勿字를 포함하지 않다. 즉 ‘勿’字는 반드시 ‘烏’의 入聲자이다……. 古人 중에 ‘溫文穩問’은 入聲이 없다고 말하면 반드시 金陵方音을 쓰는 사람이다. ‘不，術’은 ‘浮，州’의 入聲이며，金陵에서 孤韻으로 읽는다. ‘肅，淑，沃，牯，轟，燠，瀑，勛’은 ‘蕭，夭，告，翻，奧，暴，冒’의 入聲이며，金陵에서 孤韻으로 읽는다. ‘朔，籥，柝，酪，博，涸，索，鬻，驀’은 모두 孤韻의 入聲이며，金陵에서 歌韻으로 읽는다.

상기 기술에 따르면, 金陵方音 중에 입성은 소실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입성은 이미 사라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입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약화되어 喉塞音 /-ʔ/으로 변한 것이다.

45)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6.

南京方言은 金陵雅音보다 많은 변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金陵雅音의 樣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朝鮮館譯語』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을 많다는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朝鮮館譯語』는 당시의 南京方言 즉 ‘金陵雅音’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音系를 추정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한다. 文璇奎 선생은 『『朝鮮館譯語』研究』중에서 “당시의 譯語에는 예외현상이 아주 많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참조 기준을 잘못 선정하였거나 선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옛날부터 중국은 영토가 넓어서 지역 간의 언어차이가 컸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있었다.

元代の 韻書 『中原音韻』은 이후의 江淮官話와 차이가 아주 컸다. 會同館에서 編纂된 『朝鮮館譯語』는 對外 교류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한 譯語書로서 당시의 時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朝鮮館譯語』는 통역을 위한 譯語書로서, 1段字는 漢字語이고, 2段字는 당시 한국어 時音이며, 3段字는 그 당시의 관화인 江淮官話 중의 ‘金陵雅音’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江淮官話에 속하는 ‘金陵雅音’은 北方官話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북방 언어 중에 ‘鞋子’은 南京方言 중에서 ‘孩子’라고 읽으며, 한국어에서는 ‘신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對譯 자료 중에, 마땅히 1段에 ‘鞋子’를 기록하고, 2段에 ‘신발’을 기록하며, 3段에 ‘孩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1段과 3段字의 音差가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文璇奎 선생이 연구한 『『朝鮮館譯語』研究』의 문제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段字와 3段字를 비교해서 예외가 많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朝鮮館譯語』와 南京方言을 비교해 볼 것이다.

2. 『朝鮮館譯語』와 남경방언의 음운체계 비교

1) 聲母체계 비교

아래에서는 『朝鮮館譯語』중에서 1段字 齒頭音을 正齒音이나 舌上音인 3段字로

譯音하여 혼동한 것, 그리고 舌尖前音과 舌尖後音이 혼동하는 양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齒頭音과 正齒·舌上音의 混同樣相

가. 精·從母-章·知母⁴⁶⁾

燒酒	杓主
酒：流 上 有 精 開 三 全清	
主：遇 上 慶 章 合 三 全清	

井	整
井：梗 上 靜 精 開 三 全清	
整：梗 上 靜 章 開 三 全清	

姐	哲
姐：假 上 馬 精 開 三 全清	
哲：山 入 薛 知 開 三 全清	

將軍	掌袞
將：宕 去 漾 精 開 三 全清	
掌：宕 上 養 章 開 三 全清	

匠人	掌忍
匠：宕 去 漾 從 開 三 全濁	
掌：宕 上 養 章 開 三 全清	

進	振
進：臻 去 震 精 開 三 全清	
振：臻 去 震 章 開 三 全清	

46) 精·從母-章·知母은 1段字·3段字의 聲母를 나타낸다.

賤 展
 賤：山 去 線 從 開 三 全濁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清

水晶 暑整
 晶：梗 平 清 精 開 三 全清
 整：梗 上 靜 章 開 三 全清

醬 掌
 醬：宕 去 漾 精 開 三 全清
 掌：宕 上 養 章 開 三 全清

精通 逞桶
 精：梗 平 清 精 開 三 全清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위에서 1段字는 모두 精·從母字들이다. 3段의 譯語 중에 徹母인 逞을 제외하고 모두 知·章母字들이다. 그러나 『朝鮮館譯語』에서 서로를 對譯하는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당시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할 것이다. 앞 南京方言의 舌尖音 부분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明代의 金陵雅音에서는 照母三等字가 精母字와 유사하다.

精母字와 從母字는 南京方言 중에서 모두 /ts-/로 변하였고,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대부분 /tʂ-/를 譯語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분은 /tʂ‘-/를 譯語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ts-/는 舌尖前音이고 /tʂ-/는 舌尖後音인데, 南京方言 중에서는 舌尖前音과 舌尖後音を 잘 구분하지 못한다.

나. 精·從母-昌·徹母

天晴 忝逞

晴：梗 平 清 從 開 三 全濁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靑山 逞傘
靑：梗 平 靑 清 開 四 次清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水清 暑逞
清：梗 平 清 清 開 三 次清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清泉 逞展
清：梗 平 清 清 開 三 次清
逞：梗 上 靜 徹 開 三 次清

秋 處
秋：流 平 尤 清 開 三 次清
處：遇 上 語 昌 開 三 次清

擺齊 拜尺
齊：蟹 平 齊 從 開 四 全濁
尺：梗 入 昔 昌 開 三 次清

七 尺
七：臻 入 質 清 開 三 次清
尺：梗 入 昔 昌 開 三 次清

一千 義諠
千：山 平 先 清 開 四 次清
諠：咸 上 琰 徹 開 三 次清

山前 傘展
前：山 平 先 從 開 四 全濁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河淺 哈展

淺：山 上 獮 清 開 三 次 清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清泉 逞展

泉：山 平 仙 從 合 三 全 濁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千年 展輦

千：山 平 先 清 開 四 次 清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墻 掌

墻：宕 平 陽 從 開 三 全 濁

掌：宕 上 養 章 開 三 全 清

錢 展

錢：山 平 仙 從 開 三 全 濁

展：山 上 獮 知 開 三 全 清

위에서 ‘千’의 譯語로 ‘諂’과 ‘展’을 사용하였다. 諂는 徹母字이고 展는 知母字이다. 諂과 展의 聲母가 모두 舌尖音이기 때문에 혼동하였을 것이다.

또 1段字는 清·從母字들인데, 3段의 譯語는 대부분 徹·昌母字를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知·章母字를 사용하였다. 즉 明代의 金陵雅音에서는 昌母三等字와 清母字의 音은 유사하였다.

清·從母字는 南京方言 중에서 모두 /ts’-/로 변화였고,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대부분 /tʂ’-/를 譯語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tʂ-/을 譯語로 사용하였다. /ts’-/는 舌尖前音이고 /tʂ’-/는 舌尖後音이다. 즉 南京方言 중에서는 舌尖前音과 舌尖後音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다. 邪·心母-禪·書母

象 上
象：宕 上 養 邪 開 三 全濁
上：宕 去 漾 禪 開 三 全濁

月斜 臥捨
斜：假 平 麻 邪 開 三 全濁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小風 杓風
小：效 上 小 心 開 三 全清
杓：宕 入 藥 禪 開 三 全濁

雪飛 捨必
雪：山 入 薛 心 合 三 全清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線 閃
線：山 去 線 心 開 三 全清
閃：咸 上 琰 書 開 三 全清

虎嘯 火杓
嘯：效 去 嘯 心 開 四 全清
杓：宕 入 藥 禪 開 三 全濁

仙鶴 閃哈
仙：山 平 仙 心 開 三 全清
閃：咸 上 琰 書 開 三 全清

廂房 賞榜

廂：宕 平 陽 心 開 三 全清
賞：宕 上 養 書 開 三 全清

謝恩 捨隱
謝：假 去 禡 邪 開 三 全濁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洗面 捨免
洗：蟹 上 齊 心 開 四 全清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袖 暑
袖：流 去 宥 邪 開 三 全濁
暑：遇 上 語 書 開 三 全清

錫 捨
錫：梗 入 錫 心 開 四 全清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西 捨
西：蟹 平 齊 心 開 四 全清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印信 引沈
信：臻 去 震 心 開 三 全清
沈：深 上 沁 書 開 三 全清

寫字 捨自
寫：假 上 馬 心 開 三 全清
捨：假 上 馬 書 開 三 全清

江心 剛沈
心：深 平 侵 心 開 三 全清

沈：深 上 沁 書 開 三 全 清

修路 暑落
修：流 平 尤 心 開 三 全 清
暑：遇 上 語 書 開 三 全 清

新橋 沈角
新：臻 平 眞 心 開 三 全 清
沈：深 上 沁 書 開 三 全 清

戊 述
戊：臻 入 術 心 合 三 全 清
述：臻 入 術 船 合 三 全 濁

習禮 色立
習：深 入 緝 邪 開 三 全 濁
色：曾 入 職 生 開 三 全 清

위의 1段字는 모두 心·邪母字이다. 3段의 譯語 중에서 船母인 戊와 生母인 色을 제외하고 모두 書·禪母字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對照表를 참조하면, 船母字와 禪母字는 모두 仄聲이기 때문에 中古 이후에 書母字와 併合되었다.

明代 金陵雅音에서 書母字는 心母字와 유사하다. 心母字와 邪母字는 南京方言 중 에서 모두 /s-/로 변했고,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거의 모두 /ʃ-/를 譯語로 사용하였다. 즉 南京方言 중에서는 舌尖前音인 /s-/와 舌尖後音인 /ʃ-/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

南京方言 및 『朝鮮館譯語』의 3段字와 普通話를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南京方言(舌尖)	3段時音(卷舌)	普通話(舌頭)
精母, 從母	ts	ts	tɕ
清母, 從母	ts'	ts'	tɕ'
心母, 邪母	s	s	ɕ

한국어에서도舌尖音과 卷舌音 그리고 舌頭音を 잘 구분하지 못한다.

南京方言 中の 卷舌音은 普通話보다 그 발음장소가 앞에 있기 때문에舌尖音과 卷舌音を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 수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朝鮮館譯語』中の 3段字와 南京方言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舌尖前音과 舌尖後音의 混同樣相

가. tɕ-tɕ

霧罩 五左
 罩：效 去 效 知 開 二 全清
 左：果 上 寄 精 開 一 全清

卓 左
 卓：江 入 覺 知 開 二 全清
 左：果 上 寄 精 開 一 全清

나. tɕ-ɕ

爭田 雀點
 爭：梗 平 耕 莊 開 二 全清
 雀：梗 上 梗 生 開 二 全清

다. ts-tɕʰ

總兵	冲稟
總：通上董	精合一全清
冲：通平鍾	昌合三次清

라. tɕʰ-tɕ

天長	忝掌
長：宕平陽	澄開三全濁
掌：宕上養	章開三全清

마. tɕʰ-ɕ

城	升
城：梗平清	禪開三全濁
升：曾平蒸	書開三全清

陪臣	擺沈
臣：臻平眞	禪開三全濁
沈：深上寢	書開三全清

바. tsʰ-tɕʰ

倉房	槍榜
倉：宕平唐	清開一次清
槍：宕平陽	清開三次清

사. tsʰ-tɕ

草房 左榜
草：效 上 皓 清 開 一 次清
左：果 上 哿 精 開 一 全清

아. ts' -tɕ

從人 羞忍
從：通 平 鍾 從 合 三 全濁
着：宕 入 藥 知 開 三 全清

자. ts' -s

辭 思
辭：止 平 之 邪 開 三 全濁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

欽賜 恨色
賜：止 去 寘 心 開 三 全清
色：曾 入 職 生 開 三 全清

차. tɕ' -s

齒 思
齒：止 上 止 昌 開 三 次清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

카. ㄱ-s

梳頭 所朶
梳：遇 平 魚 生 開 三 全清
所：遇 上 語 生 開 三 全清

山高 傘果
山：山 平 山 生 開 二 全清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

匙 思
匙：止 平 支 禪 開 三 全濁
思：止 平 之 心 開 三 全清

通事 桶色
事：止 去 志 崇 開 三 全濁
色：曾 入 職 生 開 三 全清

瘦 所
瘦：流 去 宥 生 開 三 全清
所：遇 上 語 生 開 三 全清

紗 洒
紗：假 平 麻 生 開 二 全清
洒：蟹 去 卦 生 開 二 全清

珊瑚 傘火
珊：山 平 寒 心 開 一 全清
傘：山 上 旱 心 開 一 全清

詩 思

詩：止平之書開三全清

思：止平之心開三全清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舌尖前音과 舌尖後音(卷舌音)은 규칙 없이 혼동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南京方言 중에서도 舌尖前音과 舌尖後音도 규칙 없이 혼동되고 있다. 예를 들면 ‘在’와 ‘寨’의 음은 모두 /tɕ/이고, ‘粗’와 ‘初’은 모두 /ts'u/이며, ‘訴’와 ‘數’은 모두 /su/이고, ‘洒’와 ‘傻’은 모두 /sa/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南京方言과 『朝鮮館譯語』이 유사하다.

聲母의 각도에서 볼 때, 現代普通話에서 ‘朝’의 聲母는 /tɕ-/이지만, 『朝鮮館譯語』중에서 ‘朶’는 /t-/로 나타나므로, 음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음운체계에서 ‘朝’의 聲母는 /t-/이고, 게다가 南方의 많은 方言 중에서도 여전히 /t-/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朝鮮館譯語』에서 예를 들어 보겠다.

① 猪	底
② 中國	董谷
③ 种田	董點
④ 摘果	得果
⑤ 何遲	哈底
⑥ 下程	哈頂
⑦ 知心	底沈
⑧ 見朝	間朶

上記에서 왼쪽에 있는 1段字들은, 現代普通話와 南京方言에서 聲母가 모두 /tɕ-/ 혹은 /tɕ'-/이다. 그러나 『朝鮮館譯語』중에서 오른쪽 時音聲母는 모두 /t-/이다. 이것은 『朝鮮館譯語』 시기에 여전히 古音현상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先秦시기의 上古音 중에서는 ‘遲’, ‘程’, ‘朝’의 聲母가 /t-/이며, ‘猪’, ‘知’, ‘種’ 등의 나머지 /tɕ-/의 上古聲母는 /t'-/이다. /tɕ-/인 ‘摘’은 多音字이며, 二·四等字를 제외한 다른 글자들은 모두 三等字이다. 따라서 上古音 중의 /d-/와 /t-/로 읽히는 글자들 중 일부는 /tɕ-/와 /tɕ'-/로 轉化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喻 影 匣 曉..... (舌音)



韻圖是同時利用韻母的等第來解決聲母何屬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等韻은 字音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上古音 중에서 端母 二·三等字는 이후에 知母字와 섞였을 것이다.

本考에서는 知·脂·澄母의 三等字자들만 나타나 있다.⁴⁷⁾

이 외에도 蘇州의 評彈⁴⁸⁾중에는 여전히 古江淮官話의 唱腔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래 중에서 ‘支’는 /tʃ/로 읽히고, ‘桃’는 『洪武正韻』에서 定母字와 섞인다. 따라서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朝’와 ‘桃’의音が 서로 같고 ‘朶’와도 비슷하다.

錢大昕은 책의 「舌音類隔之說不可信」항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古無舌頭舌上之分，知徹澄三母，以今音讀之，與照船牀無別也，求之古音，則與端透定無異。說文沖讀若動，……古人多舌音，后代多變爲齒音，不獨知徹澄三母爲然也。

옛날에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분이 없었다. 知·徹·澄 등의 三母는 今音으로 읽으면 照·船·牀 등과 다르지 않다. 古音에서 그것을 구하면 곧 端·透·定과 다르지 않다. 『說文解字』에서는 沖을 動과 같이 읽는다.……古人에게는 舌音이 많은데, 后代에는 대부분 齒音으로 변하였다. 단지 知·徹·澄 등 三母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上記의 기록과 같이 上古音에는 舌頭音과 舌上音이 분화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異論이 없는 정설이다. 그 근거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周禮』地官에 “師氏掌王中失之事(師氏는 나라의 禮에 마땅한지 안 한지를 관장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子春은 이곳의 ‘中’에 대하여 “當爲得，記君得失，若春秋是也(마땅히 得이며, 왕의 言行은 禮에 마땅한지 안 한지를 기록하였다. 『春秋』와

47) 丁邦新,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食貨出版社, 1974年, pp. 47-49 참조.

48) 評彈 또는 蘇州評彈. 說書 혹은 南詞란 한다, 蘇州 지역에 評話와 彈詞의 總稱이다. 오래되며 아름다운 漢族의 說唱藝術의 하나이다. 彈詞가 吳音으로 부른다, 대부분 세 가지로 나뉜다. 공연 방식 따라 한 명만 출연하는 것 있고 두 명은 출연하는 것 있고 세 명은 출연하는 것도 있다.

같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注하였으며, ‘中’과 ‘得’의 再構音은 아래와 같다.

中：陟弓切 [知] *t̪iŋ>t̪juŋ>t̪suŋ

得：多則切 [端] *tək>tək>tə²

또 『詩經』에 “左旋右抽，中軍作好(왼손으로 깃발 흔들고 오른 손으로 칼을 뽑으며 군중에서 즐기기만 하네)”라는 시구가 있는데, ‘抽’에 대하여 釋文에서 “抽，勅由反. 說文作搆，他牢反(抽은 勅由反이며, 『說文』에서는 搆라고 했는데 他牢反이다.)”이라 하였으며, 그 再構音은 아래와 같다.

抽：丑鳩切 [徹] *t̪iŋg>t̪jəu>t̪ʰou

搆：土刀切 [透] *t̪iŋg>t̪ʰau>t̪ʰau/t̪ʰao/

위의 두가지 예는 곧 端와 知母, 透와 徹母가 상고시대에는 아직 分化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는 형성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아래의 例에서 동일한 聲符字가 舌上音과 舌頭音으로 高루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猪/t̪-/ : 都/t-/ (성부, 者/t̪-/)

詔/t̪-/ : 佗/t̪-/ (성부, 它[t̪-/)

重/d̪-/ : 動/d-/ (성부, 東/t-/)

釀/n̪-/ : 囊/n-/ (성부, 襄/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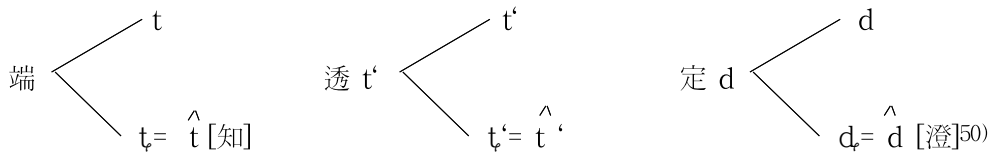
이 뿐만 아니라, 이런 樣相은 현대 중국의 방언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⁴⁹⁾.

聲母	例字	『廣韻』反切	仙游	厦門	北京
知	致	陟 利	ti ⁴	ti ⁴	t̪ʰi ⁴
"	朝	陟 遙	tiau ¹	tiau ¹	t̪ʰau
徹	恥	勅 里	t̪i ³	t̪i ³	t̪ʰi ³
"	超	敕 宵	t̪iau ¹	tiau ¹	t̪ʰau ¹

49) 張啓煥, 「古無舌上音今証」, 『河南師大學報』 2期, 1983年, pp. 83-89 참조.

澄	池	丑 知	ti ²	ti ²	tʂi ²
"	召	直 照	tiau ⁵	tiau ⁵	tʂau ⁴

따라서 상고음의 舌音이 中古音에서 분화된 실태는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舌上音이 분화된 시기는 대체로 六朝末에서 唐代에 이른다고 생각되며, 그 조건은 弱介音 /-I-(-i-/)가 뒤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端·定·透·泥·來母는 中古시대에는 知·徹·澄母와 照·穿·床·審·禪母 등으로 분화되었고, 元·明·淸시대 이후로는 다시 /tʂ-/ , /tʂ'-/ , /ʂ-/로 합쳐졌다.

아래의 文言現象을 보자.

馬王堆帛書：“千里之行，台于足下。”(台，通‘始’)

『漢書』：“填國家，撫百姓，吾不如蕭何。”(填，通‘鎮’)

通假字는 音이 유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설명을 통하여 /tʂ-/ , /tʂ'-/ , /ʂ-/ 등과 /d-/ , /t-/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館譯語』 중에 나타낸 글자들은 단지 上古音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古今中外音韻通例』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啄都木反，柘都古反，主當口反，詹多甘反，馳蛇唐何反，皆宜讀啞音也；而金陵皆爲齒音，是啞轉齒也⁵¹⁾

啄은 都木切이고 柘은 都古切이다. 主는 當口切이고 詹은 多甘切이다. 馳와 蛇는 唐何切이고 모두 啞音(牙音)으로 읽는다. 그러나 金陵에서는 모두 齒音으로 읽으니, 즉 啞音이 齒音으로 轉換된 것이다.”

50)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年, pp. 618-619 참조.

51) 陳貴麟, 『韻圖與方言 - 清代胡垣『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清代 사람인데도 金陵지역의 舌頭音을 완전히 舌上音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金陵雅音 중의 일부분만 舌上音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2) 韻母체계 비교

(1) 南京方言 중에서 介音 /-y/의 有無

南京方言에서 ‘妻, 趨’의 韻母는 모두 /-i/이므로 /-y/은 없다고 할 수 있다. 『朝鮮館譯語』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

月	臥
云	穩
雨	五
右	无
月圓	臥完
果園	刮完
路遠	落完

위에는 1段字는 現代普通話 중에서 모두 介音 /-y/가 있는데, 오른쪽의 3段字는 모두 /-u/이다. 따라서 『朝鮮館譯語』 중에서도 介音 /-y/가 없는 것이다 .

(2) 南京方言 중에서 /-in/과 /-in/의 혼동

南京方言 중에서 ‘名, 民, 明, 閩, 憫’ 등의 글자들은 모두 /miŋ/이고, ‘鷹, 引, 鸚’ 등의 글자들은 모두 /øiŋ/이다.

報名	播閱
----	----

名：梗 平 清 明 開 三 次濁
閔：臻 上 軫 明 開 三 次濁

貧人 平人
貧：臻 平 眞 並 開 三 全濁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銀瓶 引品
瓶：梗 平 青 並 開 四 全濁
品：深 上 寢 滂 開 三 次清

平身 品沈
平：梗 平 庚 並 開 三 全濁
品：深 上 寢 滂 開 三 次清

明朝 閔朶
明：梗 平 庚 明 開 三 次濁
閔：臻 上 軫 明 開 三 次濁

鷹 引
鷹：曾 平 蒸 影 開 三 全清
引：臻 上 軫 以 開 三 次濁

鸚鵡 引莫
鸚：梗 平 耕 影 開 二 全清
引：臻 上 軫 以 開 三 次濁

위의 글자들은 現代普通話에서 /min/과 /miŋ/으로 잘 구분되지만, 南京方言과 『朝鮮館譯語』중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3) 南京方言 중에서 入声韻尾 /-p/, /-t/, /-k/의 分合樣相

‘安’은 대체로 /ã/로 읽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모두 /-ng/으로 읽는데, 사실 /-ã/는 /-aŋ/의 약화된 발음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南京方言 중에는 한국어처럼 /-p/, /-t/, /-k/ 운미가 없이 모두 喉塞音이다. 喉塞音은 /-p/, /-t/, /-k/ 보다 좀 약하다.

또 南京方言 중에는 /-aŋ/이 없고 /-ã/만 있다.

그리고 『朝鮮館譯語』 시기에 韓國語 중에는 /-m/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제로 『朝鮮館譯語』 중에는 /-m/이 반영되지 않았고, 南京方言 중의 /-m/은 明·清代에 이미 金陵雅音에서 사라졌다.

1단	2단	韓國語
風	把論	바람
云	故論	구름
冰凍	我稜額勒大	어름 어르다
墻	丟	담
夏	呆論	여름
夜短	半送勒大	밤 더르다
榛子	改揜	개얌
鹿	洒滲	사슴
熊	果門	곰
羊	揜	얌
騾馬	按墨二	암말
君	臨貢	임금
男子	赧自	남자
心	墨怎	막슴
咳嗽	吉怎	기춤
油	吉林	기름
鹽	所昏	소곰
早飯	阿怎把	아춤밥

上記를 보면 ‘冰’(얼음)은 ‘我稜’으로, ‘君’(임금)은 ‘臨貢’으로 번역하였다. 즉 당시에는 /-m/이 사라지고 /-ŋ/으로 轉換되었다.

또한 ‘牆’(담)이 ‘丟’로 번역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어휘들은 모두 /-m/이 /-n/으로 轉換되었다.

이 외에도 拙稿 「對『朝鮮館譯語』語音, 語法, 詞匯的几点考証」⁵²⁾에서, 이미 江淮官話와 朝鮮館譯語의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논술했는데, 그 논문에서 『朝鮮館譯語』는 江淮官話 中の 南京方言에 더욱 가까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한 南京方言의 韻母表에 따르면 아래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圓脣母音類가 섞이고 있다.

/-ao/는 없고 모두 /-o/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桃, 朝, 高, 好, 老, 罩, 早, 棗, 稻, 草, 刀, 到, 報, 道, 毛, 袍, 帽, 襖’와 같은 글자들의 韻母의 音値는 모두 같다.

또 /-uo/는 없고 모두 /-o/로 발음하며 일부분의 /-o/, /-u/, /-əw/, /-uo/, /-ə/, /-ao/는 두 /-o/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朶, 果, 左, 播, 莫, 我, 母, 某, 茂, 質, 可, 河, 火, 臥’와 같은 글자들의 韻母의 音値는 모두 같다.

今朝	根朶
桃	朶
天高	忝果
好人	活人
老鸛	落管
日罩	忍左
早	左
棗	左
稻	朶
草房	左榜

52) 전희, 「對『朝鮮館譯語』語音, 語法, 詞匯的 几点考証」,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62권, 2015년.

刀	朶
到	朶
報名	播閱
知道	底朶
眉毛	迷莫
袍	播
紗帽	洒莫
襖	我

예를 들면 『朝鮮館譯語』 중에서 ‘天高’는 ‘忝果’인데, 南京方言에서 ‘果’는 /ko/이며, ‘高’의 /ko/로, 둘 사이의 발음이 유사하다. 위에서 1段字의 現代普通話 중에서 韻母는 모두 /-ao/인데, 3段字 譯語의 韻母는 모두 /-uo/이므로 그 차이가 비교적 크지만, 南京方言에서는 /-ɔ/와 /-o/의 차이이므로, 普通話보다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朶’와 ‘播’는 中古時期에 같은 攝에 소속된 글자였지만, 中古以後 分化되었다. 그러나 南京方言 중에서는 여전히 동일하다.

元音圖에 따르면 /-u/와 /-o/는 매우 가깝고, 그로인하여 『朝鮮館譯語』 중의 일부 /-u/은 /-o/을 韻母의 音值로 하는 글자를 譯語로 사용하였다. 현재 南京方言 중 일부 /-o/, /-u/, /-əu/, /-uo/, /-ə/, /-ao/으로 읽히는 글자의 발음은 모두 같다.

/-u/	/-o/
露	落
虎	火
骨	果
目	莫
壺	火
法度	把朶
路	落
母	莫
鹿	落
烏鴉	我亞

鸚鵡	引莫
庫房	果榜

/-əu/	/o/
樓	落
后	火
叩頭	果朶
咳嗽	害所

/-əu/	/-u/
州	主
走	祖
医獸	額暑
溝	谷
口	谷
手	暑
山後	傘胡
肉	入
丑	處

上記를 보면 ‘露’, ‘虎’, ‘骨’, ‘目’ 등의 韻母는 모두 /-u/이다. 南京方言 中에서는 아직 入聲이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모두 喉塞音 /-ʔ/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南京方言에서 目은 /muʔ/이고, 莫은 /moʔ/이다. 그 中에서 ‘鸚’와 ‘目’字가 三等字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글자들은 모두 一等字이다.

또 譯語의 韻母 /-u/와 /-o/는 모두 圓唇音이다. 예를 들면 『朝鮮館譯語』에서 ‘虎火’, ‘虎’는 /xu/이고, ‘火’는 /xo/인데, ‘后火’의 ‘火’는 南京方言에서 모두 /xo/라고 읽는다.

둘째, 南京方言 中에서 대부분의 /-n/과 /-ŋ/은 혼동하여 모두 /-ŋ/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朝鮮館譯語』 中에서는 1段字 ‘鶯’을 3段字 ‘引’으로 번역하였다. 또 南京方言 中에서도 ‘鶯’과 ‘引’의 발음은 모두 /iŋ/이다. 또 어떤 학자는 “‘鶯’은 ‘鷹’의 誤字이다”라고 한다.⁵³⁾ 南京方言 中에서는 ‘鷹’의 발음도 /iŋ/이다.

또 『朝鮮館譯語』중에서 1段字 ‘城’을 3段字 ‘升’으로 번역하였다. 또 南京方言 중에서도 ‘城’은 /tʂhən/이고, ‘升’은 /ʂən/이다.

위의 자료들을 통하여 『朝鮮館譯語』와 南京方言의 音韻體系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朝鮮館譯語』에 반영된 南京方言의 音韻特徵

상기의 논의를 聲母와 韻母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聲母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南京方言 중에서 /p-/와 /p’-/ , /t-/와 /t’-/와 같이 有氣音과 无氣音이 혼동되는 현상은 『朝鮮館譯語』중에도 존재한다.

② 南京方言 중의 聲母 /tɕ-/ , /tɕ’-/ , /ɕ-/는 見母, 羣母, 溪母 등에서 나온 것이고, /ts-/ , /ts’-/ , /s-/와 /tʂ-/ , /tʂ’-/ , /ʂ-/ 등은 혼동되었으며, 또한 『朝鮮館譯語』중에서는 舌面音 /tɕ-/ , /tɕ’-/ , /ɕ-/는 없고, /ts-/ , /ts’-/ , /s-/와 /tʂ-/ , /tʂ’-/ , /ʂ-/도 혼동되었다.

③ 南京方言 중에는 輕脣音 /f-/가 존재하지만, 『朝鮮館譯語』중에는 없다.

둘째, 韻母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南京方言 중에서 /-i/와 /-y/를 구분하지 못하고, 『朝鮮館譯語』중에서도 /-i/와 /-y/를 구분 못한다.

② 南京方言 중에서 /-n/과 /-ŋ/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朝鮮館譯語』중에서도 ‘鷹’은 ‘引’을 譯語로 삼고, ‘明’은 ‘閔’을 譯語로 삼았다.

③ 『朝鮮館譯語』중에서는 /-o/ , /-u/ , /-ao/ , /-uo/ , /-ɔ/가 混用되는 현상이 있는데, 南京方言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다.

④ 明代에는 尾音韻尾 /-m/이 대부분 /-n/으로 변하였는데, 『朝鮮館譯語』중에서도 尾音韻尾가 /-m/인 글자의 역어로 韻尾가 /-n/인 글자를 사용하였다.

53)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景仁文化社, 1972年, p. 176 참조.

IV. 『朝鮮館譯語』의 어휘 분석

1. 『朝鮮館譯語』의 어휘 구성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고 알타이어계의 각 언어들은 모두 膠着語이다. 膠着語는 어간의 뒷구조에 붙은 構詞의 附加成分을 派生語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즉 어간의 뒤에 붙은 부가성분이 형태변화의 주요 수단이 된다. 構詞성분과 語法성분은 모두 홑겹이기도 하고 여러 겹이기도 하다.

하나 이상의 어근 형태로 구성된 합성어가 고대의 어구에서는 그 비중이 별로 되지 않았지만 근래의 어구에서는 그나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어간 내부의 굴절 수단으로 어법의 상황을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며, 이것은 附着語(膠着語) 계열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어는 語根에 派生한 신조어를 더하는데, 신조어 뒤에 어법의 부착성분을 더하였기 때문에, 변환의 수단으로써 말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語法의 인식이 깊지 못하였고 특히 詞根 뒤에 膠着成分을 붙여서 새로운 語彙를 파생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어법에 관한 책은 周時經이 1898년 집필한 『國語文法』이다.

한국어어법에는 구체적인 記載를 가지고 있는데 400여 년 이전 편찬된 訓民正音은 단지 한국어 음과 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만을 진행하였고, 사실상 어법에는 여전히 규범적인 개념을 형성하진 못하였다. 더욱이 訓民正音 보다 몇 십 년 이르게 나타난 『朝鮮館譯語』에서는 더더욱 이와 같았다.

책에서는 조사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따로 찾을 수 없으며, 또 당시 사람들은 조동사의 개념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鷄林類事』를 한권의 사전으로 볼 수 있다면, 『朝鮮館譯語』는 한권의 어휘집이자 단어집이라고 할 수 있다. 『鷄林類事』는 고려시대 편찬된 책으로, 고려어를 많이 반영하였는데,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한자어휘도 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朝鮮館譯語』는 조선 초에 편찬되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한강 이남의 언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어휘가 많다.

또한 당시에는 문법개념이 여전히 모호하였기 때문에, 『朝鮮館譯語』에서는 단어가 자체와 조사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9부분의 ‘人事門’ 중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다. 예를 들면 ‘去’를 ‘你格刺’로 ‘來’를 ‘臥那刺’로 ‘見’을 ‘播你’로 나타낸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動詞 原型과 粘着詞는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그 자체는 語彙 原型의 부가적인 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어휘 중에도 부가적인 조사의 현상이 있었음을 추산 할 수 있다.

訓民正音의 解例本 중에는 ‘뿌메’를 ‘쓰는 데’로, ‘ㄱ’을 ‘ㄱ은’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ㄹ’은 ‘갈다’를, ‘ㅂ’은 ‘쓴다’를 의미한다. 현대문법에 따라 말하자면 ‘ㄱ은’은 정확한 표기이지만 解例本 중에서의 ‘ㄱ’, ‘쓴다’의 ‘ㄴ’은 아래의 음으로 쓰였고 ‘ㅂ’로 표기하였다. 한국 문자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한자로記載하였고, 한국어는 口頭 방식을 통해 뜻을 전달하곤 하였다.

1) 詞의 分合

『朝鮮館譯語』 중에서 ‘小風’은 ‘哲根把論’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月印釋譜』에서 ‘小’는 ‘저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新增類合』 중에서 ‘小’는 ‘자굴’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어 중의 ‘小’는 ‘작다’로 표기되어 있다.

위에 따르면 『朝鮮館譯語』에서 ‘哲根’은 ‘작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단지 발음에 따라 기재를 하면 이 외에도 『朝鮮館譯語』 중에도 合音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靑山’의 한국어 時音은 ‘噴磨’인데, 이것은 ‘푸른피’를 표기한 것으로, ‘噴’으로써 2개의 음을 나타내었다. 왜냐하면 速讀을 할 때에 음이 ‘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른 비슷한 예들도 있다. 일부분 入聲 韻尾 ‘ㄹ’이 있는 詞는 鼻音 韻尾가 있는 詞를 譯語로 삼았다. 예를 들면 ‘天’은 ‘哈嫩二’로 번역했는데, ‘天上’은 ‘哈嫩五會’로 번역하였다. 또 ‘水’는 ‘悶二’로 번역하였는데, ‘水淸’은 ‘悶墨大’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嫩’과 ‘悶’의 뒤에 나타난 ‘二’字는 일종의 合詞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하)늘은’ ‘嫩’과 ‘물은’ ‘悶’의 合詞이다.

또한 『朝鮮館譯語』중에서 ‘春’은 ‘播妹’(봄에)로 번역하였고, ‘虎’는 ‘半門’(범은)으로 번역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조사와 단어는 분리되지 않고, 조사와 더불어 하나의 단어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혼동하거나 誤用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흰구름’, 즉 ‘白云’을 ‘害故論’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白을 형용사인 ‘흰’으로 해석하였지만, ‘희’를 ‘害’로 번역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대략 조사를 誤用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朝鮮館譯語』 중의 誤字

비록 적지 않은 학자들이, 『朝鮮館譯語』의 다른 판본과 약간의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증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文璇奎 선생의 『朝鮮館譯語研究』 중에서는 한국어 어휘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龍飛御天歌』, 『월석보간』 등의 고서에서 유래한 것을 쓰고 있지만, 이 책들은 『訓民正音』이후에 출간된 책들이다. 즉 『朝鮮館譯語』는 『訓民正音』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訓民正音』이 나타난 뒤에 출간된 서적을 통해 『訓民正音』 이전의 자료들을 고증하는 것은 錯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것들을 몇 가지 기술하기로 한다.

(1) 譯語 ‘呆’의 考證

‘呆’는 痴(어리석다)라는 뜻으로 『廣韻』의 反切은 五來切이다. 『中原音韻』에서는 車遮韻에 배열되었으며, 『中州音韻』에서는 移遮切이므로 모두 零聲母이다. 南京方言 중의 ‘呆’는 多音字로서 하나는 /tae/이며 다른 하나는 /øae/이다. /tae/는 아마도 후에 나타난 음일 가능성이 있고, /øae/는 ‘皚’와 같다. 형용사로 ‘확실하다, 변통하지 않다’ 등의 뜻으로 아래와 같이 쓰인다.

① 呆的 (확실하다)⁵⁴⁾

② 這人眞呆板 (이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없다.)⁵⁵⁾

‘古’의 現代 韓國語 讀音은 ‘옛’으로 零聲母이다. 訓民正音 이후 나온 자료들 중에서는 ‘古’의 고유어 ‘옛’의 古語를 ‘네’라고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석보상절』 중에는 ‘도로 넷 벼슬 히시고’라는 기록이 있으나,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漢字의 譯語로 ‘뫼’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譯語 ‘뫼’를 잘못 사용하였거나, 또 하나는 그 시대 일부지역에서 ‘古’는 ‘네’가 아니라 零聲母였으므로 그 소리가 ‘예’와 가깝다는 것이다.

‘夏’는 ‘뫼論’으로 번역되었고, ‘婦人’은 ‘뫼忍’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鷄林類事』 중에서는 ‘夏’라고 하여 漢語 발음과 같다. 즉 ‘女子曰漢吟, 妹曰了慈’라는 記載에서 ‘了慈’와 ‘여자’의 讀音은 가깝고, 두 어휘에는 ‘ㄴ’이라는 音價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夏’가 ‘녀름’으로 변하고, ‘婦人’이 ‘녀인’으로 변한 것은, 高麗에서 朝鮮으로 왕조가 바뀔 즈음에, 도움을 옮기면서 일부 지방언어가 主導的 위치가 되면서, 지금까지 主体的 위치를 점하던 高麗語가 흔들린 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錦被’를 ‘根你卜二’로 번역하였고, 『鷄林類事』 중에 기술된 ‘被曰泥不’을 보면 ‘이불’은 원래는 ‘니불’이다. 즉 두 책에서는 모두 ‘ㄴ’이라는 音價가 존재한다. 즉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ㄴ’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古’, ‘夏’와 ‘婦人’ 등에 만약에 子音 ‘ㄴ’이 존재한다면 譯語 중에는 생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위에서 기술한 세 어휘는 ‘넷’, ‘녀름’과 ‘녀인’이 아니라 모두 零聲母일 것으로 판단된다.

(2) 鹿鳴 落問

『朝鮮館譯語』 중에서 ‘鹿鳴’의 3段 時音은 ‘落問’이었고, ‘鳴’은 南京方言 중에서 /miŋ/이고, ‘問’은 /øuəŋ/이다.

또 ‘明’은 南京方言 중에서 /miŋ/이며, 聲調는 陽平인데, ‘鳴’도 /miŋ/이며, 聲調는

54) 李榮 主編, 『南京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8, p. 106.

55) 李榮 主編, 『南京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8, p. 96.

陽平이다. 즉 ‘明’과 ‘鳴’은 同音이다. 그러나 ‘月明’의 時音은 ‘臥閱’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판단해 보면, ‘落問’은 ‘落閱’의 잘못된 표기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象吼’의 譯語 ‘賞人’은 誤字가 아닐 수도 있다

文璇奎가 『朝鮮館譯語研究』에서 ‘人’은 잘못된 표기이고 ‘火’가 옳다고 생각한 다⁵⁶⁾. 물론 이것 또한 一理가 있다. 하지만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결코 모든 어휘가 음에 따라 번역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男子’를 ‘赧忍’으로 번역하였는데 실은 ‘赧忍’의 음은 ‘男人’과 더욱 가깝다. 또 ‘翁’을 ‘拱’으로 번역하였는데 실은 ‘拱’의 음은 ‘公’과 더욱 가깝다. 이외에도 ‘海闊’은 ‘害管’으로 번역했지만, ‘害管’은 ‘海寬’과 더욱 가깝다.

‘吼’는 ‘吟’과 뜻이 유사하고, ‘賞人’은 ‘象吟’과 소리가 유사하다. 또 ‘吟’과 ‘引’은 모두 影母 侵韻字이며, 『朝鮮館譯語』 중에서 ‘陰’과 ‘銀’의 譯語는 모두 ‘引’이고 ‘人’의 음과 유사하다. 金陵雅音 중에 日母字인 ‘人’이 零聲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吼’는 誤字가 아닐 수도 있다.

2. 『朝鮮館譯語』 중의 語源 변화

1) ‘天’의 語源과 變遷 推定

『鷄林類事』에 記載된 첫 번째 어휘는 ‘天曰漢捺’이다. 이것을 현대국어에서는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漢’을 사용한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에 의하면, 고대국어 중에서 하늘은 ‘하날’이나 ‘하늘’로 표기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龍飛禦天歌』 중에는 ‘하늬’로 기록되어있는데, 그것은 ‘하늘’로 표기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多數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아직 한글이 형성되기 이전이었고 孫穆이라는 사람이 단지 듣는 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했다고 할 것이다.

梁柱東은 ‘하늘’의 발음 변천 과정은 ‘한뵈->한뵈->한을->하늘’이라고 여긴다⁵⁷⁾.

56)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景仁文化社, 1972, p. 180 참조.

57) 梁柱東, 『古歌研究』, 서울 一潮閣, 1968, p. 4 참조.

그 후에 ‘日’에서 ‘ㅇ’로 변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반론을提起하기도 하였지만, ‘한’의 讀音은 여전히 인정되었다. 字義의 측면에서 한 가지 예로, 한국 ‘대전’의 지명은 한자음이고 옛 명칭은 ‘한밭’이었다. 여기에서 보듯 ‘한’은 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밭’의 의미는 바로 ‘田’이며, 신라시기에 漢字를 보급하기 위하여 ‘대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南廣祐는 “ ‘하늘’은 ‘한울’로, ‘울’은 ‘알’(核,精의 뜻으로 圓形 象徴)로, ‘하늘’은 大圓의 의미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한’(하다의 冠形詞形)+날(日)에서 同音省略으로 ‘한날>하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⁵⁸⁾

‘漢’은 虛汗切이고 音은 ‘한’과 대응하고, ‘捺’은 乃喝切이며 音은 ‘날’과 대응한다. 합치면 ‘한날’인데, 두 개의 ‘ㄴ’이 겹치므로 ‘한’의 ‘ㄴ’이 탈락하여 ‘하날’로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변천 과정은 ‘한날’>‘하날’>‘하늘’>‘하늘’이었을 것이다.

『朝鮮館譯語』에서는 哈嫩二이다. ‘哈’은 원래 入聲字였으나, 南京方言 중의 入聲은 喉塞音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朝鮮館譯語』 중에서 ‘哈’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河’의 時音도 哈을 사용하였으니, 이런 점에서 볼 때, ‘哈’은 入聲字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2) ‘二’와 관한 考證

『朝鮮館譯語』에서 ‘天’은 ‘哈嫩二’로 표기하였는데, 두 번째 글자로는 ‘嫩’을 썼다. 즉 운미가 /-n/으로 끝나고 있어서 의심스러우며, 이 후에는 ‘二’를 사용해서 ‘하늘’의 音과는 더욱 떨어진 것 같다.

또 『朝鮮館譯語』 중에는 ‘二’가 몇 차례 출현하는데, 『廣韻』에서 『韻略易通』까지 ‘二’와 ‘兒’는 같은 운부였으며, ‘兒化音’ 현상에 대해서 耿振生은 「北京話‘兒化韻’의來歷問題」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從文獻中我們知道, 北京地區漢語的兒化韻早在清軍入關以前就已經產生. 構成兒化韻的條件是‘兒’類字(‘兒而耳爾二’等)獨成零聲母音節, 從而很容易和前一個音節結合. 在北京話, 兒類字的讀音是/-ər/, 這個讀音在明末文獻中有所透露, 北京人徐孝所著的『合并字學

58)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서울 中央大出版部, 1965, p. 278.

集韻』、『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의 兒類字有單獨的韻母，是零聲母，開口呼。在清初的漢語音韻著作中，已經有完整的兒化韻的記錄。趙紹箕의 『拙庵韻悟』所分十四‘通韻’就有兩個兒化韻，和其他各韻的地位平等，說明這時兒化韻非常普遍。趙紹箕著書的時間在1674年以前，上距清軍入關不到30年。我們無法設想這麼短的時間里來自關外的八旗語言已經把北京周邊的漢語都改造了⁵⁹⁾。另外，李思敬先生的研究也表明，明朝時候北方漢語已經有了兒化音，‘兒’類字大概在明初變成了 /-ər/ 韻母，到明朝中叶出現兒化韻。“在明代隆慶，萬曆間，也就是公元十六世紀中叶，北方話的兒化音已經有了高度的發展，使用的非常普遍了。⁶⁰⁾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北京 지역에서 漢語 兒化韻은 일찍이 淸軍이 山海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 兒化韻을 구성하는 조건이 ‘兒’류자(兒而耳爾二等)가 독립적으로 零聲母 音節을 이루기 때문에, 앞의 音節과 결합된다. 北京語 중에서 兒류자의 발음은 /-ər/이며, 이러한 讀音은 明末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北京사람 徐孝가 저술한 『合併字學集韻』·『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의 兒류자는 단독의 韻母가 있는데, 零聲母이며 開口呼이다. 淸나라 초기의 漢語音韻著作 중에도, 이미 완비된 兒化音의 기록이 있다. 趙紹箕의 『拙庵韻悟』 중에서 나눈 ‘通韻’에는 두 개의 兒化韻이 있는데, 다른 韻의 지위와 平等하다. [이것은] 이 시기에 兒化韻이 매우 普遍的인 것을 설명한다. 趙紹箕가 책을 저술한 시기는 1674년 전으로, 위로 淸軍이 山海關에 들어간 때와 30년이 못된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關外에서 전래된 八旗語言가 이미 北京 주변의 漢語를 모조리 바꾸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외에 李思敬의 연구에서도, 明代시기에는 北方漢語에 이미 兒化音이 존재하였고, 兒류자는 대체로 明初부터 /-ər/ 韻母로 변화하였으며, 明代 중엽에 이르러 兒化韻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明代 隆慶-萬曆 년간 즉 16 세기 중엽에, 北方 언어 중에서 兒化音은 이미 충분히 발전하였고, 매우 普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위의 자료에서 보면 ‘兒化音’은 明代인 16세기 中葉 이미 발달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송나라 시대부터 ‘兒化音’은 이미 나타났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朝鮮館譯語』 시대에 ‘兒化音’은 이미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兒而耳爾二’ 등 零聲母 兒類字의 讀音은 /-ər/이라고 한 明末의 문헌 기록이 있다.

兒化音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9) 據愛新覺羅·瀛生, 『滿語雜識』, 學苑出版社, 2004年, p. 782: “滿人入關之初, 大約自順治至康熙前期, 滿人仍如以前在關外故土時那樣操滿語.”

60) 耿振生, 「北京話“兒化韻”的來歷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3卷第2期, 2013年, p. 158.

① 兒化音으로 읽을 때, 韻尾는 /-a/, /-o/, /-ê/, /-e/, /-u/ (/ -ao/, /-iao/ 중의 /-o/도 포함)의 경우에는 讀音 변화가 크지 않다.

- /-a/→/-ar/ : 哪儿/nǎr/ 手把儿/shǒubàr/⁶¹⁾
- /-ia/→/-iar/ : 叶芽儿/yèyár/ 錢夾儿/qiánjiár/
- /-ua/→/-uar/ : 畫儿/huàr/ 浪花儿/lànghuār/
- /-o/→/-or/ : 粉末儿/fěnmòr/ 竹膜儿/zhúmór/
- /-uo/→/-uor/ : 眼窩儿/yǎnwōr/ 大伙儿/dàhuǒr/
- /-e/→/-er/ : 小盒儿/xiǎohér/ 硬殼儿/yìngkér/
- /-ue/→/-uer/ : 主角儿/zhǔjuér/ 木櫬儿/mùjuér/
- /-ie/→/-ier/ : 石階儿/shíjiēr/ 字帖儿/zìtiēr/
- /-u/→/-ur/ : 泪珠儿/lèizhūr/ 离譜儿/lípǔr/
- /-ao/→/-aor/ : 小道儿/xiǎodàor/ 荷包儿/hébāor/
- /-ou/→/-our/ : 老頭儿/lǎotóur/ 路口儿/lùkǒur/
- /-iao/→/-iaor/ : 小調儿/xiǎodiàor/ 嘴角儿/zǔjiǎor/

② 韻尾는 /-i/, /-ü/가 主要元音의 경우에 捲舌音과 충돌해서 元音이 늘어난다.

- /-i/→/-ier/ : 鍋底儿/guōdǐr/ 柳絲儿/liǔsīr/ 玩意儿/wányìr/
- /-ü/→/-üer/ : 小曲儿/xiǎoqǔr/ 毛驢儿/máolú/ 有趣儿/yǒuqǔr/

③ 韻尾는 /-i/가 韻母의 경우에 권설음과 충돌해서 /-i/를 생략한다.

- /-ai/→/-ar/ : 大牌儿/dàpár/ 窗台儿/chuāngtár/
- /-ei/→/-er/ : 同輩儿/tóngbèr/ 宝贝儿/bǎobèr/
- /-uai/→/-uar/ : 糖塊儿/tángkuàr/ 一塊儿/yīkuàr/
- /-uei/→/-uer/ : 口味儿/kǒuwèr/ 一對儿/yīduìr/

④ 韻尾는 /-n/가 韻母의 경우에 陽聲韻은 /-n/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 /-an/→/-ar/ : 頂班儿/dǐngbān/ 傳單儿/chuándān/

61) 아래에서 쓰고 있는 ‘/-a/→/-ar/’ 등과 같은 음표기호는 漢語拼音이다.

/-en/→/-er/ : 亏本儿/kuībēn/ 命极儿/mìngjí/er/
 /-ian/→/-iar/ : 鷄眼儿/jīyǎn/ 路邊儿/lùbiān/er/
 /-in/→/-iar/ : 用勁儿/yòngjìn/ 手印儿/shǒuyìn/er/
 /-uan/→/-uar/ : 好玩儿/hǎowán/ 拐彎儿/guǎiwān/er/
 /-uen/→/-uer/ : 皺紋儿/zhòuwén/ 開春儿/kāichūn/er/
 /-üan/→/-üar/ : 圓圈儿/yuánquān/ 手絹儿/shǒujuān/er/
 /-ün/→/-üer/ : 合群儿/héqún/ 花裙儿/huāqún/er/

그러므로 ‘哈嫩二’는 /hanənri/가 아니라 /hanər/이라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月’과 ‘星’이 있다.

文璇奎는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ㄹ’表記法 考察」중에서 入聲 韻尾 ‘ㄹ’에 관하여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를 대조하여 관찰하였다. 그러나 『鷄林類事』는 송나라 때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시기로 보면 입성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이고, 반면 『朝鮮館譯語』는 명나라 때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원나라부터 이미 입성이 사라졌고, 本考에서 참조한 南京方言 또한 入聲이 약화되어 喉塞音만 남아있다.

文璇奎는 논문 중에서 ‘ㄹ’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했다고 여긴다. 하나는 ‘二’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글자의 借用이다.

우선 ‘二’를 사용한 것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天	哈嫩二
天晴	哈嫩二墨大
天上	哈嫩五會
月	得二
星	別二
水	悶二
小河	哲根悶
水清	悶墨大
井	五悶
水井	五悶吉大
土	黑二
石	朶二
路	吉二

路遠	吉墨大
米	色二
鷄	得二
馬	墨二
寺	送二
弓	活二
箭	洒二
菜	餒墨
菜園	餒墨把
刀	跨二
碗	洒擺二
匙	速二
子	阿得二
正旦	色二
脚	擺二
錦被	根你卜二
二	觀卜二
八	耶得二
十	耶二
二十	色悶二

북방방언과 다른 六大方言과 커다란 차이는 入聲이 부족하고, 卷舌音과 兒化音 등이 있는 것이다. 만약 中原지역에서 古代로부터 정말로 客家話가 사용되었다면 漢族 언어는 적어도 五胡亂華⁶²⁾ 이전에는 北方方言이 없었을 것이다.

唐詩나 宋詞 중에서는 入聲韻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후 이것을 南方方言으로 읽으면 많은 경우 일치하지만, 北方方言으로 읽는다면 어색하기 그지없다.

唐代 이전의 문헌 중에서는 卷舌의 兒化音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打起黃鶯兒, 莫教枝上啼. 啼時驚妾夢, 不得到遼西.(저 피꼬리 쫓아버려, 가지에서 울어대지

62) 五胡亂華란, 西晉 時期에 邊塞 밖의 많은 유목민족들이, 西晉 八王이 난을 일으켜 國力을 衰弱시키는 기회를 타, 非漢族 政權을 세움으로써 漢人 政權과 對峙한 것을 말한다. ‘五胡’는 匈奴, 鮮卑, 羯, 羌, 氐 등의 다섯 개 커다란 胡人 部族이다. 그러나 사실 五胡는 단지 西晉 말기에 中原 지역을 침입한 胡人의 代表이며, 실제로는 다섯 부족만은 아니다. 백여 년 간, 북방의 각 소수 민족과 한족은 화북지역에 십여 개의 세력과 크기가 다른 나라를 세웠는데, 쫓나라 왕실은 長江 中下遊와 淮南, 江南에서 東晉 政權을 세웠다.

못하게 해주세요. [저 놈이] 울어댈 때면 내 꿈이 깨어나, 요서 땅에 갈 수가 없으니 까요.)”(唐·張籍『憶遠』)에서 ‘黃鶯兒(피꼬리)’의 ‘兒’는 단독으로 쓰인 글자로 兒化音은 아니고, 輕聲 또한 아니기 때문에 五音의 규율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朝鮮館譯語』 시기에 이미 兒化音은 존재하였다. 金陵音은 북방방언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기술을 통하여, 兒化音인 ‘兒, 爾, 而, 二, 耳’ 등의 卷舌音은 金陵雅音에도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金陵有能爲卷舌音者, 如‘今明昨前後’卷舌讀之, 今字根而切, 明字眉而切, 昨字鋤而切, 前字前而切, 後字侯二切. 雖系俗音, 亦天地間自然之音也.”⁶³⁾

金陵에 卷舌音을 발음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예를 들면 ‘今明昨前後’를 卷舌로 읽으면, 今은 根而切로, 明은 眉而切로, 昨은 鋤而切로, 前은 前而切로, 後는 侯二切로 한다.

廣東方言에서는 ‘二’를 /i/로 읽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가격을 물을 때, 상대방이 ‘一文(/imen/)'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兩塊錢을 의미하는 것이다.

湘方言에서는 ‘兒’를 ‘俄’로 읽고, 吳方言에서는 오히려 ‘倪’로 읽는다. 張籍의 시 중에서 ‘倪(兒)’와 ‘啼·西’ 등 3글자는 압운된 것이다. 고대 언어에서는 ‘你’가 없었고 ‘爾’만 있었다. ‘爾等’은 실제로는 ‘爾等’이라고 읽어야 한다. 현재의 중국어에서는 아예 ‘亻’를 더하여서 ‘爾’와 ‘爾’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현대한어에서 /z-/로 읽히는 것은 많은 경우 중고시대의 /n-/에서 由來하였다. 예를 들면 日本(/zɪpən/)은 日語 중에서 /nihon/이라고 읽으며, 吳方言의 台州話에서는 /niben/으로 읽는다.

‘倪’字의 우측에 있는 聲符字는 ‘兒’이지만, ‘倪’는 /ni/로 읽으며, ‘你’는 /ni/로 읽지만 ‘爾’의 경우에는 /ər/로 읽고, ‘廿’은 20을 의미하는데, /nian/으로 읽는다. 또 ‘忍者’는 日語와 台州話의 讀音으로 모두 /ninjtca/로 읽는다.

台州話의 兒化音은 /-n/을 韻尾로 하여 마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昨天’이 兒化된 ‘昨日兒’을 /tsoni'n/으로 읽고, 明天이 兒化된 ‘天兒亮’을 /ti'nliɑŋ/으로 읽고, 后天이 兒化된 ‘後日兒’을 /heni'n/으로 읽는다.⁶⁴⁾ 즉 ‘日’字 자체는 /ni/로 읽히

63) 陳貴麟, 『韻圖與方言-清代胡桓「古今中外音韻通例」音系之研究』, 沛革企業有限公司, 中華民國八十五年, p. 120.

64) <http://baike.baidu.com/item/%E5%8F%B0%E5%B7%9E%E8%AF%9D/7872477?fr=aladdin>

지만, 위에서 진술한 문장 중에서는 /nin/으로 읽히는데, 이것은 兒化音으로 마지막을 맺기 때문이다⁶⁵⁾.

이것으로 『朝鮮館譯語』 중에서 일부분 ‘ㄹ’로 끝나는 글자가 /-n/으로 끝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蕎麥 莫悶 /-n/

赤馬 本根墨 /-n/

河深 問吉大 /-n/

따라서 본인은 다른 글자의 借用이 아니라 일부 남방 지역에 /l-/을 /n-/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朝鮮館譯語』의 天文편에 의하면 ‘月圓’은 ‘得二朵略大’라고 하고, ‘星多’는 ‘別二哈大’라고 하여, ‘二’이 여전히 보류되어 있지만, ‘天下’을 ‘哈嫩阿賴’라고 하고, ‘天上’을 ‘哈嫩五會’라고 한 것에서는 ‘二’가 이미 사라졌다.

‘늘’의 음 중에는 /-n/음이 없다. 그러나 /nuən/으로 읽히는 ‘嫩’은 뒤에 兒化音을 나타내는 ‘二’이 쓰이면 /-n/이 탈락되며, ‘二’를 쓰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추측된다.

하나는 한국어 조사 ‘은’과 같이 쓰면, ‘하늘은’과 같이 되기 때문에, ‘푸른’을 ‘噴’으로 번역한 것과 같이, ‘늘은’을 ‘嫩’으로 번역하였고, 또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方言에서 ‘兒化音’을 발음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ər/을 /-n/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嫩’을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에 한국어는 어법이나 조사가 완비되었는지가 의심스럽다.

또 河와 水도 만찬가지로 ‘悶二’로 표기했지만, ‘小河’는 ‘哲根悶’이고 ‘水淸’는 ‘悶墨大’로 표기하였다. 『鷄林類事』에서는 ‘沒’을 譯語로 사용했지만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悶’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생각에는 ‘沒’은 金陵雅音에서는 /moʔ/으로 읽히는 것으로 보아 入聲字가 喉塞音으로 읽히며, 이것은 『廣韻』과 이미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어법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哈嫩’은 ‘하늘은’과 비슷

(확인일자: 2016.10.20)

65) 遊汝傑, 『吳語內部各片的音韻對應』, 上海教育出版社, 2003, p. 6.

한 발음이고, ‘悶’은 ‘물은’과 비슷한 발음이다.

『鷄林類事』는 어휘 사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朝鮮館譯語』는 詞組로 볼 수 있다.

또 ‘路’는 ‘吉二’로 표시하였고, ‘路遠’은 ‘吉墨大’로 표시한 것 등으로 미루어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아직 한글의 어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즉 어떤 단어에는 조사가 쓰이고, 어떤 단어에는 안 쓰였을 가능성도 많다.

‘路遠’은 ‘길 멀다’인데, ‘吉墨大’ 중에는 모두 ‘ㄹ’이 반영되지 않았다. ‘吉’은 入聲字이지만 金陵雅音 중에서는 喉塞音으로 읽히고, ‘墨’도 喉塞音이다. 이것은 아마도 金陵雅音 시대에는 아직 入聲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아, 漢字音 중에서는 한국어와 일치되는 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日’은 ‘害’로 표기했는데, ‘흰구름’도 ‘害故論’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바로 ‘白’이라는 글자는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 ‘흰’을 사용하지 않고, ‘히’를 사용한 것이다.

이 후에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본인은 위의 현상들은 당시에 조사의 사용 규칙이나 어법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訓民正音』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訓民正音』 해례본에서 ‘뿌메’는 ‘쓰는 데’의 의미이고, ‘근’은 ‘근’이다. 즉 『訓民正音』에서는 어법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혼란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중세 한국어 方言 중에 남아 있는 어휘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는 특유한 언어이다. 방언은 한 언어의 분화체이다. 즉 본래는 한 언어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방언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開京(開城)이 수도였기 때문에 開京語는 주도 언어가 되었고, 조선 시대는 수도를 漢城으로 옮겼기 때문에 漢城語가 주도 언어가 되었다.

기원적으로 方言이란 ‘五方之言’의 준말이다. 이때의 五方이란 ‘東方, 西方, 南方, 北方’의 四方과 ‘中方(중앙)’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방언은 결국 각 지방에서 쓰이는 말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하기에 본래의 ‘방언’은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사고가 강력해지기 이전에 생성된 개념으로, 오늘날의 지방어(또는

지역어)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

방언도 일부지역의 언어이거나 옛날의 언어이거나 간에, 그 지역 그 시기에 사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쓰는 언어다. 예를 들면 양반층의 후예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형성한 경상북도 안동의 ‘班村語’도 한국어의 방언의 하나이다.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중국 상고음을 많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언어를 연구하려면 그러한 방언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아래에서는 『鷄林類事』를 참조하여 『朝鮮館譯語』 중의 몇 가지 어휘를 고증할 것이다.

1) 土

『朝鮮館譯語』 중에서 ‘土’의 2段 譯語는 ‘黑二’이다. 위의 자료들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만약 『朝鮮館譯語』가 當時의 南京方言 즉 金陵雅音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黑’의 음은 /xɛʔ/일 것이고, 入聲 여부와 관계없이 뒤에 兒化音 나타내는 ‘二’를 사용하여 /xɛə/와 유사할 것이다.

宋代의 『鷄林類事』 중에서 ‘土’는 ‘轄稀’로 번역했다. ‘轄’은 『廣韻』에서 何葛切로 入聲韻이고, ‘稀’는 古代에 상용되던 일종의 語尾이다. 金亨圭는 『國語史研究』에서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하늘’이 고대어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확증은 그것이 /ㅎ/을 수반하는 단어라는 것일 것이다. 古代國語에서 상당수의 名詞가 助詞와 연결될 때 다음과 같이 /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두고 ‘ㅎ末音體言’, ‘ㅎ助詞’, ‘ㅎ曲用語’라는 用語를 쓰면서 그 정체에 대하여 국어학계에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었다⁶⁶⁾.

현대 한국어에서는 ‘흙’은, 『月印釋譜』 등에서는 ‘홀기’로 기록되었고, 이후에는 대부분 ‘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즉 고려시대나 또는 『朝鮮館譯語』가 출간되어 통용되기 이전인 조선 초기를 막론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ㄱ’의 음이 존재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의 경상도와 평안남도의 방언 중에서는 ‘흙’을 ‘홀’으로 읽기도 하므로, 본인은 ‘흙’자는 중세국어에서는 ‘흙’이 아니고 ‘홀’이었을 것이라

66) 金亨圭, 『國語史研究』, 일조각, 1962年, pp. 4-13.

고 생각한다.

2) 山

『朝鮮館譯語』 중의 ‘山(산)’은 ‘磨一’이었지만 ‘山高’는 ‘磨那大’라고 하여, ‘一’이 생략되었다. 고대 한국어 중에서는 명사의 뒤에 ‘ㅎ’가 붙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山(산)’의 고어는 ‘뿡’이다. 또 평안도 방언 중에서 ‘山(산)’은 ‘뵈’라고 하고, 南京方言 중에서 ‘磨’는 /mo/라고 읽힌다. 아마도 ‘一’은 單語 중의 한 음절이 아니라, 말끝의 ‘ㅎ’이라고 생각된다.

3) 犬

『鷄林類事』 중의 ‘犬’은 ‘家稀’로 번역되었지만, 이후의 中世 韓國語인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改’로 나타나 있다. 또한 경기도 방언 중에서 ‘犬’는 ‘가히’로 불러 여전히 고려시대의 고어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가히’는, ‘薑’에서 받침인 ‘ㅎ’이 따로 한 음절을 형성하였다가, 이것이 다시 ‘개’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4) 地 大 땅

현대 한국어 중에서는 ‘地’가 땅이라고 한다. 그러나 『朝鮮館譯語』 중에서의 譯語는 ‘大’이다. 『朝鮮館譯語』 중에는 ‘ㄷ’와 같은 쌍자음은 없고, 모두 無氣音 /t-/로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받침은 ‘ㅎ’과 ‘ㅇ’이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 硯

『鷄林類事』 중에서 ‘硯’은 ‘皮廬’로 번역되었고,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必路’로 번역되었다. 方言 중에는 ‘비리’와 ‘벼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벼루’라는 단어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비루’였을 가능성이 있다.

6) 杏

『朝鮮館譯語』 중에서 ‘杏(살구)’의 時音은 ‘所貴’이다. 南京方言에서 ‘所’는 /so/로 읽히고, ‘貴’은 /kuəi/로 읽힌다. 現代 韓國語에서는 살구라고 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살궈’ 혹은 ‘살귀’로 읽으며, 황해도방언에서도 ‘살귀’라고 읽는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中世 韓國語에서 ‘살구’는 ‘슬궈’ 혹은 ‘슬귀’로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7) 獅子 助蓋 世自

‘助蓋’라는 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함경북도에서는 ‘獅子(사자)’의 방언으로 ‘주지’를 쓴다. 이 ‘주지’는 별신굿을 올릴 때 나쁜 사람과 악귀 등을 쫓아 낼 때 사용하는 사자가면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지’는 원래 존재하던 지역 방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래어가 나타남에 따라서 사자로 변화였고, ‘助蓋’ 중의 ‘蓋’자는 혹 誤記였을 가능성도 있다.

8) 猪 朶 底

韓國語의 ‘猪’는 ‘돈’으로 불리지만, 『鷄林類事』에서는 陀骨切인 ‘突’이라고 읽혔다. 즉 /tut/이다.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猪’의 韓國語 時音으로 ‘朶’를 썼고, 南京方言 중의 音은 /to/이다. 함경도와 제주도 方言 중에서는 ‘돛’과 ‘돛’으로 읽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朝鮮館譯語』 중에 나타난 입성의 혼용현상이다. 아마도 이외에도 입성의 혼동은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이며, 이로써 판단할 수 있듯,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猪’의 한국어 발음은 ‘돈’이 아니고 ‘돛’과 유사했을 것이다.

9) 鷄 得二 解

『鷄林類事』 중에는 ‘鷄曰啄, 音達’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啄’은 『集韻』 중에서

‘都木切’이나 ‘竹覺切’이다. 그러나 金敏洙는 「高麗語의 資料 -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에서, “查字典并無此字, 取‘達’音應爲朝鮮土語.(字典을 찾았으나 결코 이 글자가 없어서 ‘達’의 소리를 取하였으며, 마땅히 朝鮮의 사투리였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達’은 『集韻』 중에서 ‘拖葛切’로 入聲’이며 그 발음은 ‘달’과 유사하다.

『朝鮮館譯語』 중에서 ‘鷄’의 中國語 時音은 ‘得二’이었고, 江淮官話 중에서 ‘得’은 /tɛʔ/이고, 南京方言 중에서는 /tɛʔ/인데, 입성은 모두 喉塞音이지만, 뒤에 ‘兒化音’인 ‘二’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tɛər/ 혹은 /tɛər/로 변해버렸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까지의 ‘鷄’의 발음은 ‘달’과 비슷했다는 것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方言 중의 ‘鷄’은 ‘달기’였으며, 제주방언 중에서는 ‘닥’이고, 경상도방언에서는 ‘닥’이었다. 따라서 ‘ㄱ’은 그 후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鹽

『鷄林類事』 중에는 ‘鹽曰蘇甘’이라고 기술이 있고, 『朝鮮館譯語』 중에서 ‘鹽’의 譯語는 ‘所昏’이다. 그러나 ‘소금’의 옛말은 ‘소곰’이며, 전라도 사투리로는 ‘쇠금, 경상북도 사투리로는 ‘소검(경북)’이라고 하여, 모두 ‘ㄱ’을 쓰고 ‘ㅎ’을 쓰지 않는다. 아마도 ‘昏’은 誤字일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本稿는 南京方言과 明代의 ‘金陵雅音’, 그리고 中世 韓國語 등을 참조하여 『朝鮮館譯語』를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발견하였다.

첫째, 『朝鮮館譯語』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여 당시 한국과 중국의 時音을 기재하였다. 상당한 부분이 江淮官話 중의 ‘金陵雅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明代의 首都는 南京이고, ‘金陵雅音’은 南京 지역의 방언에서 주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수도를 北京으로 옮겼지만, 한 동안 北京 지역에서는 여전히 南京方言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朝鮮館譯語』는 北京으로 수도를 옮긴 뒤로 얼마 되지 않아 편찬되었다. 따라서 비록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江淮官話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을지라도, 여전히 일부분의 語音은 옛 발음을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입성은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의 문자는 1443년 『訓民正音』이 편찬된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 전에는 계속 漢字로 기록하였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口頭로 통하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못한 편이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어법 책으로는 1898년에 출간된 『國語文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5세기 초 출간된 『朝鮮館譯語』보다 약 500년이나 늦은 것이었다. 이렇게 늦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朝鮮館譯語』는 漢字를 써서 표기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의 한자음과 어법습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인은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兒化音’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또 助詞를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혼동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언어와 문자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文字의 변화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전쟁과 왕조의 교체 등으로 말미암아 語音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本稿는 『朝鮮館譯語』와 『鷄林類事』를 참조하여, 中世 韓國語의 일부 어휘에 대해 고증을 해 보았다. 비록 일부분의 어휘는 현재 이미 사용되지 않지만, 몇몇 지역의 방언에서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本稿는 주로 현재 南京方言에 대해 고증한 것과 江淮官話의 역사자료 등을 결합하여 대조하여 연구함으로써 아래의 몇몇 문제를 증명하였다.

첫째, 『朝鮮館譯語』의 편찬시기인 明代의 주된 語音은 당시의 ‘金陵雅音’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또 『朝鮮館譯語』의 中國 時音を 南京方言의 聲·韻母體系와 비교함으로써 많은 비슷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곧 『朝鮮館譯語』의 時音은 당시의 ‘金陵雅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아울러 ‘金陵雅音’의 聲母와 韻母體系까지도 고증하였다.

둘째, 南京方言과 江淮官話의 고찰을 통해, 『朝鮮館譯語』 중에 나타난 잘못을 바로잡았다.

셋째, 『朝鮮館譯語』 중에서는 ‘入聲’의 譯語를 혼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입성을 포함한 韻尾를 제외하고는 韻頭와 韻腹에서는 비교적 상통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朝鮮館譯語』는 『訓民正音』이 출간되기 이전에 편찬된 책이었기 때문에, 번역은 한자로 할 수 밖에 없었고, 『訓民正音』이 나타난 후에 이르러 비로소 韓國語로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訓民正音』 이후에 나타난 책들을 이용하여 『朝鮮館譯語』를 고증함으로써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법이 완전한 체계와 개념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있어서 時音에 따라 음절마다 기록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 그리고 한국어의 알타이語系 언어로서의 특징이 중국어의 언어로서의 특징과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 번역할 때 나타난 誤字 등을 고증하였다.

요컨대 『朝鮮館譯語』는 조선 초기의 중요한 어휘자료로서, 조선 초기 어음을 연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같은 시기의 중국 ‘金陵雅音’, 즉 南京方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1. 姜信項 『韓國語言史(上)』, 高麗大學民族文化研究所, 1967
2. 金民秀 『韓國語言史(下)』, 高麗大學民族文化研究所, 1969
3. 金衡奎 國語史概論, 一朝閣, 1985
4. 강길운 『「鷄林類事」의 新解讀研究』, 발행처도서출판 지식과교양, 2011
5.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景仁文化社, 1972
6. 愛新覺羅·瀛生 『滿語雜識』, 學苑出版社, 2004
7. 李范文 『宋代西北方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8. 李新魁 『「中原音韻」音系研究』, 中州書畫社, 1983
9. 中國音韻學會編 『音韻學研究』, 第一輯, 中華書局, 1984
10. 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科學出版社, 1961年
11. 陸志偉 『釋「中原音韻」』、『國語入聲演變小注』, 載『陸志偉近代漢語音韻論集』, 商務印書館, 1988
12. 金相根 『中語學基礎』,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13. 文璇奎 『中國古代音韻學』, 발행처 : 민음사, 1987
14.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서울 中央大出版部, 1965
15. 邵榮芬 『中原雅音研究』,山東人民出版社, 1981
16. 陽耐思 『中原音韻音系』,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17. 李葆嘉 『中國語言文化史』, 江蘇教育出版社, 2003年
18. 曹志耘 『南部吳語語音研究』, 商務印書館, 2002
19. 顏逸明 『吳語概說』, 上海教育出版社, 1994
20. 游汝杰 『吳語內部各片的音韻對應』, 上海教育出版社, 2003
21. 金尼閣 『西儒耳目資』(『續修四庫全書』, 經部 第259冊), 上海古籍出版社, 2000.
22. 『中國語言地圖集』, 中國社會科學院·澳大利亞人文科學院合編, 香港, 1987.
23. 李行健, 『普通話和方言』, 上海教育出版社, 上海, 1985.

24. 李思敬, 『漢語‘兒’/ㄝ/音史研究』, 臺灣商務印書館, 臺灣, 1986.
25. 陳章太·李行建 主編,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彙集』, 語文出版社, 北京, 1996.

【논문류】

1.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1994
2. 張玉來 「元明以來韻書中的入聲問題」, 『中國語文』, 1991.5.
3. 張玉來 「近代漢語官話入聲的消亡過程及相應語音性質」, 『山東師大學報』, 1991.1.
4. 주성일 「明代 官話의 聲調 체계 연구 -韓中 譯音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학회, 중국언어연구, 2006년 제22집
5. 朱星一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近代漢語 韻尾 변화 -天文門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4집
6. 김주원 「한국어사와 삼국의 언어」, 한국공학교육학회, 1994년 11권 2호
7. 劉祥伯 「江淮官話的分區(稿)」, 『方言』, 2007年第4期
8. 耿振生, 「北京話‘儿化韻’的來歷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13年第53卷 第2期
9. 金閔洙 「高麗語의 資料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 出處 『鷄林和朝鮮館校正』
10. 이연주 「『揚雄方言』과 중국어에 있어 방언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2010.9
11. 이병관 「現代 中國 方言學 研究 概況」, 중국어 문학논집, 1997. 8
12. 閔金良, 「我所熟悉的漢語現代化工程」, 東北師範大學傳媒學院,
13. 김은희, 「明代 官話 音韻體系 研究- 北京官話를 中心으로 -」, 2007.9
14. 정윤자, 「한국어 체언 어간말자음의 역사적 변화 양상과 전망」, 東洋古典研究 第29輯, 2007.12

ABSTRACT

Historically speaking, the Korean language and the Chinese language have had a long standing intercultural relationship and as such, it has affected and changed each other as m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active. Therefore, a surprising amount of the remnants of ancient Chinese language formations can be found not only in various dialects of modern Chinese but within the Korean language itself.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Nanjing Dialect and translated words of Korean that appears in the book “Chaoxian Guan Yi Yu” (Translated Words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end of K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then search out the similar part, by the compare find out the problem and the differences with studies of “Chaoxian Guan Yi Yu”. The capital of China during the Ming Dynasty was located in Nanjing and the official language was predominantly the “Jianghuai Guanhua” (Lower Yangtze Mandarin) and “Jinling Ya Yin”(nowadays called Nanjing Dialect) which was also belong to the Jianghuai Guanhua system, was mainly used in the capital . Even after the capital was moved, the official language cannot change overnight so this official language maintained its prestige as the prime language even in the Beijing region and can be said to have had vast influences in the Beijing language. Through the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 few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Chaoxian Guan Yi Yu” were compared with the Chinese rhyme sounds and its dialect and the following special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First, the sound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Chaoxian Guan Yi Yu for the most part reflects the sound scale of the jianghuai guanhua system. In other words, the sounds of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Chaoxian Guan Yi Yu could be said that parts followed the North Chinese character sound system of that period but certain part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Nanjing Dialect which was the official language during that time so some parts of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of the translated words actually belong to the Jianghuai Guanhua system. Second, the word “tian” (sky or the heavens) that appears in the Chaoxian Guan Yi Yu has been historically verified

through thorough research. In the Ji Lin Lei Shi the word “tian” was translated into “han nal” as the reading sound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This term was probably changed later to “haneul” due to the phenomena of consonant assimilation as the final consonant “n” of the “han” and the first consonant of “n” of “nal” has the same sounds. (*haneul in Korean means sky in modern Korean) Third, there is a regular pattern in terms of using the “er” (meaning the number two) in the Chaoxian Guan Yi Yu. In other words, all intonation sounds in the Nanjing Dialect were read as implosive sounds (/ʔ/) and “er” was only used when it finished off as an intonation sound that reads as implosive sounds such as the “de”, “bie”, or “ji”. On the other hand, ancient Korean language did not have a clear awareness of grammar so when a postpositional particle such as the “哈嫩(ha neul eun)” was u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er” was not used. Fourth, some vocabularies of the ancient Korean language that appeared in the Chaoxian Guan Yi Yu still exist in some regional dialects. For example, “tu(earth, pronounced as ‘heuk’ in modern Korean)” does not have the “ㄱ” sound in both the Ji Lin Lei Shi and the Chaoxian Guan Yi Yu and is used as “hol” in the Kyeongsangdo and Pyeongannamdo regions.

【부록】

1. 『朝鮮館譯語』(文璇奎版)

1) 天文門

1. 天	哈嫩二	忝	하늘
2. 日	害	忍	히
3. 月	得二	臥	달
4. 星	別二	省	별
5. 風	把論	捧	바람
6. 雲	故論	穩	구름
7. 雷	別刺	屢	벼락
8. 雨	必	五	비
9. 霜	色立	爽	서리
10. 雪	嫩	捨	눈
11. 霧	按盖	五	안개
12. 露	以沁	落	이슬/이슬
13. 天晴	哈嫩二墨大	忝逞	하늘 맑다
14. 天陰	哈嫩二墨立大	忝引	하늘 흐리다
15. 天上	哈嫩五會	忝賞	하늘 우회
16. 天下	哈嫩阿賴	忝哈	하늘 아래
17. 天高	哈嫩那大	忝果	하늘 높다
18. 天邊	哈嫩格自	忝扁	하늘 ㄱ시
19. 天曉	哈嫩把憂大	忝驍	하늘 날갯다
20. 天晚	哈嫩展根格大	忝完	하늘 접글것다
21. 天旱	哈嫩格悶格大	忝罕	하늘 ㄱ물것다
22. 日出	害那格大	忍處	히 나것다
23. 日落	害底格大	忍刺	히 디것다
24. 日長	害吉大	忍掌	히 기다
25. 日豆	害迭勒大	忍踞	히 더르다 (注:豆는 短의

26. 日照	害必翠那大	忍處	히 비취엿다 誤字, 脛는 瞻의
27. 日煖	害得大	忍根	히 덥다 誤字라 본다)
28. 月圓	得二朶略大	臥完	돌 두렵다
29. 月缺	得二以思格大	臥果	돌 이즈것다 (注: 果는 界의 誤
30. 月斜	得二吉卜格大	臥捨	돌 기볼것다 字인 듯)
31. 月明	得二墨大	臥閑	돌 몹다
32. 星多	別二哈大	省打	별 하다
33. 星少	別二哲大	省杓	별 적다
34. 星密	別二擺大	省米	별 비다
35. 星稀	別二得莫大	省喜	별 드므다
36. 大風	措把論	打捧	큰 바람
37. 小風	哲根把論	杓捧	저근 바람
38. 涼風	燦把論	兩捧	촌 바람
39. 有雲	故論以思大	與穩	구름 이시다
40. 無雲	故論額大	莫穩	구름 엷다
41. 白雲	害故論	迫穩	흰 구름
42. 黃雲	勞論故論	謊穩	누른 구름
43. 紅雲	本格故論	哄穩	붉은 구름
44. 黑雲	格悶故論	哈穩	거먼(문) 구름
45. 大雨	措必	打五	큰 비
46. 小雨	哲根必	杓五	저근 비
47. 有雨	必以思大	與五	비 이시다
48. 無雨	必額大	莫五	비 엷다
49. 雷響	別刺文大	屢香	벼락 운다
50. 霧罩	按盖底格大	五左	안개 뼈것다
51. 雪飛	嫩根大	捨必	눈 눈다
52. 有露	以沁以思大	與落	이슬 이시다
53. 無露	以沁額大	莫落	이슬 엷다
54. 冰凍	我稜額勒大	稟董	어름 어러다
55. 冰化	我稜那憂敢大	稟華	어름 노가간다

2) 地理門

56. 地	大		싸
57. 山	磨一		피
58. 江	把刺	剛	바르
59. 河	悶二	哈	믈
60. 海	把刺	害	바르
61. 水	悶二	暑	믈
62. 井	五悶	整	우믈
63. 溝	活	谷	골
64. 田	把	點	받
65. 土	黑二	兔	흙
66. 石	朶二	捨	돌
67. 城	雜	升	갓
68. 牆	丟	掌	담
69. 路	吉二	落	길
70. 村	吞	存	둔? 촌?
71. 洞	谷莫	董	구모
72. 郊	得勒	角	드르
73. 橋	得屢	角	드리
74. 中國		董谷	둥국
75. 外國		歪谷	외국
76. 地界	大色直	底結	싸스시
77. 山高	磨那大	傘果	피 높다
78. 山低	磨叔憂大	傘底	피 낮갑다
79. 山岩	磨必傾賴	傘按	피 비레
80. 山前	磨阿迫	傘展	피 알퓌
81. 山後	磨推迫	傘胡	피 뒤혜
82. 山頂	磨墨立	傘丁	피 머리

83. 青山	噴磨	逞傘	푹큰 피
84. 海闊	把刺那大	害管	바르 넘다
85. 江心	把刺憂噴得	剛沈	바르 가본디
86. 江邊	把刺格自	剛扁	바르 ㄴ시
87. 河深	悶吉大	哈沈	물 깊다
88. 河淺	悶呆憂大	哈展	물 년잡다
89. 大河	捎悶	打哈	큰 물
90. 小河	哲根悶	杓哈	저근 물
91. 水清	悶墨大	暑逞	물 맑다
92. 水混	悶墨立大	暑昏	물 흐리다
93. 水急	悶迫勒大	暑吉	물 썩르다
94. 井深	五悶吉大	整沈	우물 깊다
95. 井淺	五悶呆憂大	整展	우물 년잡다
96. 清泉	墨根色	逞展	물 근심
97. 開田	把耶勒大	改點	밭 여럿다
98. 種田	把敢大	董點	밭 간다
99. 分田	把那哈大	噴點	밭 눈호다
100. 爭田	把那哈大	省點	밭 드툰다
101. 果園	刮世把	刮完	과실 받
102. 花園	果把	華完	곳 받
103. 菜園	餒墨把	采完	늑물 받
104. 村裏	吞阿柰	存立	둔? 촌 안히
105. 郊外	得勒把古	角歪	드르 밧기
106. 出城	雜那憂大	處升	жат 나가다
107. 入城	雜得勒憂大	與升	жат 드러가다
108. 牆高	丟那大	掌果	담 높다
109. 牆低	丟叔憂大	掌底	담 낮잡다
110. 路遠	吉墨大	落完	길 머다
111. 路近	吉憂憂大	落根	길 갓잡다
112. 路濫	吉自大	落藍	길 즈다

113. 路乾	吉墨勒大	落敢	길 머르다
114. 修路	吉大憂	暑落	길 닷ㄴ
115. 石橋	朶得屢	拾角	돌 드리
116. 新橋	賽得屢	沈角	새 드리
117. 舊橋	勒根得勒	谷橋	놀근 드리
118. 溝深	活吉大	谷沈	골 깊다
119. 溝淺	活呆憂大	谷展	골 널갑다

3) 時今門

120. 春	播妹	蠢	보미
121. 夏	呆論	哈	너름
122. 秋	格自	處	ㄴ슬
123. 冬	解自	董	겨슬
124. 陰	墨立大	引	흐리다
125. 陽	別	仰	별
126. 早	阿怎	左	아춤
127. 晚	展根大	完	점근다
128. 冷	尺卜大	稜	치불다
129. 熱	得卜大	耶	더불다
130. 古	呆	谷	네
131. 今	耶在	根	열제
132. 春前	播妹阿迫	蠢展	보미 알퓌
133. 春後	播妹推迫	蠢胡	보미 뒤혜
134. 夏至	呆論臥那大	哈直	너름오눏다
135. 冬至	解自臥那大	董直	겨슬오눏다
136. 今年	我害	根輦	올히
137. 明年	我嫩害	閔輦	오논히
138. 一年	罕害	義輦	흔히
139. 百年	墨嫩害	迫輦	흔온히

140. 千年	展害	展輦	천희
141. 萬年	蠻害	蠻輦	만희
142. 書長	那吉大	主掌	낮기다
143. 夜短	半送勒大	耶瞻	밤더르다
144. 今朝	我嫩阿怎	根朶	오늘아춤
145. 明朝	餒直阿怎	閔朶	니실아춤
146. 早起	阿怎以你刺	左吉	아춤 일니거라
147. 早去	阿怎以你格刺	左格	아춤 일니거
148. 正月		整臥	정월
149. 二月		移臥	이월
150. 三月		傘臥	삼월
151. 四月		色臥	스월
152. 五月		臥臥	오월
153. 六月		律臥	류월
154. 七月		尺臥	칠월
155. 八月		怕臥	팔월
156. 九月		谷臥	구월
157. 十月		世臥	시월
158. 十一月		世移臥	십일월
159. 十二月		世移臥	십이월

4) 花木門

160. 花	果思	華	고시
161. 桃	卜賞	朶	복상
162. 李	外亞吉	立	외야지
163. 杏	所貴	亨	솔고(괴?구?귀?)
164. 梨	擺	立	빅
165. 棗	大左	左	대초
166. 松	所那莫	送	소나무

167. 樹	那莫	署	나무
168. 果	刮世	刮	과실
169. 菜	餒墨	采	늬물
170. 瓜	歪	刮	외
171. 茄	憂直	格	가지
172. 米	色二	你	밭
173. 豆	孔	朵	콩
174. 稻	別思	朵	벼씨
175. 麥	册密	墨	츄밀
176. 花開	果那大	華改	꽃(긔)여다
177. 花朵	果迫	華打	꽃(긔)피기
178. 紅花	本根果	哄華	블근긔(긔)
179. 青李	噴外亞吉	逞立	푼 외야지
180. 黃杏	努論所貴	謊亨	누른 슬고(괴?구?귀?)
181. 墨棗	格悶大左	哈左	거먼(문) 대초
182. 榛子	改揜	直自	개얌
183. 松子	雜思	送自	жат씨
184. 胡椒	果綽	虎爵	고초
185. 烏木	格悶那莫	我莫	거먼(문) 나무
186. 丁香		丁亨	덩향
187. 木香		莫亨	목향
188. 結果	刮世理雜大	解刮	과실미жат다
189. 果熟	刮世你格大	刮暑	과실니жат다
190. 摘果	刮世大臥那刺	得刮	과실빠오나라
191. 糯米	敢別色二	那你	츄?벼밭
192. 粳米	傘朵色二	景你	션도밭
193. 粟米	左色二	述你	조밭
194. 黍米	吉雜色二	述你	기장밭
195. 蕎麥	莫悶	角墨	모밀

5)鳥獸門

196. 龍	米立	壘	미르
197. 虎	半門	火	버든
198. 象	課吉立	賞	고키리
199. 駝	阿大	朶	약대
200. 牛	杓	五	쇼
201. 馬	墨二	罵	몰
202. 熊	果門	陵	고문
203. 鹿	洒滲	落	사슴
204. 獐	努落	掌	노르
205. 兔	吐吉	吐	툃기
206. 猪	朶	底	돌
207. 羊	揜	仰	염
208. 鴛	格以	我	거위
209. 鴨	我係	亞	올히
210. 鷄	得二	解	덜
211. 犬	改	管	가히
212. 鷹	埋	引	매
213. 雁	吉勒吉	按	그려기
214. 龍吟		龍引	룡음
215. 虎嘯		火杓	호쇼
216. 獅子	助蓋	世自	?
217. 麒麟			기린
218. 象吼	賞文大	賞人	상운다
219. 鹿鳴	洒滲文大	落問	사슴운다
220. 駟馬	阿大墨二	閃罵	악대몰
221. 兒馬	阿直蓋墨二	以罵	아질게몰
222. 騾馬	按墨二	罵果	암몰
223. 青馬	噴墨二	逞罵	프른 몰

224. 黃馬	努論墨二	謊罵	누른 말
225. 赤馬	本根墨二	尺罵	붉은 말
226. 白馬	害墨二	迫罵	흰 말
227. 黑馬	格悶墨二	哈罵	거먼(문) 말
228. 馬駒	墨埋亞直	罵舉	말막야지
229. 鷄啼	得文大	解底	닭운다
230. 仙鶴	杜路迷	閃哈	두루미
231. 海青	寵谷埋	害逞	송골매
232. 天鵝	哈嫩格以	忝我	하늘거위
233. 黃鷹	努論埋	謊引	누른매
234. 烏鴉	憂罵貴	我亞	가마귀
235. 鸚鵡	果果立賽	引莫	꽃고리새
236. 老鸛	管處	落管	관초
237. 鯉魚	板果吉	立我	부어?고기
238. 蝦蟹	洒必格以	哈害	새비/게

6) 宮室門

239. 宮		拱	궁
240. 殿		顛	던
241. 樓	大刺	落	다락
242. 門		悶	문
243. 寺	送二	世	덜
244. 廟		苗	묘
245. 房	直	榜	집
246. 梁	墨勒	兩	막
247. 府		補	부
248. 部		卜	부
249. 州	大額	主	대읍
250. 縣	杓額	賢	쇼읍

251. 衙門		亞悶	아문
252. 館驛		官耶	관역
253. 涼亭	直燦大	兩頂	집츠다
254. 煖閣	直得大	椒憂	집딤다
255. 臥房	雜嫩直	我榜	자논집
256. 廂房		賞榜	상방
257. 倉房		槍榜	창방
258. 庫房		果榜	고방
259. 瓦房	吉賽直	蛙榜	디새집
260. 草房	敢自直	左榜	곶재집
261. 樓房	大刺直	落榜	다락집
262. 街市	哲在	解世	저채
263. 鄰舍	以本直	林捨	이붓집
264. 豎柱	吉董捨以大	述主	기동세다
265. 上梁	直墨勒我根大	賞兩	집므릭올아간다

7) 器用門

266. 鐘	遂卜	種	쇠뿔(뿔)
267. 鼓	卜	刮	뿔(뿔)
268. 笙		省	싱
269. 笛	底		더
270. 紙	着必	直	조히
271. 墨	孟		먹
272. 筆	卜	必	분
273. 硯	必路	揜	벼루
274. 弓	華二	拱	활
275. 箭	洒二	展	살
276. 盃	兔貴	貴	투구
277. 甲		憂	갑

278. 鎗		槍	창(징)
279. 刀	跨二	朶	갈
280. 碑		派	패
281. 銃	火桶	沖	호통
282. 傘	速路	散	슈룹
283. 扇	卜册	閃	부채
284. 卓	果左爽	左	고족상
285. 椅	角位	以	교의
286. 碗	洒擺二	完	사발
287. 碟	迭世	迭	덤시
288. 匙	速二	思	술
289. 筓	哲	主	저
290. 鍋	憂罵	果	가마
291. 盆	迫尺	本	박지?
292. 壺	主平	火	주병
293. 盞	站		잔
294. 銅鼓	遂卜	桶刮	쇠뿔(뿔)
295. 銅鑼	遂爭	桶刺	쇠징
296. 唃囉	主屢	卜刺	주라
297. 喇叭	主刺	刺把	주라
298. 鎖鈞	必刺	所那	피리
299. 馬鞍	墨吉林罵	罵按	말기르마
300. 馬靺	得盖	罵諂	덤계
301. 皮鼓	憂尺卜	必刮	가치뿔(뿔)
302. 轡頭	主谷	陪朶	不明,자갈?
303. 肚帶	我浪	兔大	오랑

8) 人物門

304. 君	臨貫	衰	님굽
--------	----	---	----

305. 后	衰火	火	군후
306. 妃	枉必	必	왕비
307. 公		拱	공
308. 侯		火	후
309. 伯		迫	빅
310. 官	刮嫩	管	관원
311. 吏	捨立	立	서리
312. 軍		衰	군
313. 民	迫升	閔	빅성
314. 父	阿必	卜	아비
315. 母	額密	莫	어미
316. 翁	色阿必	拱	식아비
317. 婆	色額密	卜	식어미
318. 兄	格格	興	가가
319. 弟	阿自	迭	아스
320. 姐	哲哲	哲	져져
321. 妹	餒必	埋	누비?
322. 妻	結直	扯	겨집
323. 子	阿得二	自	아들
324. 總兵		冲稟	총병
325. 頭目		朶莫	두목
326. 將軍		掌衰	장군
327. 伯父	捐阿必	迫卜	큰아비
328. 伯母	捐額密	迫莫	큰어미
329. 外父	憂色阿必	歪卜	가시아비
330. 外母	憂色額密	歪莫	가시어미
331. 君子		衰自	군즈
332. 小人		杓忍	쇼인
333. 男子	赧自	赧忍	남진
334. 婦人	呆忍	卜忍	녀인

335. 富人	憂怎撒論	卜忍	꺄존사름
336. 貧人	憂根撒論	平忍	기닌사름
337. 好人	朶根撒論	活忍	도흔사름
338. 歹人	莫低撒論	大忍	모던사름
339. 商人	享整撒論	賞忍	흥정사름
340. 匠人		掌忍	장인

9) 人事門

341. 去	你格刺	格	니거라
342. 來	臥那刺	賴	오니라
343. 見	播你	間	보니
344. 辭	哈底	思	히딕
345. 回	朶落你格刺	悔	도로니거라
346. 問	母勒	悶	무리
347. 說	你格刺	捨	닐거라
348. 答	大打	大	딕답
349. 坐	阿格刺	左	안꺼라
350. 立	捨格刺	禮	셔거라
351. 進	得勒	振	드러
352. 退	悶勒	兔	믈러
353. 走	格嫩大	祖	것(견)는다
354. 到	述册大	朶	미춧다
355. 買	洒大	埋	사다
356. 賣	迫刺	埋	프라
357. 貴	必色大	歸	밧쓰
358. 賤	必底大	展	밧디다
359. 陪臣		擺沈	비신
360. 書狀		捨莊	셔장
361. 質正		直整	질정

362. 通事		桶色	통스
363. 押馬		按罵	압마
364. 押物		按悶	압물
365. 醫士		額世	의스
366. 醫獸		額暑	의슈
367. 從人		着忍	종인
368. 夷人		以忍	이인
369. 進貢		振拱	진공
370. 聖節	臨貢省直	升哲	님궁싱진
371. 正旦	色二	整膽	설
372. 千秋		詔處	천츄
373. 種馬	著直墨二	著罵	종지물
374. 到京		朶景	도경
375. 鴻臚寺		洪落世	홍려시
376. 報名		播閔	보명
377. 習禮		色立	습례
378. 見朝		間朶	견도
379. 如今	耶在	熱根	열제
380. 朝廷	臨貢	朶頂	님굼
381. 法度	白朶大	把朶	법도다
382. 利害	莫底大	立海	모디다
383. 精通	色必按大	逞桶	소피안다
384. 夷語	格大論罵	以額	격?다른말
385. 好生	朶以	活省	도히
386. 省諭	阿貴	爭與	알고
387. 知道	按大	底朶	안다
388. 午門前	臥門阿迫	臥悶展	오문알피
389. 擺齊	捨自吉迫列	拜尺	ㄱ즈기버려
390. 上御路	額落我憂	賞額路	어로 어가
391. 鞠躬	黑立谷迫	谷拱	허리구펴

392. 五拜	打色墨立左雜	臥擺	다솻머리조사
393. 興	你憂	亨	닐가
394. 叩頭		果朶	고두
395. 平身		品沈	평신
396. 酒飯	數本把	主半	수불·밥
397. 交方物	榜悶罵替	角榜悶	망물 만티
398. 欽賜		恨色	흠스
399. 下程		哈頂	하딩
400. 筵宴	以把底	揜按	이바디
401. 賞賜		上思	상스
402. 謝恩		捨隱	사은
403. 辭朝	哈底	思朶	하딕

10) 身體門

404. 身	磨	沈	몸
405. 心	墨怎	沈	막슴
406. 頭	墨立	朶	머리
407. 面	覈思	免	늑치
408. 耳	貴	以	귀
409. 目	嫩	莫	눈
410. 鼻	果	必	고
411. 舌	解	捨	혀
412. 口	以	谷	입
413. 齒	你	思	니
414. 鬚	那落	晷	나룻
415. 髮	墨立吉	把	머리깃
416. 手	算	晷	손
417. 脚	把二	格	발
418. 腰	黑立	約	허리

419. 腿	黑推	堆	허퇴
420. 筋	欣門	根	히문
421. 骨	處	果	뼈
422. 皮	憂尺	必	가치
423. 腹	拜	卜	빅
424. 氣	近	吉	기운
425. 血	必	解	피
426. 肥	色尺大	必	스찌다
427. 瘦	耶必大	所	여뵈다? 야비압다
428. 眉毛	努色	迷莫	눈섭
429. 眼珠	嫩按	按主	눈알
430. 鼻孔	果谷母	必拱	고구무
431. 洗面	報世色	捨免	놋시서
432. 梳頭	墨立必色	所朶	머리비서
433. 漱口	以下數耶	數谷	입부쉬여
434. 咳嗽	吉怎	害所	기침
435. 嘆氣	罕孫	膽吉	한숨
436. 心寬	墨怎勒大	沈管	막숨넙다
437. 知心	墨怎按大	底沈	막숨안다
438. 好心	朶恨墨怎	活沈	도흔막숨

11) 衣服門

439. 段	必膽	膽	비단
440. 羅		刺	라
441. 綾	果落	稜	고로
442. 錦		根	금
443. 錦被	根你卜二	根必	금 니블
444. 紗		洒	사
445. 絹	吉	卷	김

446. 布		播	포
447. 線	世二	閃	실
448. 袍	得差	播	덥게
449. 袖	色埋	暑	스미
450. 裙	止罵	衰	치마
451. 襖	哲谷立	我	저구리
452. 靴	火甚	華	허신
453. 鞮	亨展	蛙	힝전
454. 紗帽		洒莫	사모
455. 圓領		完零	원령
456. 玉帶		臥大	옥더
457. 彩段		菜膽	치단
458. 衣服	臥思	以卜	오시
459. 夾衣	結臥思	憂以	겹오시
460. 錦褥		根弱	금쇼
461. 皮襖	憂左	必我	가족
462. 雨籠	憂莫	五籠	갓모
463. 氈衫		展傘	전삼
464. 氈條		展朵	전도

12) 聲色門

465. 青	噴必	逞	푹른빛
466. 黃	努論必	謊	누른빛
467. 紅	本根必	哄	블근빛
468. 白	害必	迫	흰빛
469. 黑	格悶必	哈	거먼(문) 빛
470. 藍		報	람
471. 綠		落	록
472. 紫		自	즈

473. 大紅		打哄	다홍
474. 天青		忝逞	턴청
475. 金黃		根謊	금황
476. 黑綠		哈落	흑록
477. 葱白		冲迫	총백

13) 珍寶門

478. 金		根	금
479. 銀	遂	引	쇠
480. 珠		主	주
481. 玉		臥	옥
482. 銅	谷速	桶	동
483. 鐵	遂	迭	쇠
484. 錫	靚捨	捨	듀석
485. 錢	端	展	돈
486. 赤金		尺根	적금
487. 白銀		迫引	백은
488. 珍珠		縝主	진주
489. 瑪瑙		罵柰	마노
490. 琥珀		火播	호박
491. 珊瑚		傘火	산호
492. 水晶		暑整	슈정
493. 銀瓶		引品	은병
494. 金盆	根迫尺	根本	금박지?
495. 玳瑁		大迷	데미

14) 飲食門

496. 茶		叉	차
--------	--	---	---

497. 飯	把	半	밥
498. 酒	數本	主	수불
499. 肉	果吉	入	고기
500. 油	吉林	與	기름
501. 鹽	所昏	揜	소금
502. 醬	自蓋	掌	지(씨)개?
503. 醋		楚	초
504. 湯	谷	黨	국
505. 餅	杓并	并	쇼병
506. 蒸	迭刺	整	뼈라
507. 煮	色罵刺	主	슬므라
508. 早飯	阿怎把	左半	아춤밥
509. 晚飯	那左把	完半	나조밥
510. 黃酒	努論數本	謊主	누른수불
511. 涼酒	燦數本	兩主	츄수불
512. 熱酒	得賁數本	節主	더본수불
513. 燒酒	阿浪氣	杓主	아라기

15) 文史門

514. 詩		思	시
515. 書		捨	서
516. 經		景	경
517. 典		顛	던
518. 誥		果	고
519. 表		標	표
520. 策		次	칙
521. 論		倫	론
522. 勅書		替捨	틱서
523. 勸合		敢哈	감합

524. 印信		引沈	인신
525. 文書		悶捨	문서
526. 讀書	根白昏大	朶捨	글 비혼다
527. 寫字	根沁大	捨自	글 쓴다

16) 數目門

528. 雙		爽	쌍
529. 單		膽	단
530. 丈		掌	당
531. 尺		斥	척
532. 分		本	분
533. 寸		存	촌
534. 兩		良	량
535. 毫		活	호
536. 一	哈那	義	하나
537. 二	覩卜二	移	두블
538. 三	色一	傘	세
539. 四	餒一	色	네
540. 五	打色	臥	다섯
541. 六	耶沁	律	여섯
542. 七	你谷	尺	닐곱
543. 八	耶得二	怕	여덟
544. 九	阿戶	谷	아홉
545. 十	耶二	世	열
546. 二十	色悶二	移世	스물
547. 一百	黑嫩	義迫	흔온
548. 一千		義詔	일천
549. 一萬		義蠻	일만

17) 干支門

550. 子	罪答	自	귀때
551. 丑	杓答	處	쇼때
552. 寅	則卜論答	引	?때
553. 卯	吐答	苗	토때
554. 辰	米立答	沈	미르때
555. 巳	拜言答	色	빅얌때
556. 午	墨二答	臥	몰때
557. 未	揜答	迷	염때
558. 申	那答	沈	남때
559. 酉	得二答	與	들때
560. 戌	改答	述	가히때
561. 亥	朶答	孩	돌때

18) 卦名門

562. 乾		敢	건
563. 坎		堪	감
564. 艮		根	근
565. 震		眞	진
566. 巽		純	순
567. 離		吏	리
568. 坤		衰	곤
569. 兌		堆	태
570. 吉		計	길
571. 凶		雄	흉
572. 爻		學	효
573. 象		賞	상

19) 通用門

574. 東	董	동
575. 西	捨	셔
576. 南	椒	남
577. 北	迫	북
578. 左	雜	좌
579. 右	無	우
580. 中	董	둥
581. 前	展	전
582. 後	胡	후
583. 內	柰	니
584. 外	歪	외
585. 緊	根	긴
586. 密	米	밀
587. 同	董	동
588. 登科	歸刮	등과
589. 甲第	憂底	갑테
590. 有限	與閑	유흔
591. 無窮	莫拱	무궁
592. 何遲	哈底	하디
593. 太早	歹左	태조
594. 更新	耿沈	경신
595. 改舊	盖谷	기구
596. 之乎	知火	지호
597. 者也	哲耶	자야

2. 南京同音字表

注 : 아래 ‘文’은 ‘文讀’을 가리키는 것이고 ‘白’은 ‘白讀’이라는 것이다. ‘又’는 ‘又音’이다.

1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s	茲滋資姿咨輜		子紫姊	字自
ts'	雌疵差參~	詞祠慈磁咨饗辭	此吡	次刺賜
s	私師獅獅斯嘶司絲 思飼		死	士仕柿事四肆寺 似祀俟視

ㄴ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ɕ	知蜘蛛之芝支枝肢		止址旨脂指紙趾	至致制智志瘧治 滯雉稚
tɕ'	疾啞	遲池馳匙持	耻齒	翅啻
ɕ	施詩尸	時鱗	使史駛始屎豕	是試恃世勢示誓 逝氏市式嗜

i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屁		比彼鄙	閉敝蔽弊幣幣避 秘泌
p'	批披	皮疲脾痺		屁庇
m		迷謎弥靡糜	米	
t	低		抵底	地帝弟第遞
t'	梯	提題啼蹄堤	体	替屣涕剃
l		离泥尼梨梨黎 篱璃 厘狸 驢	你礼李里理鯉女呂 旅縷 屢履	例膩厲勵麗隶痢 利吏荔慮濾
ts			擠	祭際捺濟劑聚
ts'	妻凄姐趨	齊躋莽徐	取娶	砌趣

s	栖西犧須需犀		洗	細婿叙序絮
tc	基机譏飢磯肌鷄居 拘狗		几已舉	記計技繼寄紀忌 季妓冀系~鞋帶句 劇据巨拒具俱
tc'	欺期區驅	奇騎其旗棋麒祁岐歧 鱗渠瞿	起啓企豈	契器气汽弃
c	希稀溪媳熙虛墟嘘		喜許	系關~戲
ø	伊医衣依淤	移魚夷姨疑遺飴儀怡 誼沂于迂余兪漁愚虞 娛孟榆愉	雨語椅己以宇羽	遇寓譽預裕宜喻 玉意藝義議刈易 交~昇亿憶翼毅肄

u

調 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補	布步部簿埠
p'	鋪~設	薄菩	譜捕普甫浦脯	鋪店~
f	夫膚敷膚	扶孵 浮符芙	府俯斧腐輔撫	付附父富婦負賦 赴計
t	都城		睹賭堵肚豬~ 都~是	杜肚腹~度渡鍍妒
t'		圖徒途涂屠	土吐~痰	吐嘔~兔
l		奴努廬爐芦盧	魯櫓鹵	路怒露賂鶯
ts	租		祖組阻	助
ts'	粗初	鋤雛	楚础	醋
s	蘇酥		數動詞	訴數名詞漱塑素蔬
tʂ	朱諸豬珠株殊		主煮	住著注柱蛀鑄
tʂ'		除廚儲殊	鼠暑處~理忸褚	處~所
ʂ	書輸舒樞			樹豎庶恕戍
ʐ		如	乳儒汝	
k	孤姑辜箍		古估股鼓	顧故固雇
k'	枯		苦	庫袴
x	呼	胡湖糊胡壺	虎滸	戶護互滬

ø	烏汚塢誣巫	无吳梧娛	吾五伍午武舞	誤悟務霧
---	-------	------	--------	------

ər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ø		儿而	耳餌爾邇	二

a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巴疤芭笆		把	罷爸壩耙
p'	趴	爬		怕
m	媽	麻	馬碼	罵
t			打	大
t'	他			
l	拉	拿	哪	那
tʂ	渣			乍詐榨炸
tʂ'	叉差杈	茶搽查茬	察	岔
ʂ	沙紗		洒傻	
k'			卡	
x	哈			
ø	啊			

ia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e	家傢佳加嘉痂		假眞~賈姓	架假放~嫁鴛价
e	蝦魚~	霞瑕遐嚇~蟻暇		下厦夏
ø	鴉丫樞	牙芽衙崖涯	雅啞	亞

ua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ɕ	抓		爪~子	
ɕ			耍	
k	瓜		寡剛	挂卦
k'	夸		侷垮	跨
x	花	華划		話化畫
∅	蛙	娃	瓦	洼

ɛ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擺	拜敗稗
p'		排牌		派
m		埋	買	賣邁
t	呆~子		歹	待怠代貸袋帶戴 殆
t'	胎苔	抬台		太態泰
l		來	乃奶	賴耐奈
ts	灾栽		宰載	再寨在
ts'	猜	才材財裁	彩睬采	菜蔡
s	腮腮			賽
tɕ	齋			債
tɕ'	差出~釵	柴豺		
ɕ	篩			
k	該		改解~手	盖概漑丐
k'	開楷		凱楷	
x		孩	海	客亥駭
∅	哀	呆~板挨	矮	愛碍藹艾隘

uɛ

調 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屍		比彼鄙	閉敝蔽弊幣弊避 秘泌
p'	批披	皮疲脾痺		屁庇
m		迷謎彌靡糜	米	
t	低		抵底	地帝弟第遞
t'	梯	提題啼蹄堤	体	替屈涕剃
l		离泥尼梨犁黎 篱璃 厘狸 驢	你礼李里理鯉女呂 旅縷 屢履	例厲厲勵麗隶痢 利吏荔慮瀘
ts			擠	祭際捺濟劑聚

ɔ

調 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包胞		保堡飽宝	報抱鮑豹暴爆苞
p'	拋	袍泡~制刨	跑	泡水~炮
m		毛猫描矛茅	卯	貌冒帽
t	刀叨		烏搗倒打~導禱	到倒~水道稻盜
t'	掏濤	逃桃陶淘萄	討	套
l	姦撈	勞牢唠	老腦惱	鬧嘍
ts	槽遭		早棗澡	造灶皂躁
ts'	操	曹槽	草	糙
s	騷搔臊		掃嫂	埽
tʂ	招昭朝今~		找爪~牙沼	照罩趙兆
tʂ'	抄超	朝~向潮巢	吵炒	鈔
ʂ	燒梢稍		少多~	紹韶邵少~年
ʐ		饒撓	扰	繞
k	高膏羔糕		稿搞	告
k'	敲白~		考烤拷	靠犒鏹
x	蒿	毫豪壕	好~怀	号耗好~惡浩
∅		熬	襖	奧傲

io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標彪		表	
p'	漂~流飄	瓢嫖		票漂~亮
m		苗瞄描	秒貌渺	妙廟
t	刁貂雕凋			掉鈞吊調~查
t'	挑	條調~料		跳眺
l		寥聊遼療療瞭	鳥了	料尿杓
ts	焦蕉椒		剿	造灶皂躁
ts'	鋤綵~邊俏	樵瞧		俏
s	消宵霄硝銷蕭簫		小	笑鞘
te	交郊膠驕嬌教~書 澆餃		絞狡攪繳僥	叫教~育校~對較 轎
te'	敲文蹺	蕎喬僑橋	巧	竅
e	耨梏	肴洸堯	曉	效校~學孝
ø	腰要~求妖邀吆	搖謠窯遙姚	咬百杳	要重耀躍鷄

e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爹			
ts			姐	借
ts'			且	
s	些	邪斜	寫	謝瀉卸
tʂ	遮		者	這
tʂ'	車		扯	

ʂ	奢	蛇	舍~弃	舍社
ʐ			惹	

ie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c	街階		解文	界介戒
e		鞋	蟹	懈
∅		爺	也野	夜

ye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c'		茄		
e	靴			

o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波玻播簸菠		跛	
p'	坡	婆	頗	破
m	摸	摩磨~刀魔模摹謀	母畝某牡	
t	刀叨		島搗倒打~導禱	到倒~水道稻盜
t'	拖	駝馱陀	妥橢	柁惰舵垛
l	羅~唆	羅羅籬騾挪螺渦	虜瘼捋	糯
ts			左佐	做坐座
ts'	搓磋	昨矧		錯銼
s	蓑梭梳疏		所鎖瑣	
k	哥歌鍋		果裹	个過
k'	科棵顆裸		可	課
x	呵	何河荷禾和	火伙	貨賀禍

ø	倭窩蝸踈	俄蛾鵝訛	我	臥餓
---	------	------	---	----

əi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碑卑悲杯			背臂被備 貝輩倍
p'	丕坯	陪賠		配佩
m		枚梅媒煤眉霉	每美	妹味
f	非	肥	匪否	費肺廢痲
k			給	
k'				去

uəi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堆			對隊兌
t'	推		腿	退
l		雷	累積~	內類累勞~泪
ts			嘴	最罪醉
ts'	崔催			脆翠
s	雖	隨陷誰		碎歲穗
tʂ	追錐			墜綴贅
tʂ'	吹炊	捶垂錘		
ʂ			水	睡稅芮
ʐ				蕊銳
k	歸龜規閨圭		鬼軌詭癸	貴桂跪拒齷
k'	亏	葵傀魁奎逵		愧潰
x	灰揮輝徽麾	回	悔毀晦	會賄匯惠慧諱穢繪
ø	威	圍微危桅爲行~ 維	尾委僞偉	未衛喂爲~ 什么

		惟違		味魏畏胃謂
--	--	----	--	-------

əu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兜		抖斗升~陡	豆痘斗~爭
t'	愉	頭投		透
l		樓	樓簍	漏陋
ts	鄒		走	奏皺綉驟
ts'		愁		湊
s	搜		叟	瘦嗽
tʂ	周舟州洲		肘帚	咒晝宙紂
tʂ'	抽	綢稠籌酬	丑	臭
ʂ	收		手守首	受授壽售
ʐ		柔揉		肉
k	勾溝鈎		狗苟	够构購
k'	摳		口	扣寇叩
x	駒	侯喉猴猴	吼	后厚候
∅	歐歐漚甌		偶嘔藕	恆

iəu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丟			
l	溜	牛流硫琉劉留榴	紐扭柳	謬
ts	揪		酒	就
ts'	秋	囚洵		
s	修羞			秀綉綉袖誘
tɕ	糾灸闖鳩		九久韭	臼旧救究舅咎柁
tɕ'	丘鍬	求球		

e	休		朽	
ø	幽憂优悠	由郵油尤犹游	有友	又右佑宥幼

ã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班班頒扳般搬邦		板版榜綁	半伴拌辦棒磅扮滂瓣絆
p'	潘攀	旁盤滂磅傍龐槃磬		胖盼判叛
m		忙蠻瞞芒虹氓漫慢	滿蟒莽	慢蔓漫幔
f	方番翻帆芳	凡礬房煩繁防妨肪	反紡訪仿返	放飯販犯范泛梵
t	單當應~丹担負~耽耽		擋胆党揮	但担~子旦淡彈子~蛋當典~宕誕憚
t'	湯坍貪灘攤	唐糖塘搪談痰譚檀彈~性螳堂棠潭壇	毯坦倘躺袒	炭探嘆燙趟
l		南男難~易婪藍嵐籃瀾蘭攔欄囊郎狼廊	懶覽攬朗攢	難災濫浪爛
ts	臟肮臧簪贓		咱多~	贊蘸藏西臟五葬
ts'	倉倉蒼	藏蚕殘	慘	燦
s	三桑喪婚~		傘唵搯	散喪~失
tʂ	張章樟沾氈詹瞻		掌盞斬展長~大漲	丈占站仗杖暫綻帳賬脹漲障戰棧
tʂ'	昌攙	長短涕腸蟬常禪嘗償場纏饑詭蟾潺	厂產鏗場闡	唱倡暢顛忤
ʂ	山商傷衫裳珊珊珊澗煽腫杉		賞陝	上單姓尚善訕汕疝扇贍鱔繕膳
ʐ		然燃瓢穰	染壤冉	讓
k	甘肝柑干~淨剛綱鋼缸肛間時~		敢竿感杆杆趕港	干~活杠
k'	康糠堪看~守	扛	慷刊坎侃	看~見抗炕勘
x	酣夯軒	寒韓含行航杭函	喊	漢旱汗撼捍焊翰
ø	安鞍肮庵	昂		按案暗岸

iã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l		良娘糧涼量~長短梁 梁	兩仰	亮諒量力~輛
ts	將~來漿		搶	醬將大~匠
ts'	槍	牆		嗆
s	相互~箱廂湘襄鑲		想	象像橡相~貌
tɕ	江疆僵姜疆疆		講	降下~
tɕ'	羌腔	強		
ɕ	香鄉		享響	向項巷
∅	央秧殃	楊揚羊洋洋陽	養痒	樣恙

uã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端		短	斷段鍛緞
t'		團		
l		鸞鑾巒樂	卵暖	亂
ts	鈷動詞		纂	鈷名詞賺
ts'				竄創
s	酸			算蒜
tʂ	庄椿裝專磚妝		轉旋 葵粗壯	壯狀撞賺篆轉~動 撰傳~記
tʂ'	穿川窗瘡	床椽傳~達船	喘闖	串
ʂ	霜雙門		爽	
ʐ			軟阮	
k	光觀~看關官信棺 冠~衣		管館广	慣貫灌罐觀~寺冠 ~軍
k'	寬筐	狂	款	曠礦况枉

x	荒慌歡	黃皇蝗环還桓簧螞煌 惶惶凰	緩誑	換喚煥患宦
ø	汪彎灣琬	完丸頑王玩	碗晚挽往网皖婉枉	万望忘旺妄

ẽ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邊鞭編		扁匾貶	變辨辯辯便方~遍 一~
p'	偏篇	便~宜		片遍~地騙
m		綿棉眠	免勉	面
t	顛		点典	電店殿佃
t'	天添	田恬填	舔	忝
l		年粘連蓮琫廉濂帘聯 怜	臉碾	念戀斂練煉
ts	尖煎箋		剪踐	箭賤漸荐
ts'	殲千遷簽	錢前全泉乾	淺潛	
s	先仙鮮宣	旋白, ~轉	選癡	線鋏旋白, ~吃~ 做: 現吃現做

iẽ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e	堅肩奸艱兼監間 文: 時~		減城檢儉簡諫揀莝 檢	見劍鍵建健件間 ~斷澗
te'	牽謙鉛		遣	欠
e	掀	咸銜嫌閑賢	險顯憲	現獻縣
ø	烟腌	言圓園延原嚴研緣顏 袁閻檐轅援鹽元員源	眼掩演遠	燕宴驗厭雁晏硯 咽怨院愿鴛

yẽ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e	娟捐		卷~起	圈豬~卷書~

tc'	圈圓	全痊權顛拳鉗	犬	勸券
c	宣喧	旋文玄縣弦眩	選	旋文~做~吃楨

əŋ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奔崩		本	笨
p'	烹噴	盆朋棚彭膨蓬蓬	捧	碰
m		門盟蒙捫	猛	孟悶夢
f	風封峰蜂瘋丰紛分 芬吩	墳馮逢縫動詞焚	粉諷	奉俸鳳縫名詞份奮 糞憤
t	灯登		等	凳鄧鈍
t'		疼騰譽藤		
l		能	冷	
ts	曾姓箏爭掙		怎箏	贈
ts'	參~差撐	層曾~經		
s	生參人~牲森僧甥		省節~	滲
tʂ	眞珍針斟診鷄~貞 偵蒸征砧箴臻		整疹珍枕	正証症政鄭振震 陣鎮
tʂ'	称	陳塵沉成辰晨臣橙乘 承丞呈程成城誠盛~ 飯	逞	趁称秤剩
ʂ	聲身申伸升深	神繩	審孀沈	圣甚腎慎胜盛
ʐ		人仁	忍刃仍	認任軀
k	根跟庚梗羹耕今白		耿	更
k'	坑		肯啃懇壘	
x	哼	恒衡	很狠	恨
∅	恩恩			硬白

ij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p	兵冰賓鬢檳彬		丙餅秉	病井殯
p'	拚	平評坪苹萍屏瓶貧頻 凭顰	品	聘
m		名民明鳴銘	敏閩憫皿	命
t	丁釘名詞療		頂鼎	定訂釘動詞
t'	听聽汀	亭停廷庭蜓	挺艇	听~任
l	拎	鈴凝玲灵林伶淋零臨 凌鱗菱磷陵宁 ~安	領嶺	令另吝佞宁~可
ts	精津晶晴		井	進盡淨靜晋浸靖
ts'	清青侵親~人蜻	晴情秦尋	請寢	親~家
s	心星惺辛新薪		省反~醒	信訊
te	今金京禁~不住 襟 巾斤筋經惊鯨荊	君郡軍均鈞	錦緊僅謹景警頸	禁~止近勁敬竟鏡 競徑俊
te'	欽輕卿	琴禽擒芹勤群裙	頃傾	欸慶磬
e	欣興~旺馨熏薰勛	行~爲形刑型旬循巡		釁興高~杏行品~ 幸姓遜性殉迅
ø	因陰姻股鷹應嬰鸚 櫻纓蠅	云勻銀寅營螢迎盈贏 淫	影引飲隱尹	運韻孕熨暈印硬 文映

uəŋ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吨敦墩蹲			頓盾遁沌
t'	吞	屯豚臀		
l		論~語倫輪綸掄侖		論理~嫩
ts	遵尊			
ts'	村皴	存		寸襯村
s	孫孫殮		損笋省老: 江蘇~	
tʂ	沌淳		准	
tʂ'	春		蠢	

ʃ		唇純醇淳鶉	吮	順瞬舜
ʒ				潤閏
k			滾	棍
k'	昆坤		捆	困
x	昏婚葷	魂渾橫鯤		混
∅	溫瘟	文紋蚊聞	穩吻勿	問

oŋ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	東冬		董懂	動凍洞
t'	通	同銅桐童瞳	統桶筒捅	痛
l		農膿濃龍籠聾隆	攏隴壟	弄
ts	宗棕鬃踪綜		總	綜縱
ts'	聰葱凶匆	從叢崇		
s	松嵩		聳	送宋誦頌訟
tʃ	中忠終鐘盅		種名詞腫	仲中打~種動詞重 輕~衆
tʃ'	冲~鋒充春	虫重~夏	寵	冲說話很~銃
ʒ		絨融蓉戎茸		
k	公工功攻弓躬宮恭 蚣		鞏拱	供貢共
k'	空~气		孔恐	空~閑控
x	烘轟	紅弘宏洪鴻	哄~騙	哄起~
∅	翁			瓮

ioŋ

調聲	陰平	陽平	上聲	去聲
tɕ			窘	

tc'		窮琮		
e	兄凶洵胸	熊雄		
ø	雍擁	容榮	勇永	用佣

ɿ?

調 聲	入聲			
tʂ	直值植殖殖只織職炙擲汁執			
tʂ'	尺飭赤斥吃文			
ʂ	十濕什拾食飾石識釋失虱			
ʐ	日			

i?

調 聲	入聲			
p	必逼筆畢璧壁鼻碧弼			
p'	匹劈譬僻			
m	密密覓			
t	的敵滴狄笛嫡籜			
t'	踢剔			
l	力栗立粒笠律逆匿			
ts	積迹績脊籍卽鯽寂緝輯疾集			
ts'	七漆膝戚			
s	息熄媳昔惜席夕錫戍雪恤習襲悉			
te	及極級激擊急吉屐這白局菊掬橘掘			
te'	泣乞訖吃白屈曲			
e	吸			
ø	一乙壹益譯亦逸抑揖			

u?

調聲	入聲
p	不
p'	扑仆
m	木牧目
f	福佛服伏夏腹
t	毒讀牘獨
t'	秃突
l	陸祿鹿录綠六
ts	足卒
ts'	促触族
s	速宿粟續俗
tʂ	燭囑祝軸粥筑竹妯
tʂ'	出畜
ʂ	叔贖屬熟術述
ʐ	役疫辱褥入域育獄欲
k	骨谷
k'	哭
x	獲忽核桃~
∅	屋物勿握

a?

調聲	入聲
p	八拔
m	抹
f	法發乏罰伐筏
t	達答搭
t'	塔塌踏榻榻獺
l	腊辣納捺賴蜡獵

ts	雜扎
ts'	擦
s	撒
tʂ	炸~彈閘鋤札眨
tʂ'	插察
ʂ	殺
∅	阿

aʔ

調聲	入聲
tɕ	甲夾胛
tɕ'	恰洽掐
ɕ	瞎轄狹峽
∅	壓鴨押

uaʔ

調聲	入聲
ʂ	刷
k	刮括
x	滑划
∅	挖袜

ɛʔ

調聲	入聲
p	白伯百柏北
p'	拍迫
m	墨默麥脉
t	德得

t'	特
l	勒肋
ts	窄宅摘賊責澤擇則
ts'	測拆廁冊策側
s	色虱又澀嗇塞
tʂ	折骨~哲漸蟄
tʂ'	徹撤
ʂ	舌涉設室折~本
ʐ	熱
k	格革擱
k'	客克刻
x	黑嚇核~心
∅	額

ueŋ

調 聲	入聲
ts	拙
k	國郭
k'	闊括擴
x	或

eŋ

調 聲	入聲
p	別鼈癩
p'	撇
m	滅
t	疊跌碟
t'	鐵帖貼蝶諜
l	烈列裂獵劣捏孽

ts	節接捷截
ts'	切妾
s	薛泄屑楔雪
tɕ	結洁杰劫揭
tɕ'	怯
ɕ	血歇惕恤協旭
∅	叶業噎

yeʔ

調 聲	入聲
tɕ	絕掘決
tɕ'	缺
ɕ	學文削文薛蓄

oʔ

調 聲	入聲
p	薄駁博剝撥膊
p'	潑
m	莫摸沒末沫幕
t	奪
t'	托脫
l	洛駱絡落烙略酪
ts	作鑿嚼爵
ts'	撮
s	索縮
tʂ	著桌捉濁鐳
tʂ'	戳
ʂ	勺說
ʐ	若弱

k	各閣割角白脞鴿
k'	殼渴
x	合盒活喝
∅	惡

ioʔ

調 聲	入聲
ts'	雀鵲
s	削白
tɕ	脚覺角文
tɕ'	确却
ɕ	學白
∅	約藥樂音~岳鉞

